목 차

발간사(성북문화원 원장) 2
축사(국회의원 기동민, 김영배) 4

특집 1 | 성북의 종교 문화
지역 교회, 시대를 기록하다 7
성북구의 사찰문화재를 찾아서 16
성북구의 가장 오래된 교회, 돈암교회의 역사와 사람들 27
성북의 마을제사 동제(洞祭) 33
성북동 사랑나눔 연합바자회 38

성북 인물 초대석
"사람답게 살기 위한 가르침, 종교" 글라렛선교수도회 이문수 신부님 40
종교는 어려울 때 손잡아 주는 이웃 홍천사 주지 각밀 스님을 만나다 48

특집2 | 성북학
2021 성북주민 아카데미 : 성북의 종교문화와 민속신앙 55
제2회 성북학 학술회의 : 1930~40년대 성북 지역의 문화지형도 61
제3회 성북학 학술회의 : 기록의 넓이 - 성북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각양각색 기록의 세계 66

성북공간
1955년, 성북동에 세워진 붉은 벽돌 건물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 본원 69
믿음의 장소, 기원의 이름 73

2021년 성북문화원이 주목한 역사 인물
개운사의 학승, 석전 박한영 78
무교회주의 지도자 김교신과 마라토너 손기정의 특별한 우정 82

2021년 성북문화원의 행사
2021 성북문화원과 함께 하는 문화가 있는 날 85
2021 주민기록단 88
2021 제1회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 제1회 성북 마을기록 전시 91
2021 성북동 밤마실 95

2021년 성북문화원의 소식 99
2021년 성북문화원 임원명단 123
2021년 성북문화원을 후원해 주신 분들 125

발간사

『성북문화』 9호를 내며

2021년이 끝나갑니다. 올 한 해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성북문화원의 활동을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은 성북문화원에게 도전의 해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비일상적 상황 속에서 일상의 프로그램을 조금씩 회복해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며 문화강좌를 운영해야 했고, 멈췄던 축제도 개최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힘든 순간에는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북문화원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성북문화』 9호에는 이런 도전의 기록이 담겨있습니다.

성북문화원은 기존에 대면으로 진행하던 많은 사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프리미엄 인문학'은 아이들의 눈으로 권진규와 김창열, 두 명의 성북의 미술가들을 만나게 하였으며,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서는 성북구의 역사문화 인물을 성북문화원이 직접 기획한 콘텐츠를 통해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록의 의미와 1930년대 성북구 지역의 문화지형을 밝히기 위한 학술회의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된 성북문화아카데미를 통해서는 성북구 지역의 다양한 종교의 모습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도 성북문화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한 성북마을아카이브 사업은 타 지역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민기록단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기록을 수집하고 정리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으며, 관내 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자료수집도 시작하여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1회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을 통해 성북구민들의 소중한 생활기록을 모은 것도 올해의 뜻 깊은 성과입니다.





2017년부터 이어진 성북동밤마실(예전의 성북동문화재야행)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축제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AR, VR 등의 기술을 이용해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히 활용하며 축제를 진행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북문화원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이번 『성북문화』 9호는 성북문화원의 새로운 도전과 함께, 성북구의 종교문화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종교는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의 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래된 종교는 그 자체로 역사성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 성북구에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전통사찰이 있으며, 수많은 수도회와 교회가 자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산신제 등의 민간신앙도 여전히 전승되고 있습니다. 『성북문화』 9호에는 이런 성북구 종교문화의 다채로운 모습이 담겼습니다.

글라렛선교수도회의 이문수 신부님, 흥천사의 각밀 주지스님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장위동 성당의 1970년대 주보, 성북구의 불교문화재, 마을제사 등이 담긴 '성북구의 종교문화' 특집과 믿음의 장소들을 담은 '성북공간'을 통해서는 종교가 우리의 삶과 어떻게 밀착되어 왔는지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특집을 통해 종교를 넘어 인간 삶에서 '믿음'이 갖는 의미를 성찰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북문화원의 새로운 도전은 2022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닌,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성북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2021년의 좋은 기억만 가져가시길, 그리고 2022년에는 구민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바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북문화원장 조태권



한양도성과 삼선동 장수마을

축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 성북(을) 국회의원 기동민입니다.

성북문화원의 『성북문화』 9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성북구의 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는 성북문화원 조태권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임인년(壬寅年) 새날이 밝았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지난 시간의 어려움만큼, 새해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긴 시간 어려움을 감내하고 임인년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곁에 있어 저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문화와 예술은 우리 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 공연과 전시회를 진행하는 등, 문화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줍니다.

성북문화원 또한 성북주민이 쉽게 문화를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어디서든 즐길 수 있도록 꾸준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문화생활을 위하여 힘써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성북문화』 9호의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임인년 새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한 해 동안 내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늘 여러분 편에 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북구(을) 국회의원 기동민

성북문화 제9호.indb 4 2022-02-18 오전 10:27:24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성북(갑)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아홉 번째 『성북문화』를 만나게 되어 반가운 마음 가득합니다. 『성북문화』 9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문화를 통해 서로 만나고, 함께 체험하며 같은 경험과 기억을 공유하여 왔습니다. 코로나19로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고 쉬이 만날 수 없게 된 요즘, 우리 모두에게 문화의 힘이 더욱 귀하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성북문화원은 문화의 힘을 믿고 공통의 경험과 체험을 만들기 위해 늘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2021년 성북문화원의 연구 성과는 대단했습니다. 두 번의 학술회의를 통해 성북지역의 1930년대 문화지형도를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시민과 함께 하는 마을아카이브사업을 통해 많은 자료들을 축적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성북 마을아카이브사업은 명실상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롤 모델이 되었으며, 자치분권시대의 모범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시대 지역 주민과 함께 한 프로그램들도 인상 깊었습니다. 성북동문화재야행을 이은 성북동밤마실은 오랜 시간 지친 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을 뿐 아니라, AR · VR 등의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축제 방식은 미래 문화를 선도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 · 문화 인물들을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들도 모두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오랜 기간 우리 성북구에 애정을 갖고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연구 · 조사 · 정리하며 그 활용을 꾸준히 고민해 온 성북문화원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 번 성북문화원 임직원님들께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 좋은 활동으로 만날 수 있길 성북구민과 한 마음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저 또한 우리 성북구민 모두가 문화의 힘으로 보다 나은 내일을 열 수 있도록 성북문화원과 언제까지나 든든하게 동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 그동안 서로를 연결해 온 희망의 끈이 더욱 단단해지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성북구(갑) 국회의원 김영배

성북문화 제9호.indb 5 2022-02-18 오전 10:27:25



성북구의 종교문화

지역 교회, 시대를 기록하다

1978~1979년도 〈천주교 장위동 교회 주보〉 읽기

글 : 백외준(성북문화원 연구과장)

장위동 성당 주보의 특별함

교회 주보는 교회(천주교, 개신교 모두)에서 매주 일요일에 발행하는 인쇄물로 미사 또는 예배의 순서와 교회 소식을 신자들에게 알리는 매체이다. 현재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각 교구마다 주보를 만들어 사용한다. 그러나 1970년대에만 해도 성북구 장위동 성당은 교회 단독으로 주보를 만들어 배포했다.

그 시절 성북구 장위동 성당의 주보는 뭔가 특별한 데가 있었다. 다른 주보들이 대개 미사와 전례, 교리와 신앙에 대한 글, 교회 내 소식을 주로 전했던 것과 달리 장위동 성당 주보는 한국 천주교회 전체의 중요한 소식을 비롯해 교회 밖의 정의롭지 못한 현실들을 기사화해서 신자들에게 전달했던 것이다. 발행부수도 가장많을 때에는 1,600부에 달했다. 이때 주보는 하나의 어엿한 언론매체로서 기능했다. 1975년 '3.1절 기도회 사건'을 비롯하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성명, 김지하 시인 석방 촉구 미사, 동일방직 노동자들의 단식 농성 소식 등이 주보에 실려 전해졌다. 당시 정권의 검열 탓에 일반 신문에 보도되지 못했던 사건들이 장위동 성당의 주보에는 당당하게 실렸던 것이다.

이와 같은 언론 매체로서의 주보 발행을 주도했던 사람은 주임신부인 양홍 신부이다. 1975년에 발족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창립 멤버이기도 한 양홍 신부는 유신정권의 인권 유린과 언론 탄압, 노동자와 농민이 처한 척박한 현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회 현실 속에서 정의 회복이 곧 하느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길임을 주보와 강론을 통해 꾸준히 알렸다. 이 때문에 유신정권은 양홍 신부와 장위동 성당 주보편집위원회를 눈엣가시처럼 여겼으며 급기야 주보 발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장위동 성당은 이에 굴하지 않고, 1979년 말 서울대교구 주보로 통합되기 이전까지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계속 주보를 발간했다.

지금의 우리 눈에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 기사이지만, 실제 주보를 찬찬히 살펴보면 그 내용은 매우 다채롭다. 신앙생활의 소회와 고민, 교회 내 평신도 단체의 활동 모습, 어린이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소년들의 이야기, 성당 신협의 설립과 성장 이야기, 신자의 직업과 생활 등 실로 다양한 기사와 투고문들이 주보 속에 담겨 있다. 읽다보면 오늘과는 다른 그때 그 시절 풍속과 언어를 접하면서 풋!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때때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빼어난 글솜씨와 사

성북문화 제9호.indb 7 2022-02-18 오전 10:27:28

려 깊음에 감동하기도 한다.

1970년대 말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의 이면과 장위동 성당 신자들의 현실적이고도 신앙적인 고민들을 읽어낼 수 있는 주보는 장위동 성당은 물론 장위동과 성북구의 귀중한 기록자산이다. 현대사는 물론 지역사, 교회사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이다.

장위동 성당 주보의 발간

장위동 성당은 1969년 9월 22일부터 성당 전례와 공지사항 및 간단한 교리 지식을 신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천주교 장위동 교회 주보〉(이하 주보)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창간 당시 주보는 16절지에 등사하여 부정기적으로 교양, 홍보, 성경해설 등을 실었으며 김형보 사무장이 원고 작성과 필경을 도맡아 하였다. 주보의 초기 발행 부수는 150부 정도였으나 신자들의 호응을 얻어 점차 발행부수가 증가하였다. 1974년에 들어서는 활자화되면서 더 많은 부수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1975년 5월 25일 제3대 본당 첫 한국인 주임 신부로 양홍 에우세비오 신부가 부임하면서 주보는 그 성격과 내용이 한층 다채로워졌다. 1974년 함세웅 신부와 함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창립에 참여했던 양홍 신부는 주보를 통해 한국 천주교 안팎의 소식을 알리고자 했다.

1976년에 들어와서 주보는 '자유 언론의 사명은 민주주의의 생명이다. 올바른 비판은 새로운 창조와 진실 추구의 가장 충실한 도구이다'라는 취지 아래 3월 21일 한국 천주교 주교단 '3.1절 기도회 사건'성명을 보도했고, 이에 관련된 공판 내용을 6월 6일(352호)부터 8월 15일(362호)까지 3차에서 14차까지 보도하였고, 8월 22일에는 '한국 교회의 위기와 극복'이란 지학순 주교의 강론을 보도했다. 1977년 2월 13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결성을, 7월 24일에는 3.1사건과 관련되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신현봉 신부와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하였다.

1978년에는 주보가 질적, 양적으로 크게 변화되었다.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다. 주보편집위원회는 '일방적 견해와 객관성을 잃은 보도, 사실을 왜곡한 보도는 언론의 가장 무서운 적이다. 개인의 의사를 소신껏 발표할 수 있으며 그릇된 아집과 편견을 추방하고 귀중한 체험을 서로 나누어 하느님의 참된 뜻을 교환하자'는 목표 아래 종전의 2면에서 4면으로 면수를 늘려 주보 기사의 질적 심화를 꾀하는 한편 다루는 내용도 넓혔다. 4월에는 노동청년회, 산업선교회를 용공분자들의 노동계 침투로 왜곡 조작한 '동일방직사건' 내용과 '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은 인간의 기본권'이란 김수환 추기경의 강론, 정의구현사제단의 '4월 선언' 보도로 양홍 신부는 성북경찰서에 연행되고 주보는 압수되었다.

그럼에도 주보는 노동자와 농민, 민주화를 요구하는 천주교 사제와 신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유신정권의 행태를 가감없이 기사로 다루었다. 이를 못마땅해한 문화공보부는 1978년 11월 장위동성당에 공문을 보내 주보 발간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주보도 신문 잡지와 마찬가지로 언론을 담당하는 정기간행물이므로 문화공보부에 등록을 해야 발간을 계속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간행물이므로 발간을 중지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양홍 신부와 주보편집위원회는 이를 반

성북문화 제9호.indb 8 2022-02-18 오전 10:27:28



장위동 성당

박하여 현재 천주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 시설에서 신자들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주보를 발행하고 있는데 어찌 장위동 성당의 주보만 간행물로 등록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요지의 답변을 보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양홍 신부와 주보편집위원회는 당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1979년 3월에 '민주, 민족, 민생의 복음 선포'를, 7월에는 '짓밟히는 농민운동'(오원춘 사건)을 처음 보도했다. 그로 인해 귀가하는 성당 신자들은 가방에서 주보를 압수 당하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또한 성당에서 시국과 관련된 미사나 행사를 여는 날이면 사복을 입은 기관원들도 버젓이 참관하는 등 장위동 성당은 공공연히 당국의 감시를 받았다.

이후 주보편집위원회는 특별기획으로 '1979년 8월 26일 500호 기념호'를 내기도 했으나 1980년부터 서울대교구의 〈서울주보〉와 공동으로 발간하기로 결정하면서 장위동 성당 단독 주보의 시대는 1979년 12월 30일 518호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장위동 성당 주보는 전체 4면에 발행부수 2000부를 넘지 않은 서울 한 구석 작은 성당에서 발행하는 소규모 정기간행물이었다. 그러나 주보는 1970년대 후반 유신정권의 압력 속에 일간지나 여타 종교지가 보도하지 못한 사건을 과감하게 보도함으로써 그 기록적, 역사적 가치를 인정 받는다. 또한 주보는 1970년대 민주화운동, 한국 천주교회, 그리고 성당을 중심으로 한 장위동 사람들의 모습을 재구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료이다. 이에 1978-79년도 주보를 입수하여 그 내용을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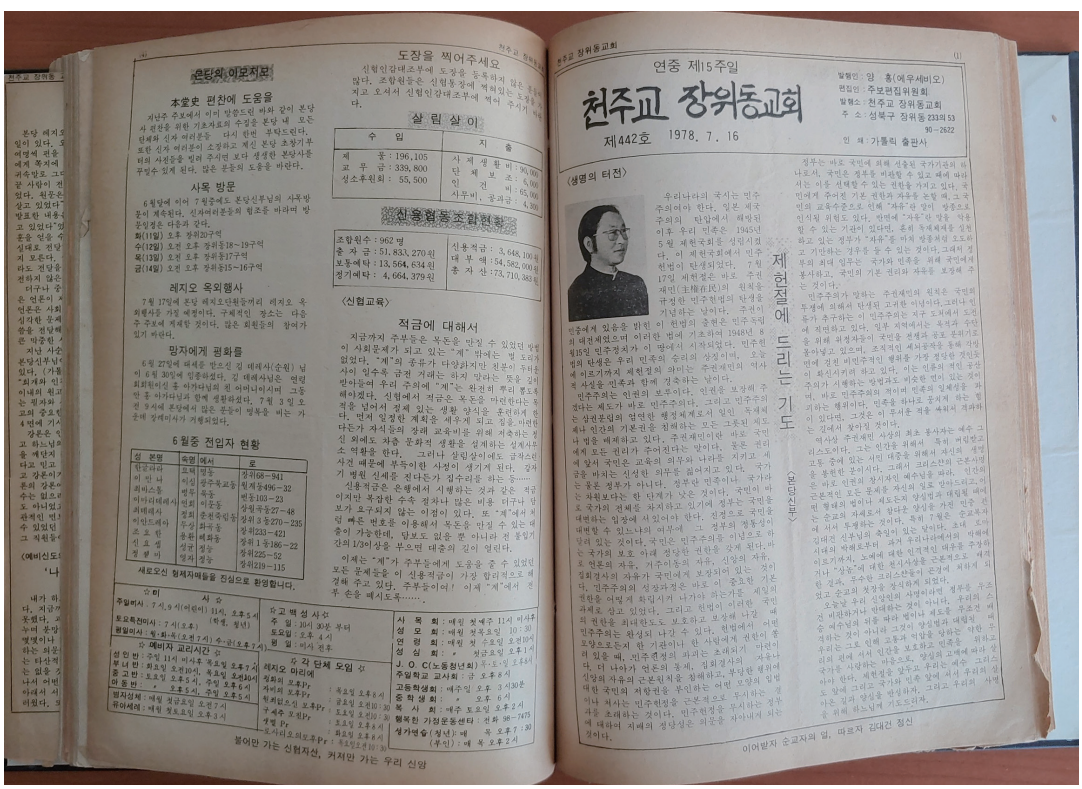
성북문화 제9호.indb 9 2022-02-18 오전 10:27:29

펴봤다. 그 중 1978년도 주보의 내용을 시기순으로 정리해보고 주요 기사를 발췌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978~1979년 장위동 성당 주보의 구성과 내용

2020년 8월 19일 나와 민문기 성북학연구팀장은 장위동 성당을 방문하여 주보 열람을 요청하였다. 장위동 성당은 1978년 1월 1일(제414호)부터 1979년 12월 30일(제518호)까지 발행한 주보의 사본을 모두 제본하여 2권의 책으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1978년 이전의 주보는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성당 측의 설명을 들었다. 첫 방문에도 불구하고 성당은 기꺼이 두 권의 주보집을 제공해주었고 우리는 건네받은 주보집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다. 그렇게 확인한 주보의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몇 대목을 골라 발췌하여 옮겨 봤다.

- 1월 1일
▶ 변화시키는 힘 (본당 신부)
"하느님께서는 기도하며 일하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의 귀중한 희생을 보시면서 당신의 사업을



1978년 7월 16일 주보(오른쪽 면). 사진 속의 인물이 양홍 주임 신부이다.

성북문화 제9호.indb 10 2022-02-18 오전 10:27:29

펼쳐 나가시고 그들에게는 이 지상에서도 불멸의 보람을 영혼 깊숙이 심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느님과 만남 속에 교회는 확장되며 발전되고 새로운 분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 1월 8일
▶ 한국천주교회사 연재 시작 (조광 집필)
"도도히 흘러가는 하나의 강물이 있었다. 나는 강가로 나아가 이 강물의 흐름을 살펴 보았다. 강물은 자그마한 물결을 연이어 일으키며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그러한 강물의 성질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일단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필요를 느꼈다. 강물이 거쳐온 상류에 여울목이 있어서 그 조금 아래에서는 아직까지 물결이 가시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에서처럼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과거로 소급해 올라가 보아야 한다."

▶ 가톨릭노동청년회(J.O.C.) 장위동 섹션 활동 기사
* 대외활동으로 장위동 일대의 노동청년들을 초청하여 오락회 주최 (일반회)
"설립된 지 채 1년도 안되는 본당 가노청의 활동에 여러 교우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길 빕니다. 특히 직업청년들의 가입을 적극 권하고 싶읍니다. (주보 편집실)"

- 1월 15일
▶ 교회소식 "일치주간을 맞이하여"
"작년도 3.1사건으로 옥고를 치루던 문정현, 신현봉, 함세웅 신부님들의 석방을 기념하는 미사가 1월 16일 오후 6시 명동성당에서 열린다. 이날 미사에 많은 신도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 1월 23일
▶ 함세웅, 문정현 신부님 석방 감사 미사

- 1월 29일
▶ 전, 현임 고등부학생회장의 변
"학생회의 육성이 곧 교회의 기둥이 될 지도자의 양성이고, 이것은 교회발전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모두의 일이며, 어제도 내일도 아닌 바로 오늘의 일입니다. 한마디의 말보다 한 가지의 실행, 외적 판단보다는 내적 이해가 선행되는 능동적인 자세가 학생회 육성을 위한 올바른 자세이리라 믿으며,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나 편협한 개인주의에 의한 행동은 없었는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가톨릭(평협, JOC, 농민회, 꾸르실리오) 전국조직 해체위기 보도
▶ 전국 규모 액션단체의 위기
"최근 〈가톨릭시보〉에 의하면 평신도협의회, 가톨릭 노동청년회, 가톨릭 농민회, 꾸르실리오 등 평신도 사도직 단체들의 전국조직을 해체하고 교구 단위로 활동규모를 축소하려는 안건이 춘계 주교회의에서 제안된다고 한다. 주교회의의 최종결정이 나기까지는 이에 대한 신도들의 활발한 토론이 바람직

성북문화 제9호.indb 11 2022-02-18 오전 10:27:29

하리라 생각하여 우리 주보에서도 계속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 철거당하는 본당 신도
"도봉구 월계동 A반 무허가 건물 350동이 3월 31일까지 철거를 당하는데 이중에는 우리 신자 중 11가구가 포함되어 있다. 시정방침은 철거민 중 50%만 시영아파트에 입주시킬 예정이고 나머지 50%는 가구당 20만원의 보상을 주게 된다. 우리 모두 곤경에 처해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위로하며 기도드리자."

- 2월 5일
▶ 가톨릭 전국단체 위기에 "주교님들을 위한 기도" 보도 이 기사를「가톨릭 서울」에서 전재
▶ "평신도 단체의 전국협의체 해체의 이유는 무엇인가"
▶ 주보 발행부수 1,600부 돌파
"새해를 맞아 대대적 증면을 단행했던 본당주보는 그간 본당 교우는 물론 다른 여러 본당의 비상한 관심과 기대 속에서 그 발행부수가 1,600부에 달하는 가운데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주보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증면 이전의 700부 발행에 비할 때, 놀라운 발전이라 하겠다. 이것은 본당 교우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의 결실인 바, 이러한 힘찬 성원에 부응하여 더욱 알찬 우리 교우들의 주보를 만들 것을 또 한 번 다짐한다."

- 2월 12일
▶ 평신도 사도직 전국협의회 건의문
"우리는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의 전기 5개 평신도 단체 해체 결정이 현대 교회의 사명과 평신도의 지위 향상 및 이로 인한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백지화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 2월 19일
▶ 함세웅 신부님과의 대화

- 2월 26일
▶ 교회 언론의 사명
"하느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은 양심의 고백에서 시작된다. 양심의 소리를 전달하는 데에 장해가 되는 모든 소아병적인 사고방식을 떠날 수 있어야 하며 교회언론이 양심의 소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사람의 눈치나 살핀다면 그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 있겠는가?"

- 3월 26일
▶ 동일방직의 형제들이여, 우리가 있다. 하느님이 계시다.
"우리는 현재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100여명의 동일방직의 자매들과, 노동현장에서 박해받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 그리고 교권수호를 위해 기도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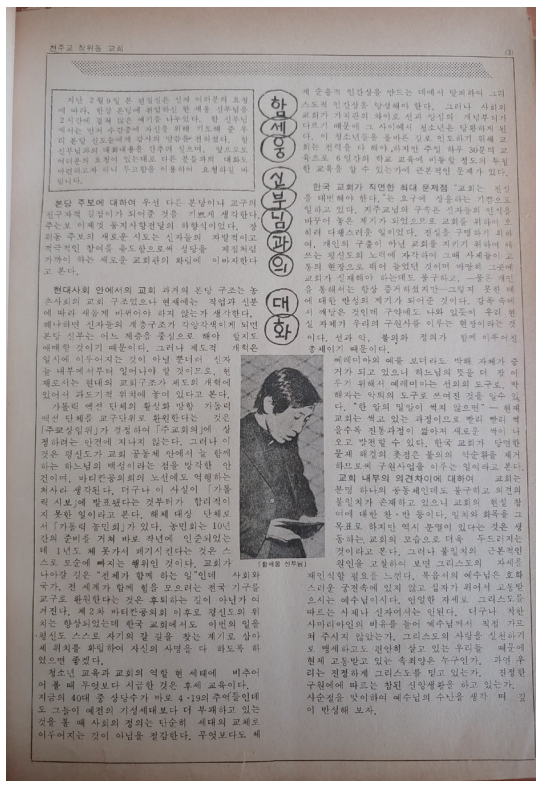
성북문화 제9호.indb 12 2022-02-18 오전 10:27:29

- 4월 2일
▶ 동일방직 사건과 관련「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은 인간의 기본권」김 추기경님 교권수호 기도회 강론요지 보도. 추기경 기자회견시 본당주보 자료 사용

- 4월 9일
▶ 신협 정신

- 4월 23일
▶ 정의구현사제단 "4월 선언"보도로 양홍 신부 연행, 일주간 조사, 주보 압수.

- 5월 28일
▶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들께"- 김지하로부터의 편지-



함세웅 신부님과의 대화

[함세웅 신부님]

'함세웅 신부님과의 대화' (1978년 2월 19일 주보)

- 6월 11일
▶ "오늘의 한국 언론인 여러분에게"「정평」선언서 전재

- 6월 18일
▶ 장위신협을 장위성당신협으로

- 7월 5일
▶ 전주 교구 기도회 박종상 신부 구타 유기 사건 보도
- 7월 16일
▶ 제헌절에 드리는 기도

- 7월 23일
▶ "전주 교구의 통곡" (전주 교구 사제단 단식 취지문) 보도

성북문화 제9호.indb 13 2022-02-18 오전 10:27:30

- 7월 30일
▶ 스스로 노동하시는 주님을 따라

- 8월 6일
▶ 나는 왜 성당에 다니나
▶ 장위동 JOC회보 꿈나무 발간 소식

- 8월 13일
▶ 참다운 해방과 민족해방
▶ 모든 교우들의 주보가 되기를
"저는 본당의 주보를 아끼며 늘 자랑스럽게 여겨오고 있는 청년입니다. 제가 주보를 아끼는 만큼 주보에 대한 욕심 또한 커서 몇 가지 불만족스러운 점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좁은 소견임을 알면서도 이렇게 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교회라는 단체의 발행물치고는 신심계발을 위한 글이 너무 부족한 듯합니다. (중략) 그간 주보는 기회 있을 때마다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도 중요한 주일학교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기사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일학교가 아직도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중략) 저의 경솔한 판단이겠습니다만 주보가, 많은 분들이 정성을 들여 만들고 있는 주보가 본당의 교우들의 무관심 속에서 교우들과 점차 유리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이 미카엘 드림"

- 8월 27일
▶ 가톨릭농민회 공판 방청기

- 9월 10일
▶ 교리실 증축
▶ 장위성당신협 현황

- 9월 24일
▶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 관련 송기숙 교수 최후진술 발췌 요약

- 11월 12일
▶ 주보에 대해 문공부 "주보발간중지 공문 시달", "문공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장(양홍 신부)"발표. 서울대교구와 각 교구장에 주보 발간 중지사태에 대한 본당 공문 발송

성북문화 제9호.indb 14 2022-02-18 오전 10:27:30

- 11월 19일
▶ 문공부 장관에게 보내는 건의
"1. 교회주보 발행을 일반언론으로 간주하여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신성불가침의 종교자유를 탄압하는 명백한 처사라고 사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주보는 신앙고백 및 복음선포 그리고 강론의 연장이며 이는 신문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처사는 일제 식민지 통치 하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 1978년 11월 5일 한국천주교 전국평신도협의회"

- 1979년 12월 30일(제518호)
▶ 좌절과 허무의 극복
"상이한 두 가지의 경향이 빗겨 흘러가던 70년대의 후반기 우리의 주보는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일간지의 표면에는 수출고의 통계와 국민소득의 상승 그리고 '한국적' 표현들이 화려하게 실리고 있었지만, 이에 비례하여 많은 사람들은 허무와 좌절을 짓씹으며 이를 외면하고 있었다.
허무와 좌절은 또다른 고통을 안겨 주었지만, 우리는 소망의 은혜를 베푸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좌절과 허무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진리의 하느님은 우리에게 주보를 통해서 조그마한 목소리로나마 역사의 진실과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 증언할 기회를 부여해 주셨다. 우리의 증언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였지만 그 고통은 결코 헛된 것은 아니며, 위로의 하느님은 어려움에 처해 있던 형제들과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었다.
한때 새로운 희망의 서광이 비쳐지기도 하였고 여기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도 한다. 그러나 소망의 은혜를 베푸신 하느님은 언제나 어떠한 경우에나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어 주시리라.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며 80년대를 맞이하면서 교구주보와 통합하는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으련다."

나가며

덧붙여 이야기하면 그동안 서술된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사에 한국 천주교와 정의구현사제단이 점하는 비중은 상당했다.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해 지학순, 윤공희, 조비오, 함세웅, 김승훈, 문정현과 등과 같은 사제들은 불의를 저지르는 독재정권을 비판하고 하느님의 공의, 곧 사회 정의를 회복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오늘날 이룩한 민주화에 이들 천주교 사제들의 활동이 기여한 바가 실로 큼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제들의 활동이 개별 성당의 일반 신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는 별로 주목된 바가 없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에도 신자들 가운데는 정치와 사회 현실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데 주보는 그런 신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였다. 주보에는 주보의 내용에 별다른 관심이 없거나 기사나 논설이 너무 어렵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실려 있다. 이 때문에 1970년대 민주화운동의 흐름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았던 생활인들 사이의 미묘한 갈등 같은 것이 주보 기사의 행간에서 더러 느껴진다. 그 행간의 분위기를 좀 더 자세하게 시대적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을 때 한국 현대사를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성북문화 제9호.indb 15 2022-02-18 오전 10:27:30

성북구의 사찰문화재를 찾아서

글 : 박수진(성북문화원 부장)

성북구는 산이 많다. 성북동은 북악산 줄기, 정릉동은 북한산 줄기와 닿아 있다.
삼선동과 보문동은 낙산 자락 아래 자리 잡고 있고,
돈암동, 종암동, 안암동은 개운산이 중심이 된다.
석관동과 월곡동 역시 각각 천장산과 월곡산에 기대고 있다.
대부분의 행정동이 산에 의지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 산이 좋았는지,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산에 사찰을 짓고 소원을 빌었다.
사찰은 종교적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이다.
오랜 기간 사람들이 살았던, 그리고 소원을 빌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개운산 자락의 두 사찰 - 보타사와 개운사

가장 먼저 갈 곳은 개운산 자락에 위치한 보타사와 개운사이다. 성북구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 유물 가운데 하나가 남아 있는 곳은 보타사이다. 6호선 안암역에서 내려 2번 출구로 나와 약 280m 직진을 하면 개운사가 나온다. 그리고 보타사로 안내하는 이정표를 따라 오른쪽 길로 약 200m 정도 걸으면 서울에서 갑자기 벗어난 듯한 산속이 나온다. 그 산속의 원래 풍경처럼 있는 사찰이 바로 보타사이다.

보타사의 역사 자체는 그리 깊지 않다. 보타사는 아까 잠시 등장한(그리고 다음에 가볼) 개운사의 암자 칠성암이 있던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개운사가 조선 초기부터 있었다고 하니 칠성암은 그 이후에 생긴 것이겠지만, 이곳에 있는 마애불만은 고려시대의 것으로 개운사의 역사보다 오래된 것이다.

마애불(磨崖佛)은 말 그래도 벼랑(崖)을 깎아(磨) 만든 불상(佛)이다. 보타사의 마애불을 보면 커다란 바위의 면을 깎아 불상을 만들었다. 위는 비를 막을 수 있게 바위가 튀어 나와 있으며, 그 아래로 불상이 조성되어 있다. 이 불상의 정식 명칭은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이다. 보살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으로 언제든 부처가 될 수 있지만 중생과 함께 열반에 이르기 위해 남아 있는 존재이다. 부처와 보살은 여러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머리에 쓴 보관(寶冠)과 옷이다. 주로 보살들은 보관

성북문화 제9호.indb 16 2022-02-18 오전 10:27:30



도심 속, 산사(山寺) 보타사의 풍경



돌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보살상의 모습, 사진출처 : 성북마을아카이브

성북문화 제9호.indb 17 2022-02-18 오전 10:27:30

을 쓰고 차림새도 화려하다. 이곳 보타사의 마애불은 옷차림이 수수하여 마치 부처로 보이지만, 보관을 쓰고 있어 보살인 것으로 추정해 왔다. 그런데 이 불상을 불교 세계관의 중심 수미산 위의 도리천(忉利天)에 머물며 4천왕을 관장하는 제석천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불상 왼쪽 아래 새겨진 명문, 그리고 고려시대 남경인 지금의 서울의 수호신이 제석천이었다는 것이 근거이다. 만약 이 주장이 맞다면, 우리는 보타사에서 서울의 수호신을 만나는 것이다.

보살은 화려한 보관, 오똑한 콧날과 초승달 모양의 눈썹, 가느다란 눈과 뚜렷한 입술 등 이목구비가 두렷한 얼굴을 갖고 있으며, 가부좌하고 앉아 있는 몸통을 천의(天衣)가 감싸고 있는데, 강한 화강암에 조각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옷의 흘러내림이 훌륭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거의 700여 년의 작품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뚜렷하다. 개운산 자락의 숲에서 자연스러운 수 백 년 전의 불상을 마주하고 있으면, 불교라는 종교를 믿지 않아도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타사의 마애보살좌상은 2014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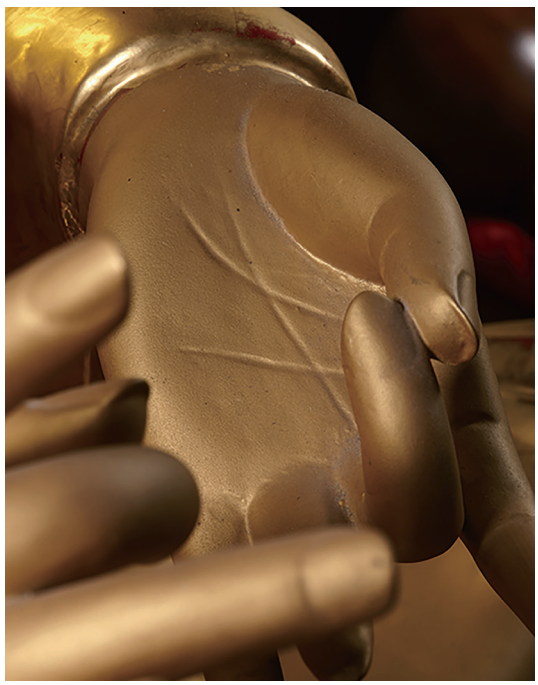
보타사의 또 하나의 유물은 불상이다. 역시 보살인데, 이 보살은 금동으로 만들어졌고 앉아 있어서 정식 명칭이 보타사 금동보살좌상이다. 15세기 말, 16세기 초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니 적어도 300년의 세월이 흐른 작품이다. 대좌 위에 걸터앉은 이 보살은 한 쪽 다리는 대좌 위에 걸치고, 한쪽 다리는 대좌 아래에 두고 있다. 이런 모양을 유희좌(遊戱座)라고 부른다. 머리에는 보관을 쓰고 초승달 모양의 눈썹과 가느다란 눈을 가진 모습은 마애보살의 그것과 같다. 수염도 살짝 그려 놓았는데, 이 얼굴을 보면 조선시대 초기 사람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몸에는 화려한 장신구를 걸치고 있으며 한쪽 손에는 병을 들고 있다(옆의 사진을 보면 이해가 편하다). 불상의 모양과 규모로 봐서는 왕실이나 지배층에서 소원을 빌며 조성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오래된 세월, 섬세한 만듦새, 희소성 때문에 보타사의 금동보살좌상 역시 2014년 마애보살상과 함께 보물로 지정되었다.



보타사 금동보살좌상, 사진출처 : 문화재청

보타사가 산 속에 위치했다면, 개운사는 도시 속의 사찰 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그 역사는 짧지 않다. 많은 사찰들이 그렇듯 개운사를 세운 사람은 무학대사라고 한다. 조선의 태조 이성계와 인연이 깊은 그는, 성리학의 나라 조선의 처음이자 마지막 국사(國師, 국가가 인정하는 최고의 스님)이기도 하다. 창건할 때 이름은 영도사(永導寺)였다고 한다. 본래의 위치는 현

성북문화 제9호.indb 18 2022-02-18 오전 10:27:31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전명과 손금, 사진출처 : 문화재청

재 고려대학교 이공대학 자리였는데, 현재의 위치로 옮긴 시기와 연유는 분명하지 않다. 정조의 후궁이자 홍국영의 누이였던 원빈 홍씨가 죽자 원래의 영도사 자리에 묘를 조성하고 명인원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고 전하지만, 그 전 임금인 영조 대에 옮겼다는 기록도 있기 때문이다. 이름을 바꾼 시기와 이유는 더욱 명확하지 않다.

그래도 개운사에는 역사가 깊은 문화재가 많다. 가장 오래된 것은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다. 이름을 들으면 이제 감이 올 것이다. 나무로 만든 아미타여래가 앉아 있는 불상이라는 뜻이다. 아미타불은 무량수불로도 불리며 서방의 극락정토를 관장하는 부처이다. 개운사의 이 불상은 1274년에 중수, 즉 수리한 기록이 남아 있어 13세기 초반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니 성북구의 문화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본래 만들어진 장소는 충남 아산의 축봉사라는 사찰이었다. 어떤 연유로 이곳에 왔는지는 알 수 없다.

오래된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지만, 이 불상은 잘 만들기도 했다. 얼굴부터 몸까지의 표면은 매끈하게 다듬어졌으며, 눈과 코, 콧등과 턱선까지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다. 손에는 손금이 선명하며 손톱까지 세밀하게 묘사되었다. 가부좌한 다리에 흘러내린 옷의 모양은 섬세하고 아름답다. 그 자체로 걸작이다. 여기에 이 불상에 대한 발원문까지 남아 있으니 이 불상의 가치는 설명할 것 없이 훌륭하다. 서양의 여러 조각들을 보고 감탄하면서도 우리 조각에 감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보여주고 싶은 불상이다. 이런 이유로 개운사의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2010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성북문화 제9호.indb 19 2022-02-18 오전 10:27:31

개운사에는 이 밖에도 감로도(甘露圖), 신중도(神衆圖), 팔상도(八相圖),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 등이 서울시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 작품들은 모두 19세기 말엽에 제작된 불화들이다. 감로도는 아귀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신중도는 불교의 여러 신들을 그려 놓은 것이다. 팔상도는 부처님의 일생을 그린 그림이고, 지장시왕도는 명부(冥府)를 관장하는 지장보살과 심판관인 시왕을 그린 것이다.

이 그림들을 모두 보면 좋겠지만 지면상 이중 개운사에서는 감로도를 설명해보려 한다. 개운사 감로도는 1883년 궁중의 상궁 30여 명이 시주하여 제작된 것으로 대허 체훈(大虛 體訓)과 천기(天機), 수일(守一), 태삼(台三) 등이 그림을 그렸다. 가장 위에는 7명의 부처가 있고, 그 밑 세 개의 기둥에는 '나무화신석가모니불(南無化身釋迦牟尼佛)', '나무법신비로자나불(南無法身毘盧舍那佛)', '나무보신노사나불(南無報身盧舍那佛)'이라고 적혀진 깃발(번, 幡)이 늘어서 있다. 각 번의 사이에는 주상전하, 왕비전하, 세자전하, 시방삼세 등 네 개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그림의 한 가운데에는 커다란 아귀가 그려져 있다. 이런 형태의 감로도는 당시 서울·경기 지역에서 유행하던 것이라고 하는데, 모신 위패의 주인공들에게서 이 발원자들이 상궁들임을, 그리고 이 시대가 왕조 시대임을 다시 확인 할 수 있다.

이런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개운사는 이야기가 많다. 조선후기~일제강점기 대표적인 학승 가운데 한 명인 박한영(법명 영호映鎬, 시호詩號 석전石顚)은 이곳 개운사에서 머물며 서정주, 이병기,



개운사 감로도, 사진출처 : 성북마을아카이브

성북문화 제9호.indb 20 2022-02-18 오전 10:27:32

정인보, 최남선, 이광수, 홍명희, 조지훈, 신석정 등 불교계뿐 아니라 문화계에서도 많은 제자를 키워 냈다. 1981년에는 개운사에 중앙승가대학이 있기도 했으니 그야말로 근·현대 불교교육의 중심지이기도 했던 곳이다. 이처럼 안암동은 도심한가운데에서도 조금만 걸으면 고려시대부터 근현대의 다양한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북한산 자락의 보물 - 흥천사와 경국사

한양의 주산은 북악이지만, 지금 서울의 주산은 누가 뭐라 해도 북한산이다. 국립공원이기도 한 북한산은 대도시에 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자락이 넓고, 골이 깊다. 그리고 그 한 줄기는 정릉동과 돈암동까지 뻗어 내려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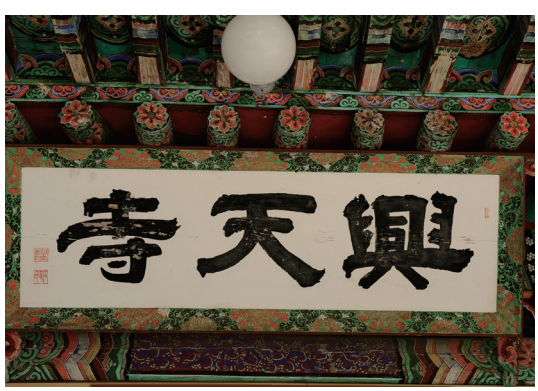
태조의 계비(繼妃, 두 번째 부인), 신덕왕후의 능인 정릉은 바로 이 북한산의 끝자락에 있다. 본래 현재 덕수궁에 있던 것이 태종에 의해 옮겨온 자리지만, 현재 정릉은 아늑하고 조용한 곳에 위치해 있다. 정릉의 원찰(願刹, 명복을 비는 사찰)인 흥천사도 어느 순간 이리로 왔다. 본래는 덕수궁 옆, 현재 서울시의회 건물 자리에 있었다. 정릉이 현재의 위치로 옮겨 온 이후에도 흥천사는 왕실 사찰로 살아남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선에서 성리학의 자리는 굳건해졌고, 불교는 설 땅을 잃어 갔다. 한양 한 복판에 있는 흥천사 역시 시대를 거스를 수 없었다. 점차 흥천사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었고, 연산군 대의 화재로 완전히 소실되고 만다.

흥천사는 19세기에 들어 신흥사(新興寺)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한다. 새로운 흥천사라는 뜻이었을까? 이 신흥사의 중건 기록은 비교적 자세하게 남아있다. 헌종12년(1846년), 계장(啓壯)스님이 칠성각을 만들었고, 헌종 15년(1849년)에는 성혜(性慧)스님이 적조암(寂照庵)을 만들었다. 철종 4년(1853년)에는 계장스님이 극락보전을, 같은 왕 6년(1855년)에는 순기(舜祺)스님이 명부전을 만드는 등의 중창이 행하여졌다.

흥천사가 원래의 이름을 되찾고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은 고종 2년(1865년)의 일이다. 흥선대원



흥천사 전경



대원군이 직접 써 내려준 '흥천사' 현판

성북문화 제9호.indb 21 2022-02-18 오전 10:27:34



흥천사 극락보전의 모습. 한눈에 보아도 화려하다. 사진출처 : 성북마을아카이브

군은 직접 각도에서 돈을 걷어 요사(寮舍)를 증축하고, 낙성을 하면서 직접 홍천사라는 편액을 써서 내려준다. 이름을 찾은 것이다. 이 요사가 지금도 홍천사에 가면 가장 앞에 있는 건물 대방(大房)이다. 대방은 승려들의 수행 공간, 부엌, 염불공간이 모두 합쳐진 독특한 건물이다. 조선 후기, 여러 건물을 지을 수 없어 하나의 건물에 여러 기능을 함께 넣은 건물들이 한양을 중심으로 만들어 졌는데, 홍천사의 대방도 그런 건물 가운데 하나이다. 현재도 홍천사 대방에는 대원군이 써준 현판이 걸려 있다.

대방과 함께 주목되는 건물은 극락보전이다. 철종 4년(1853년)에 만들어진 이 건물은 조선 후기의 건축양식을 보여준다. 정면과 측면이 각각 3칸(각각 기둥 네 개씩)인 9칸 자리 건물이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지붕과 기둥을 이어주면서 장식의 역할도 함께 하는 공포(栱包)가 화려하게 놓여 있는 다포(多包) 양식이다. 문에는 화려한 꽃무늬가 장식되어 있는데, 이러한 특징 때문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극락보전보다 더 주목되는 것이 있다. 바로 극락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금동천수보살관음상이다. 42개의 손을 가진 천수관음상은 - 원래 천수관음은 손이 천 개여야 맞긴 하지만 천 개를 다 만드는 경우는 없다 - 그 자체로도 매우 희귀하다. 학자들은 만들어진 모습을 보아 고려 말~조선 초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개운사의 아미타여래처럼 언제 어떤 연유로 왔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19세기에 이곳에 대원군 등에 의해 중창되면서 옮겨온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성북문화 제9호.indb 22 2022-02-18 오전 10:27:35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 사진출처 : 성북마을아카이브

이 관음보살은 중생의 모든 것을 보고 도와주는 존재인데, 그래서 천 개의 팔과 눈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천수관음은 그것을 형상화 한 것이다. 흥천사 천수관음에서 눈에 띄는 것은 - 물론 다른 것도 다 눈에 띈다 - 각각 다른 모양을 하면서도, 정교하게 만들어진 42개 손과, 머리에 쓴 화려한 보관이다. 이것을 청동으로 제작했으니 당시의 솜씨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흥천사의 천수관음은 2016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쉽게 볼 수는 없지만 기회가 되면 꼭 봐야할 것이 있다. 흥천사의 괘불이다. 흥천사비로자나삼신괘불도라고 불리는 이 그림은 금어(金魚)·화담 신선(華潭 愼善) 등 17인의 화승이 1832년(순조 32)에 제작한 불화(佛畵)이다. 특히 신선은 상겸, 민관, 연홍스님과 서울·경기지역 화풍을 계승한 19세기 '경성화파'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 불화는 정조의 딸인 숙선옹주와 부마, 순조의 장인 김조순 등 종친이 대거 시주에 참여하여 순조와 순조비, 효명세자의 빈인 빈궁(후에 조대비) 등의 축원을 기원한 왕실 발원 불화이기도 하다.[1] 정확한 필치와 밝고 선명한 채색, 섬세한 문양이 격조 있는 화풍을 선보여 예술적 가치가 상당하며, 복장물과 괘불함을 갖추고 화기(畵記)까지 남아있어 2021년 11월 현재 보물 지정이 예고되어 있다.

이 밖에도 흥천사에는 명부전, 목조여래좌상 2구, 명부전 석조지상삼존상 및 시왕상, 목조관음보살삼존상 및 복장유물, 아미타불도, 지장시왕도, 흥천사대방광원각수다리요의경판(60판), 현황도, 약사불도, 극락보전 극락구품도, 극락보전 도량신도, 극락보전 신중도, 천룡도, 만세루 아미타불회도, 만세루 신중도, 만세루 제석천도, 도량장엄번, 조왕도, 시왕도, 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등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및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서울 한복판 사찰에서 이렇게 다양한 문화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행운이다.

흥천사에서 나와 10분정도 걸어 내려가면 '돈암2동주민센터입구.흥천사' 정류장이 나온다. 그곳에서 162번 버스를 타고 15분 정도를 가면 '정릉4동주민센터.경국사' 정류장이 나온다. 경국사이다. 경국사는 정말 북한산 초입에 위치한다. 바로 옆에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이 위치하고, 조금 더 올라가면 북한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나오고 본격적인 북한산 탐방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역사도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창립은 1325년(충숙왕 12) 율사 정자(淨

1 흥천사 홈페이지 '흥천사비로자나삼신괘불도 및 괘불함' 항목

성북문화 제9호.indb 23 2022-02-18 오전 10:27:35



흥천사의 비로자나삼신괘불도(위)와 괘불함(아래) 사진출처 : 성북마을아카이브

慈)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시의 이름은 청암사(靑巖寺)였다. 이후 공민왕 대까지도 여러 고승들이 머물며 사세를 크게 떨쳤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억불정책으로 인해 한 때 쇠락하였지만, 불교를 중시했던 문정왕후의 집권으로 16세기 중반 다시 중흥을 맞이했다. 이때 부처님의 가호로 나라에 경사스러운 일이 항상 있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경국사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이후에 여러 스님들의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국사는 완전히 서울을 잊게 하는 풍경을 가졌다. 버스에서 내려 정릉천을 살포시 건너면 일주문이 나온다. 일주문부터는 이미 산속 풍경이 펼쳐진다. 피안(彼岸)의 세계로 벌써 접어든 기분이다. 왼쪽으로 크게 도는 길을 들어가면 앞으로 커다란 건물이 보인다. 경국사 관음전이다. 이 관음전은 흥천사의 대방과 비슷한 구조이며, 역할 역시 비슷하다. 다만 모시고 있는 불상이 관음보살이기 때문에 관음전으로 불린다.

경국사의 관음보살은 1703년(숙종 29) 전라남도 영암 월출산 도갑사에서 청신거사 오신명(吳信明)이 발원하여 조성되어 도갑사 견성암에 봉안되었던 것이다. 불상 내부에 있던 발원문에 의하면

성북문화 제9호.indb 24 2022-02-18 오전 10:27:37

17세기 말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조각승 색난(色難)이 수화승(首畵僧)으로, 순경(順瓊), 행원(幸垣), 일기(一機) 등과 함께 조성한 것인데 연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조선 후기 불상 연구의 기준작 중 하나로 여겨진다.

몸에 비해 얼굴이 크게 조형되었는데, 보살이라는 것을 보여주듯 머리에는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다. 가부좌를 하고 단정하게 앉아 있으며, 왼손에는 감로수 병을 들고 있다. 감로수 병은 질병에 시달리는 모든 중생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들어 있는 것으로 주로 약사여래가 들고 있지만 간혹 이렇게 관음보살이 들고 있기도 하다. 홍천사 천수관음에서 보듯, 중생의 모든 일을 돌보아주는 관음보살에 대한 신앙은 조선 시대에 크게 유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국사의 목조관음보살은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경국사 목조관음보살상, 사진출처 : 문화재청

관음전을 보고 뒤편으로 가면 극락보전이 있다. 서방극락정토를 관장하는 아미타여래를 모신 곳이다. 아미타불은 헤아릴 수 없는 광명(무량광無量光)과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을 가졌다는(무량수無量壽) 뜻을 가진 산스크리트어 아미타유스(Amitayus)의 음을 따온 것이다. 그래서 아미타불이 있는 전각은 서방극락정토를 뜻하는 극락전(혹은 극락보전), 혹은 무량수전, 미타전 등으로 불린다. 아미타불 역시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남아 있는 보살 가운데 하나이다. 아무래도 '극락'을 관장하다보니 역시 대중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극락전 안에는 특별한 아미타불이 있다. 중앙에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좌우에 앉아 있는데(협시挾侍), 특이한 것은 뒤편의 광배를 표현한 목각 후불탱이다. 탱화(幀畵)는 주로 비단이나 천에 그려 뒤에 거는 그림을 의미한다. 이 탱화가 부처님의 뒤에 있으면 부처님 뒤에 있는 탱화라고 해서 후불탱화라고 한다. 종종 벽화의 형태로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이 탱(幀)이 조각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경국사의 목조 후불탱도 이 중 하나이다.

후불탱의 가운데에는 부처가 앉아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불꽃무늬가 양옆과 위쪽으로 뻗어 있다. 본존 좌우에 아미타 8대보살이 있고, 그 밑 좌우에 사천왕 중 증장천과 지국천이 있다. 8대보살은 지장보살을 제외하고 모두 머리에 관(冠)을 쓰고 있으며, 두꺼운 옷을 입고 연꽃을 든 채 활짝 핀

성북문화 제9호.indb 25 2022-02-18 오전 10:27:37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세부), 사진출처 : 문화재청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사진출처 : 문화재청

연꽃 위에 서 있다. 본존과 같은 높이에 보살이 서 있고 바깥 좌우에는 나한상이 1구씩 서 있다.[2] 이는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니 첨부한 사진을 보아야 한다. 이 화려한 목각상은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런 문화재의 화려함 말고도 경국사를 볼 이유는 많다. 경국사 뒤로 뻗어 북한산까지 쉼 없이 이어지는 줄기는 깊어서 그 끝을 알 수 없을 것 같으며, 한때 청암사라고 불렸던 것처럼 경국사 앞을 지나는 정릉천의 물은 맑게 하얀 바위를 흘러간다. 그 어느 곳을 둘러봐도 속세를 떠난 듯한 풍경이 펼쳐진다. 그래서인지 경국사는 현재 템플스테이를 '주력상품(?)'으로 내세우고 있다. 서울 속 피안의 세계는 그만큼 매력이 있는 것이다.

사찰은 종교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역사의 장소이기도 하다. 오래전 사람들이 만들었던 작품을 감상할 수 있고, 그 작품을 통해 그들의 모습을 짐작할 수도 있다. 어디 그 뿐인가. 거기에 담겨 있는 오래전 사람들의 바람을 통해 그들의 생각과 염원을 엿볼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찰 여행은 종교 여행이기보다 역사 여행이다. 성북구의 사찰을 통해 고려로, 조선으로 그리고 근대의 어떤 시점으로 떠나보자.

---

2 문화유산채널 중 '서울 경국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보물 제748호)' 편 참조

성북문화 제9호.indb 26 2022-02-18 오전 10:27:38

성북구의 가장 오래된 교회,
돈암교회의 역사와 사람들

글 : 백외준(성북문화원 연구과장)

성북구 개신교 신앙의 역사는 1908년 10월 미아리고개 근처에서 설립한 미아리교회(현 기독교대한감리회 돈암교회, 성북구 아리랑로4길 45)로부터 시작한다.

동대문감리교회의 작은 기도처로 시작해 교인들의 가정집을 돌며 예배를 드렸던 돈암교회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대도시 서울의 팽창이라는 격변 속에서도 지역 내 믿음의 안식처로서 시대적 소명을 다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성북구 개신교 교회의 맏형 격인 돈암교회의 자취는 오늘날 성북 지역 교회들과 교인들의 믿음 생활의 현주소를 되비쳐 볼 수 있는 하나의 거울이 된다. 이에 1988년 발간된『돈암교회 80년사』(기독교대한감리회돈암교회, 1988) 를 참고하여 돈암교회의 역사를 간략히 소개한다.

미아리(돈암)교회가 세워질 무렵은 전국적으로 개신교계의 대부흥운동이 한창이었다. 1903년 원산의 미국남감리교회 선교사들로부터 시작되어 미국인 선교사들과 한국인 목사 길선주(吉善宙) 등이 주도한 대부흥운동은 개성, 서울, 제물포, 평양에서 연합부흥회를 열면서 1907년에 절정을 이루었다. 이로 인해 서울과 평양과 같은 도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개신교 교인과 교회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시기 선교사들과 한국인 목사들이 인도한 열렬한 분위기의 부흥집회는 을사늑약(1905)과 한일신협약(1907)으로 암울한 처지에 있던 한국인들에게 큰 신앙적 감화를 주며 전도운동과 지역 교회의 설립을 촉발시켰다. 이러한 흐름 속에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는 지역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감리교 서울 조직도 점점 늘어나는 교인들을 위하여 도성 안팎에 새로운 교회, 지교회, 기도처를 설립하였다. 1905년 왕십리교회, 1907년 용두동교회와 삼청교회를 설립하였고 1908년 가을에는 번리(樊里), 손가정(정릉), 미아리(돈암), 소귀[牛耳]교회를 설립하였다. 당시 감리교 동대문구역 순회 전도를 담당했던 벙커(Bunker) 선교사의 한글 보고문은 동대문 밖 동리들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 대개 동대문 안 예배당은 작년 이후 더욱 진취하여 신자는 많아지고 회당은 좁아서 매주일에 예배를 3차에 나눠 보며, 학교 형편도 학도는 흥왕하고 집은 좁아서 용접할 수 없으며 작년에는 2 동리만 믿더니 지금은 116동리가 믿은 즉 김우권 목사 1인으로만 감당키 어려운즉 전도인 1인을 더 두어 도와주게 하심을 바라며 왕십리, 용머리[용두동], 손가정[정릉동], 벌리[번동], 소귀[우이동]의 각처 신자가 합

성북문화 제9호.indb 27 2022-02-18 오전 10:27:38

841인이며……

미아리(돈암)교회 초대 담임 교역자는 신영식 전도사였으며 교인으로는 원입인 10명, 학습인 5명, 장년 세례인 4명 등 모두 19명의 교인을 중심으로 모였다. 그러나 미아리(돈암)교회는 동대문교회의 지교회로 설립되었으므로 교인들은 1910년경까지 주일 대예배는 동대문교회에 참석하였고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기타 기도회를 열며 교회를 육성하였다. 처음부터 예배당이 갖추어진 것은 아니어서 각 교인들의 집을 순회하며 모임을 가지다가 1909년 교회당 설립 보조비를 지원 받아 미아리에 초가 1동을 구입하여 예배 처소로 삼았다. 1911년 6월 신영식 전도사가 첫 담임 교역자로 임명받아 미아리(돈암)교회는 동대문구역 안에 있는 여러 지교회 중에서 첫 번째 독립된 교회가 되었다. 이때부터 미아리(돈암)교회는 주일예배를 따로 드리며 점점 교세를 늘려나갔다.

초기 미아리(돈암)교회 교인 중 대다수는 인근 지역의 농민과 그 가족들이었다. 그러다 1920년대 후반 경성의 인구가 늘어나고 덩달아 돈암 지역의 인구도 불어나면서 조금씩 교인 수가 늘게 되고 교인들의 직업도 구두수선공, 업자와 같이 도시에 생활의 근거를 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1]

1920년 10월 미아리(돈암)교회는 지교회로 승격된 지 8년 만에 지교회 3개처를 거느리고 장년 교인 130여 명으로 구성된 독립 구역인 미아리구역으로 승격되었다. 성북교회, 미아리교회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미아리(돈암)교회의 교인 수는 1934년까지 30여 명을 헤아렸다. 1925년이나 1926년 사이에 교회 명칭을 돈암교회로 바꾸고 1927년에는 야학(夜學)을 세워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고양군 숭인면 돈암리 미(美)감리교회 내에 있는 돈암야학교는 이화전문 교수 스토버(Myrta Stover) 여사의 열성으로 창립된 바 목하(目下) 생도는 30명에 달하며 오는 4월에는 60여 명가량을 수용한다는데 동교(同校) 교장은 이동욱(李東旭) 씨이며 교사는 이희성(李熙成), 박창성(朴昌成), 박창길(朴昌吉) 씨이라더라.[2]

1929년 6월에 부임한 이규갑(李奎甲) 목사는 공주영명학교 교감을 지내고 1919년 3.1운동에 참여하고 같은 해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임시정부 육성에 힘을 쓴 독립운동가이다. 그는 돈암교회에서 정민례(鄭民禮) 전도부인의 협조를 받으며 26가정, 95명의 교인(평균 장년 출석자 40명)을 거느린 교회로 발전시켰다.

1937년 5월에는 김창준(金昌俊) 목사가 부임하였다. 그는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1933년부터 감리교협성신학교 교수로 활동하다가 1936년 봄부터 성북교회의 담임목

1 교인들 중 최메례(崔袂禮)는 전도부인으로 1988년 출생하였으며 1908년 4월 데밍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유상열(劉尙烈)은 1888년 출생하였으며 양주군 노해면 쌍문리에서 농사를 지었다. 1913년 벙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부인 윤신애(尹信愛)는 1931년 입교하였다. 이정엽은 구두수선공으로 돈암리에서 길가는 나그네가 병들어 길가에 쓰러진 것을 보고 측은히 여겨 인력거를 불러태워 총독부병원으로 실어가고 입원치료를 부탁하고 입원치료비와 인력거비를 부담하느라고 이불을 전당포에 잡혔다는 일화가 전한다.

2 「돈암야학 성황」, 《조선일보》1927년 1월 28일자 1면.

성북문화 제9호.indb 28 2022-02-18 오전 10:27:38

사직을 겸하였다. 그때 성북교회는 삼선교에서 성북동 쪽으로 개천을 끼고 올라가다가 경신고등학교 뒤쪽으로 1000평 정도의 묘지와 잔디밭이 있는 개천가에 서 있는 작은 교회였고 교인 수는 수십 명에 불과했다. 당시 교인 명단에는 소설가 이태준(李泰俊)과 그의 아내 이순옥(李順玉), 소설가 방인근(方仁根), 시인 노자영(盧子泳)의 이름이 올라 있다.

이태준이 성북교회의 교인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 나사행(1914년생) 목사의 회고가 신뢰할 만하다. 나 목사는 신학생 시절 김창준 목사를 따라 성북교회와 돈암교회에 파송되어 교역을 도왔다. 당시 성북교회의 중심인물은 훗날 우석대학교부속병원(현 고려대학교부속병원의 전신)에서 소아과 교수를 지낸 김덕성(金德性) 교수였다. 이태준은 성북교회에서 200~300미터 올라간 아담한 초가집(현재 수연산방 자리)에 살고 있었는데 언젠가 그가 장티푸스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김덕성 교수가 헌신적으로 치료해 주어서 회생한 다음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1936년 김창준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 후 유아세례를 받은 아내 이순옥과 그 자녀들도 성북교회에 다녔다. 또한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조선공산당의 거물이었던 이강국(李康國)도 한때 성북교회에 출석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그런데 이 무렵 경성부의 행정구역 확장으로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 돈암리 일대가 경성부로 편입이 되었고 동시에 시구(市區)의 정리와 도로 확장으로 민간인의 많은 주택과 함께 초가 형식의 돈암



돈암야학 7회 졸업기념 사진

성북문화 제9호.indb 29 2022-02-18 오전 10:27:38

교회당도 헐리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과 교인들도 타지로 떠나는 경우가 많아 1920년대부터 운영하던 야학도 폐지되고 말았다. 이에 김창준 목사는 교인들과 힘을 합해 헐린 교회당의 재목으로 돈암정(敦岩町) 139-321호 25평 정도의 대지를 마련하여 16평 정도의 건물을 세운 후 지방 교역자회에서 100여 원, 지방회에서 150여 원의 보조를 얻어 안팎을 단장, 준공하였다. 1944년에는 일제의 강요로 성북교회가 돈암교회에 통합되었으나 교인 수는 크게 늘지 않은 채로 있다가 8.15해방을 맞이하였다.

해방 이후 돈암교회의 주목할 만한 교역자는 고명균(高明均) 목사이다. 그는 1948년 5월 10일부터 1954년 3월 22일까지 만 6년 동안 돈암교회에서 교역하였다. 부임 시 교인은 30명에 불과했고 그것도 여성과 학생이 대부분이었으나 6년 후 250명으로 불어났다. 고 목사가 교회를 부흥시켰던 방법은 심방(審訪)이었다. 그는 새벽기도가 끝나면 꼭 동네로 나가 몇 집씩 심방을 하고 돌아왔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불도 개주고 방도 쓸고 아이들도 봐주면서 집주인과 교회 이야기를 하고 아침상을 대접 받고 왔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그 집안 사정을 알게 되었고 그 길로 교회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교인 집을 방문할 때는 성경이나 찬송가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작업복에 장도리를 차고 돌아다녔다. 기와가 깨져서 비가 새는 집이면 지붕에 올라가서 고쳐 주고 어떤 때에는 깨진



1953년에 신축한 돈암교회당

성북문화 제9호.indb 30 2022-02-18 오전 10:27:39



1984년에 준공한 동선동의 돈암교회당(성북구 아리랑로4길 45)

솥도 걸어주었다. 이러한 고 목사의 부지런하고 소탈한 목회 심방 덕에 교회 문턱이 낮아져 교인 수가 크게 늘었다. 또한 교인들간의 교제가 깊어지면서 여선교회, 주일학교 등 교회 내 소조직이 강화되었고 설립 이래 처음으로 장로를 세워 독립된 교회로서의 틀을 갖추었다. 또한 한국전쟁 때 교회당이 폭격으로 파괴되자 내무부장관을 지낸 백성욱(白性郁)의 개인 불당을 임시로 빌려 이른 바 '절간예배'를 드리다가 1953년 현재 교회 터에 30평 규모의 석조 교회당을 세웠다. 지교회 개척에도 힘을 써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삼선교회, 미아리교회, 정릉교회, 안암교회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후 고명균 목사가 떠난 후에도 돈암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계속 성장하였으며 1980년 새 교회당을 신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담임목사는 2000년에 부임하여 사목하고 있는 제25대 현인호 목사이다.

한국전쟁 이후 돈암교회 교인 명부에는 소설『순애보』의 작가 박계주(朴啓周)와 그의 아내 김응

성북문화 제9호.indb 31 2022-02-18 오전 10:27:39

신(金應信)[3], 시인 신동엽의 장모이자 경제학자 인정식의 아내인 노미석(盧美石)[4]의 이름이 있다. 임의선(林宜善)[5]은 1943년 돈암동 전차종점 부근 영단주택으로 이사 오면서 입교한 소아과 의사로 1952년 장로가 되었다. 후일 세브란스병원장을 지내기도 한 그는 열과 성을 다하여 교회에 봉사하였고 1988년에는 돈암교회역사편찬위원장 일을 맡아 보았다.

돈암교회의 설립 후 성북 지역의 다른 곳에서도 교회가 설립되었다. 1919년 감리교 신설리교회(현 보문제일교회)가 1937년에 장로교 신암교회가 설립되었고 이후 삼선그리스도교회(1938), 장로교 정릉교회(1942), 장로교 영암교회(1945), 감리교 미아동교회(1946), 돈암동성결교회(1946, 현 본교회), 감리교 경동교회(1946), 장로교 미암교회(1948) 등이 성북 지역에 설립되어 선교활동을 폈다. 한국전쟁 이후 인구가 급증하면서 더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성장했다. 한 교회가 성장하면 거기서 교인들이 갈라져 나와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도 했고, 기성 교회가 새 교회 개척에 힘을 보태기도 하였다.

돈암교회도 그러하지만 주택이 밀집한 동네 한 가운데에 설립된 성북 지역 교회들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한 역할은 어느 종교 단체보다 컸다. 교회는 타향살이에 상처받고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모임 공간을 열어 주기도 했다. 그런 성북구의 오래된 교회의 예배당과 종탑 아래에는 교회와 교인들,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이야기들이 쌓여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단지 한 교회의 역사를 넘어서 성북 지역 생활사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성북 지역 교회 첨탑의 십자가들은 그 품고 있는 이야기들로 인해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를 지니고 있다.

---

3 『돈암교회 80년사』의 박계주와 김응신 부부 관련 글은 다음과 같다. "박계주는 『순애보』로 문단에 데뷔한 작가였다. 작가가 되기 전에 왜정 때 새예수교 전도사로 일해 보기도 했고 기독교 잡지의 주간도 했었다. 작가가 되기 전 춘원 이광수의 『사랑』을 구술대필했다고 한다. 김응신은 결혼하고 돈암교회에 나오면서 3남 1녀를 두었는데 현재는 막내가 불행하게 일찍 세상을 떠난 부모의 신앙을 지켜 돈암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 김응신 권사는 호수돈여고 졸업생그룹과 함께 오랫동안 봉사하다가 부군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돌아가시자 6개월 후에 뒤따라 돌아가셨다." (185쪽)

4 『돈암교회 80년사』의 노미석 권사 관련 글은 다음과 같다. "79년 3월에는 노미석 권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명랑하고 웃기 잘하는 믿음의 할머니가 사위 신동엽을 먼저 보내고 따님 인병선(印炳善)과 외손자 2남 1녀를 남겼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다. 노미석 권사의 기도가 언젠가 응답되기를 기다린다." (245쪽)

5 『돈암교회 80년사』의 임의선 장로 관련 글은 다음과 같다. "임의선 장로는 1919년 9월 29일 강원도 춘천읍에서 출생한 후 춘천고등보통학교와 서울 세브란스의전을 졸업한 후 모교의 조교수로 재직중인 1952년 12월 돈암교회 장로로 피택되고 1953년 지방회에서 장로의 직첩을 받았다. 1953년 미국에 건너가 하버드대학교 대학원과 펜실베니아대학교 대학원에서 소아과학을 전공하였다. 1956년 귀국하여 모교에 교수로 복직했다. 1959년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62년 재차 미국에 가서 병원행정을 연수하고 귀국하여 1963년 세브란스병원장, 1970년 연세암센터 소장을 역임한 후 1973년부터 임의선소아과의원을 개원했다. 1966년 한국기독의사 회장, 1967년 대한소아과학회장, 1968년 병원협회장, 1962~1984년까지 인천기독병원 이사, 이사장 및 학교법인 새빛학원 이사장, 1971년 국제기도원협회 서울캠프회장, 1972년 기독교대한감리회 평신도 대표로 미국감리교회 총회 및 1975년 W.C.C. 나이로비국제대회에 한국교회 대표로 참석했으며 1978년 돈암교회 건축위원장 등 의학계와 종교계에서 지도자로 활약하였다. 현재는 병원을 자제에게 인계한 후 1주일에 하루씩 진료를 하면서 교회사업에 여생을 보내고 있다." (199쪽) 임의선 장로는 1997년 10월 1일 별세하였는데 영결예배가 10월 3일 돈암교회에서 열렸다. (《중앙일보》1997년 10월 2일.)

성북문화 제9호.indb 32 2022-02-18 오전 10:27:39

성북의 마을제사
동제(洞祭)

글 : 김지훈(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1. 성북의 산신제

대부분의 마을은 기본적으로 여러 신령들을 좌정(坐定)시킴으로써 마을을 안정되게 하려고 노력한다. 이는 공동체 신앙인 동제(洞祭)로 표현되며, 이 행위는 특정 사회에서 오랜 역사적 흐름을 통하여 그 집단이 유지해왔던 삶의 원리와 특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서울은 공동체 신앙이 대부분 단절되었지만 2018년 보고에 의하면, 100여 개 정도의 마을 신앙이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현재 도시 재개발과 공동체의 해체가 가속화되면서 전승력이 약화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북구에서 6곳의 마을에서 동제가 전승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성북구의 동제를 조사한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의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아래와 같다.

①석관동 도당제 ②보문동 동망봉 산신제 ③성북동 북정마을 산신제 ④돈암동 산신제(전승 단절) ⑤종암동 북바위 산제사(전승 단절) ⑥정릉2동 대동 산신제 ⑦정릉3동 손가정 산신제(전승 단절) ⑧정릉3동 배바윗골 산신제 ⑨정릉4동 한산대동 산신제

이 중 8곳에서 산신제(山神祭)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마을주민이나 제의집단(祭儀集團)이 예전부터 산신제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글에서는 이미 확인된 용어를 사용하겠다. 성북구 산신제의 존재양상을 밝히는 작업은 쉽지 않다. 기존 조사보고서들의 내용이 소략할 뿐만 아니라, 산신제의 실행 시점이 일정하지 않다. 다시 말해, 민속지적 현재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제의의 변화 시점을 명확히 밝히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글은 공시적(共時的) 관점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분석보다는 대략적인 소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성북문화 제9호.indb 33 2022-02-18 오전 10:27:39

2. 지리와 환경

산신제는 마을의 주산(主山)에 마을 최고신인 산신을 모시고, 마을 입구에 여러 신들을 위함으로써, 마을은 사람만이 아니라 신령들도 함께 사는 공간이 된다. 마을신앙은 제의 공간과 환경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각 산신제의 마을과 환경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우선은 성북구의 전체 환경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다.

성북구는 서울의 북동부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서울시 중 비교적 새로운 구의 하나이다. 서쪽에는 북한산의 남장대(南藏臺)를 주봉으로 하여 북악터널을 지나 북악산(北岳山)에 이르는 비교적 험준한 능선으로 모래내(砂川)와 분수령을 이루면서 안암천과 정릉천이 구내를 관류한다. 동쪽에는 중랑천이 남류하며, 장위동 부근에는 도봉동에서 연속되는 넓은 충적지를 형성하고 있다. 중앙에는 천장산(天藏山)에서 고려대의 뒷산, 즉 개운산(開運山)에 이르는 구릉이 남아서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들 능선 사이를 정릉천이 남류한다. 성북구는 지형적으로 산지와 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산지는 주로 서부지역에 해당되며, 태백산맥 철원 부근에서 갈라져 남서쪽으로 향하는 광주(廣州)산맥의 일부이다. 이 광주산맥이 서울 부근에 달하면 그 높이가 낮아져서 500m 내외의 낮은 산지가 된다.

성북구의 산신제가 정릉지역에 집중된 것도 구 서쪽의 산지 지형과 연관성을 보인다. 서울에서 전승되는 동제가 한강지역[부군당(府君堂)]과 북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3. 명칭과 신격

산신은 단순한 자연신이나 마을에 처음 들어온 조상신으로, 또는 그 지역의 역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인물신으로 인식된다. 동제는 일반적으로 상·하당신으로 구성되는데 상당신은 마을 뒷산에 존재하는 막연한 인격을 지닌 자연적인 모습의 산신이다. 성북구의 산신제들은 상당신을 모셨던 잔존형태이거나, 막연히 산신을 모시기 때문에 산신제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석관동은 산신제가 아닌 도당제로 불리고 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도당(都堂)이 세워져 있다. 당집(도당)은 원래 천장산(天藏山)에 있었으나 의릉(懿陵)이 들어오자 주민들과 함께 옮겨 세웠다. 당집이 없으면 제단에서 제의를 지내고, 산신제라는 용어를 자연스레 사용한 것이다.

신격은 할머니신 혹은 토지신(土地神)으로 모시는 경우가 많다. 신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영험담은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석관동의 할머니신은 중화동 봉화산신(烽火山神)인 도당 할아버지와 관련되어 주민들에게 구전되고 있다. 즉, 중화동 봉화산신은 도당 할아버지이며 천장산신은 도당 할머니인데, 석관동에 위치한 도당은 할머니 신을 위한 것이다. 석관동 이외에 주목할 곳은 보문동의 동망봉 산신제이다. 이곳은 단종의 비 정순왕후(定順王后, 1440-1521)를 산신과 함께 모시고 있다. 동망봉은 정순왕후 송씨가 동쪽 영월을 바라보며 단종(端宗, 1441-1457)의 명복을 빌었던 곳이다. 그 뒤 이 지역에는 흉사가 잦았는데, 이때 중이 지나가다가 그 해결책으로 알려준 방법이 바로

성북문화 제9호.indb 34 2022-02-18 오전 10:27:39

오늘까지 이어지는 동망봉 산신제라는 것이다.

4. 제일과 장소



석관동 도당제 신체(神體)



보문동 동망봉 산신제 제관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 공간은 산과 마을입구이다. 주산에는 산신을 모시고 마을입구에는 거리신을 모시는 이중 구성이 기본 형태였다. 예컨대, 마을 입구에는 탑, 장승, 솟대, 선돌 등 여러 종류의 신들을 모시고 일정한 신앙 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마을입구의 신들은 여러 이유로 없어져서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서울·경기지역에 한정한다면, 마을입구가 불분명해졌거나 산신만을 모시게 되면서 자연스레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성북구의 산신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전통적 의미의 마을입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산신을 모시는 상당, 즉 제의장소가 일원화되어 있으며 이동과 변화가 많은 편이다. 산신당(山神堂)이라 하여 반드시 집의 형태를 갖춘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산신이 머물 수 있는 고산지대의 제단도 통칭되고 있다. 성북동 북정마을, 종암동 북바위, 정릉2동, 정릉3동 손가정과 배밭골, 정릉4동은 당집구조가 아닌 제단 형식이다. 석관동은 당집 형태이며 여러 차례 이전을 거쳐 지금의 석관파출소 맞은편에 있다. 보문동은 1956년에 건립된 것으로 밝혀진 당집이 재개발로 사라지고, 2017년에 20평 규모로 동망각을 복원했다. 제단이든, 당집이든 그곳이 종교적 성소(聖所)인 것은 변함없다. 이러한 성격은 일 년에 한두 번씩 치러지는 산신제 기간에 더욱 두드러진다.

산신에 대한 제의는 매년 정기적인 시간에 베풀어진다. 지역이나 마을에 따라서 제일(祭日)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음력 10월 상달을 중심으로 한 가을에는 한 해 농사의 감사함을 표하는 뜻의 산신제가 올려지고, 음력 정월 초에서 대보름에 이르는 기간에는 신년제(新年祭)의 성격이 농후한 거리제가 치러진다. 성북구 산신제는 모두 음력 10월 1일에 제의를 지낸다. 이는 경기도 지역의 대다수 마을의 동제 시기와 일치한다. 경기도 지역의 제일은 음력 9월 9일(중양절)과 음력 10월이 과반수이상 나타나는데, 서울·경기지역이 하나의 문화권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제의 시간은 경기도 지역에서는 해 질 무렵 산에 올라 밤 12시경에 지내거나 늦어도 새벽에는 제의를 마친다. 성

성북문화 제9호.indb 35 2022-02-18 오전 10:27:40

북구 산신제는 대부분 오후에 지내고 있으며, 과거 보고서를 보면 밤에 제를 지냈던 곳도 있다. 밤이나 새벽에 지내던 제의가 생활환경의 변화, 신앙의 공적 영역의 진입 등으로 인해서 낮으로 변경된 것이다.

5. 절차와 내용

성북구의 여러 산신제 중에서 2016년 '서울미래유산'으로 지정된 정릉3동 배밭골 산신제를 중심으로 제의과정을 살펴보겠다. 2008년 조사 당시, 배밭골은 충남 서산향교에서 제관을 맡다가 서울로 온 이○○ 씨가 축을 쓰고 제의 절차의 대부분을 지도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체계를 잡은 산신제 절차는 종묘대제 제례법을 기준으로 간소화한 것이며, 제관은 초헌관과 아헌관 그리고 축관의 세 명을 기본으로 한다. 제관은 세 명이며 제물을 운반하고 차리는 사람들까지 열 명 정도가 참여한다. 여자들은 제를 지낼 수 없지만 구경은 할 수 있다. 제를 진행한 뒤 독축과 소지를 올리면 제의는 끝난다. 참여한 사람들끼리 간단히 음복을 하고 산에서 내려온다. 이후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먹는다. 2018년에도 제의 순서 등이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다만 추렴이 없어지고 구청 지원금이 늘어났다.

전승이 중단된 돈암동 외에 다른 마을의 산신제의 절차도 배밭골과 거의 동일하다. 배밭골의 사례에서 잘 드러나듯이, 산신제는 유교식 제사를 기본으로 하여 임시로 선발된 남성 제관들이 진행하는 제의이다. 지역에 따라 전문 종교사제인 무당이 참여하여 마을굿 형식의 제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물론 유교식과 무속식이라는 표현은 그 용어가 지니고 있는 원래의 뜻을 정확히 반영한 것은 아니다. 유교식 제사란 제례(祭禮)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만을 부분적으로 차용한 것이다. 더욱이 마을신에 대한 제사에는 유교식이라 하더라도 무속식이 일부 섞여 있다. 예컨대 돼지나 소머리를 제상에 올린다거나 소지를 태워 소원을 산신에게 전하는 일은 유교와 관계없는 행위이다.



정릉3동 대동 산신제


정릉3동 배밭골 산신제 제의 모습

성북문화 제9호.indb 36 2022-02-18 오전 10:27:41

6. 마무리



보문동 지신밟기 행사

돈암동 산신제는 마을공동체 제의가 중단된 후 2000년대 초반까지 개인이 전승하였다. 그 후 재개발로 당집은 사라졌고 개인이 지내던 산신제마저 전승이 중단되었다. 반면 성북동 북정마을의 산신제는 전승이 단절되었던 것을 2013년에 다시 부활시킨 것이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다시 전승되고 있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현재 마을 주민들의 무병장수와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구하는 마을 축제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997년에 이미 3일 행사를 치루고, '제례보존위원회'가 결성되어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 보문동 동망봉 산신제는 최근 공동체신앙의 한 흐름을 보여준다.

산신각 복원, 제례봉행 퍼레이드, 지신밟기 행사, 정순왕후의 넋을 기리는 살풀이 공연, 경로행사 등은 지역민들의 참여와 구청의 지원 없이는 어려운 일들이다. 이는 도시화와 공동체가 해체되는 상황에서 여러 공동체신앙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기관의 경제적 지원 활동과 맞물려 있다. 기관의 경제적 지원이 전승단절 위기의 다양한 민속의 전승을 지속하게 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성북구의 산신제는 이와 같은 변화 속에 직면해 있다. 기관의 개입 또는 지원은 전승주체 스스로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보문동의 다양한 행사들은 소수 토박이들이 전승하는 동제가 아닌,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축제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유행한 코로나로 인해 산신제와 부대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성북의 산신제가 앞으로 어떻게 지속되고 변할지 꾸준한 관찰이 필요하다.

성북문화 제9호.indb 37 2022-02-18 오전 10:27:41

성북동 사랑나눔 연합바자회

글 : 노세진(성북문화원 문화기획팀)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시대지만,
종교에 대한 갈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이기적인 종교집단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나면서 갈등은 더 깊어졌다.
종교 갈등으로 이혼을 하고,
TV에 종교 대통합 현장이 그려질 때마다 놀라우면서도
신기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분명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1년에도 어려워하는 종교 대통합이 성북구에서는 2008년에 일어났다.



사랑나눔 연합바자회 개최를 위한 회의(출처 : 서울신문)
왼쪽부터 성북동성당 주임신부님, 길상사 주지스님, 덕수교회 목사님

성북문화 제9호.indb 38 2022-02-18 오전 10:27:42

덕수교회 손인웅 목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사랑나눔 연합바자회는 '종교는 다르지만, 상생과 화합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자'는 취지로 시작되었고, 길상사(불교), 덕수교회(기독교), 성북동성당(천주교) 3대 종교(신자가 많은 3개의 종교)가 참여했다.



제9회 성북동 사랑나눔 연합바자회 포스터

성북동 사랑나눔 연합바자회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번 개최되었으며 종교 대통합이라는 말이 어울리게 바자회는 화합과 공존의 장이 펼쳐졌다.

벼룩시장을 위해 모인 주민들, 안전을 위해 한쪽 차선을 차단한 교통경찰 그리고 질서를 지키는 시민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바자회를 즐겼다. 종교별 판매부스를 따로 두지 않고 공동으로 물품을 판매하며, 봉사활동을 자처한 신도들도 종교색이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했다.

바자회로 3억 원의 장학금이 모였고, 150명의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종교는 달라도 '사랑'이라는 공통된 마음을 이웃들에게 전했다.

매년 10월 개최되던 바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잠정 중단되었다. 지역 발전 및 지역 공동체 형성에 토대를 마련하던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다. 앞으로도 다름을 사랑으로 이해하는 행사들이 많아지길 소망한다.

성북문화 제9호.indb 39 2022-02-18 오전 10:27:42



이제 제법 쌀쌀해져 겨울임을 실감하게 하는 12월, 정릉의 청년문간식당에서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를 만났다.

청년문간의 활동만으로도 바쁠 것 같았는데 인기 TV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의 출연 이후 유명세를 타서 더 바빠졌는지 조금은 피곤해 보였다.

TV 출연 이후에는 많은 언론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이번 『성북문화』 9호에서는 종교인 이문수 신부의 모습과 종교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 묻고 싶었다. 청년문간 활동도 그 연장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 진행된 인터뷰였지만 다른 인터뷰에서는 찾기 힘들었던 종교인 이문수의 모습과 종교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성북문화 제9호.indb 40 2022-02-18 오전 10:27:44

성북 인물 초대석 1

“사람답게 살기 위한 가르침, 종교”

글라렛선교수도회 신부님

이문수 가브리엘

인터뷰 진행 : 박수진(성북문화원 부장)
인터뷰 정리 : 박이선(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성북문화 제9호.indb 41 2022-02-18 오전 10:27:45

Q. 가톨릭 집안에서 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어린 시절 신부님에게 종교란 어떤 의미였나요?

A. 그 때는 그냥 생활의 일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일이 되면 성당에 가는 그런 생활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성당에 다녔기 때문에 종교는 몸의 일부처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Q. 종교인이 되고자 마음먹었던 계기가 피정[1] 당시에 느꼈던 강렬한 경험이라고 들었는데 이 경험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A. 저도 신학교에 가서야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걸 뭐라고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었던 것 같은데, 쉽게 설명하면 하느님을 만난 거죠. 과거 천주교에서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성인, 성녀들이 탈혼이나 영혼의 합일 같은 체험들을 하시면서 그것을 기록으로 많이 남겨주셨어요. 제 경험을 그분들의 경험에 비견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이런 경험을 '하느님의 손길이 내 영혼을 건드리셨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는 영혼이 감당하기 힘든 굉장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당시 저는 완전한 행복으로 충만해진 상태였고요. 심지어 그 순간에는 '와,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당시 제가 비록 20대 초반이었지만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모든 기쁨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었고 완전히 충만해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복 그 자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복을 주신다.' 가 아니라 그분이 행복 그 자체라는 것을 인식한 것이죠. 그것을 누가 저한테 강요하거나 주입식으로 알려준 것도 아닌데 그런 충만함으로 가득 찼던 거죠. '아, 드디어 나는 참 행복을 발견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Q. 수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종교를 막론하고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일이 고비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수도자의 삶을 사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장 힘듭니다(웃음). 저는 잠이 많은 편이고, 또 아침잠도 많은 편이라서요. 사실 마음으로는 신부가 되어 수도원에 들어가겠다고 결심을 하고서도 '근데 내가 매일 새벽같이 잘 일어날 수 있을까? 평생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컸던 것 같습니다.

Q. 보통 몇 시에 일어나게 되시죠?

A. 사실 저희 글라렛 선교 수도회는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아요. 6시 경에 일어나죠. 기상 시간은 수도회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수녀님들은 더 일찍 4시 반쯤 일어나기도 하시죠. 신학생 때는 그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긴 했었어요. 지금은 6시쯤이나 늦으면 6시 반쯤 일어납니다. 저희 공동체

1 피정(避靜) :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성당이나 수도원 같은 곳에서 묵상이나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살피는 일.

성북문화 제9호.indb 42 2022-02-18 오전 10:27:45

는 기도 시간이 7시라서요.

>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장 힘듭니다.*

Q. 신부님이 소속되어 있으신 글라렛 선교 수도회는 19세기 중반 안토니오 마리아 글라렛 신부님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의 여러 수도회들 중 글라렛 선교 수도회에 들어가신 이유가 있나요?

A. 수녀님께서 글라렛 선교 수도회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알려진 수도회가 아니라 생소했는데, 소개를 해 주신 수녀님께서 저의 성향이랄까? 지향 같은 것을 고려해서 추천을 해 주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보통 수도회에 들어갈 때 많은 수도회들 중 한 곳을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느님이 불러주실 때, 또 거기에 내가 응답을 할 때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날 글라렛 선교 수도회로 하느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Q. 글라렛 선교 수도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타 수도회와 다른 점이 있나요?

A.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저희 수도회는 선교 카리스마가 강한 수도회입니다. 원래 이름은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의 아들들의 선교 수도회'입니다.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모님의 아들들이다.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선교를 제일 주된 카리스마로 삼고 있어요. 보통 가톨릭교회에서는 선교라고 하면 외방선교, 즉 내가 태어난 고국, 민족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서 선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저희 수도회가 처음 스페인에 생긴 이후 수많은 회원들이 세계 각지로 선교



청년문간을 그린 그림

성북문화 제9호.indb 43 2022-02-18 오전 10:27:46

를 갔죠. 그런데 선교를 하다 보면 기초적인 형태의 선교, 말 그대로 가톨릭 교리를 가르치면서 세례를 주고 신자를 만드는 방식만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지역에서 필요한 일을 한다는 정신으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수도회만 그런 것은 아니고, 봉쇄 수도원 같은 특별한 몇몇 수도회 말고는 가톨릭교회 안의 대부분의 수도회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Q. 글라렛 선교 수도회가 성북동에 자리 잡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A. 작은형제회 신부님들의 소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선교사 신부님 두 분이 1983년에 처음 한국에 오셔서 한국말을 배우셨는데, 정동에 프란치스코수도회(작은형제회) 본원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머무르며) 어학당을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성북초등학교 후문 쪽에 작은형제회 양성소가 있어요. 그러한 인연으로 성북동을 소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성북동은 혜화동에 있는 신학교와도 가까웠고요. 처음에 작은형제회 신부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Q. 청년문간은 수도회에서 먼저 사업 제안을 하고 이후 신부님께서 말아서 운영하시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회에서 청년문간과 같은 청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나 추진 과정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A. 저희 수도회는 스페인에서 시작되었지만 바티칸에서 인증을 받는 국제 수도회이기 때문에 총본부는 로마에 있습니다. 그리고 6년에 한 번 씩 각 지역의 대표자들이 모여 지난 6년간을 성찰하고



청년문간의 내부 모습

성북문화 제9호.indb 44 2022-02-18 오전 10:27:47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며, 하느님과 성령의 뜻은 무엇인지 식별하는 총회를 가져요. 회의는 한 달 정도 이어집니다. 2015년 총회가 끝나고 여러 가지 결의 사항이 발표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청년들을 위해 새로운 사도직을 찾아보자는 것이었어요. 아마 다른 종교들도 사정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젊은이들이 교회와 종교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니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 어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자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인천에 있는 한 수녀원에 방문을 했는데 그곳의 수녀님이 어떤 청년의 고독사 소식을 접하고 그것을 계기로 청년들을 위한 식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공감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수도회에 제안을 했고 우리 신부님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서 정식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총회에 대해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총회가 단지 회의라는 형식적 절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식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이에요. 총회를 통해 '우리들이 식별한 하느님의 뜻은 어떠한 것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합시다.' 라는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 중 하나가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일을 물색하는 것이 된 거죠. 하느님께서 청년들을 위해, 특히 저희(글라렛 선교 수도회)의 경우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갖기를 바라셨기에 저희들을 움직이신 것이죠.

Q. 굉장히 거대한 종교적 흐름 속에서 나온 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A.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 사업가들처럼 사업 아이템을 찾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되지도 않는 사업이고(웃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성찰하면서 계속 진지하게 식별하는 것입니다.

Q. 책『누구도 벼랑 끝에 서지 않도록』에서는 종교인과 사업가 사이의 모순에 대해서 인정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순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과제이기도 할 텐데 종교인으로서 청년문간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A. 미래에는 물론 이익도 많이 나면 좋겠죠. 뭔가를 쥐어짜서 이익을 낸다는 게 아니라요.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한 일이니까 그 과정에서 이 일이 잘 될 때 일하는 분들도 지속 가능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잘 되기를 바라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공감해주시고 후원을 해주셔서 그것을 청년 분들에게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저희는 크고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청년밥상문간이라는 식당이 여러 곳에 있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3호점을 대학로에다가 낼 생각이고 지금 장소를 물색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점점 더 저희에게 공감해주시고 이렇게 동참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난다면 그에 따라서 식당이 하나씩 늘어나게 될 것 같아요.

성북문화 제9호.indb 45 2022-02-18 오전 10:27:47

“총회를 통해 ‘우리들이 식별한 하느님의 뜻은 어떠한 것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합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 중 하나가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일을 물색하는 것이 된 거죠.

Q. 현대 사회에는 전근대 사회와는 달리 수많은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의 종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A. 현대인들, 특히 젊은이들이 종교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일 것 같은데 하나는 종교를 미신의 영역으로 치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매달린 거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 말이죠. 다른 하나는 종교에 대한 실망, 정확히 말하면 종교인들에 대한 실망이겠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면서 ‘종교라는 게 과연 필요할까’ 라는 회의 혹은 거부감을 갖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필요한가, 라고 한다면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서는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면 심리학이 발전하고 정신의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심리나 정신세계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다고 할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진 않아요. 우리가 인간 사이에 살면서 바탕이 되는 게 윤리인데 그 윤리의 토대가 되는 건 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가 예전처럼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사람답게 서로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청년문간에서 발견한 이문수 신부의 초상화

성북문화 제9호.indb 46 2022-02-18 오전 10:27:48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가르침을 주는 것은 종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A. 성경 말씀은 그때그때 위로와 힘을 주는 게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 천주교 성직자들은 사제서품을 받거나 종신서원을 할 때 평생 모토로 삼을 말씀을 뽑아요. 그것을 '서품성구'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선택했던 말씀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기준으로 시편 89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시인이시기도 한 최민순[2] 신부님이 번역하신 문구로 선택을 했어요. '하느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하리라.'라는 구절이죠. 그게 이제 제 삶의 모토 같은 것이죠.



청년문간에서 주문한 김치찌개.
인터뷰에 참여한 직원 둘이 두부와 고기사리를 추가해서 먹었는데도 9,000원 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필요한가, 라고 한다면 저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Q. 끝으로 종교인으로서 청년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 아마 종교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진 분도 계실 것이고 실망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사람이라 때로는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가질 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까. 종교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 바로 그러한 고민들을 할 때입니다. 길이 안 보일 때, 혹은 힘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강연자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 '직장생활에서 인간관계로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같은 질문을 하면 그런 분들이 나와서 유익하고 통찰력 있는 조언을 해 주시니 그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그 분들도 훌륭하시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분들께서 가르친 것이 종교거든요. 흔히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분들의 가르침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유효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다만 그 가르침을 저희 종교인들이 잘 전해드리지 못했고 저희들의 삶이 오히려 그분들의 가르침에 장애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저 수많은 강연자들의 가르침의 더 깊은 뿌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 최민순 신부(1912~1975): 해방 이후 가톨릭대학 신학부 교수 등을 역임한 교육자.

성북문화 제9호.indb 47 2022-02-18 오전 10:27:49



눈 오는 날 홍천사 경내

성북 인물 초대석 2

종교는 어려울 때 손잡아 주는 이웃

홍천사 주지 각밀 스님을 만나다

인터뷰 진행 : 박수진(성북문화원 부장)

홍천사는 지역과 함께 하는 사찰이다. 홍천사 홈페이지에 가면 경로잔치를 연다는 공지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뉴스를 검색하면 기부에 대한 기사가 나온다.

서울에서 가장 문화재가 많은 사찰이기도 하다.

보물이 두 점이고 등록문화재와 지방문화재 등을 합치면 20점 가까이 된다.

역사도 깊다. 이성계의 계비(繼妃) 신덕왕후의 능, 정릉의 원찰이었으며

정릉이 정동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후에도 여전히 원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유서 깊은 사찰 홍천사에서 주지인 각밀 스님을 만났다.

성북문화 제9호.indb 48 2022-02-18 오전 10:27:50

Q. 스님의 삶에서 불교를 처음 접했던 순간이 궁금합니다. 그 순간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지요? 출가 전 세속의 삶에서 불교가 가졌던 의미 그리고 출가를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저는 어릴 때부터 어쨌든 스님들하고 인연이 많았어요. 옛날에 월정사 주지 하셨던 김도명 스님이라고 그분하고도 인연이 있어서 월정사에도 조금 살았었고 그랬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5살 때부터 제가 절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딱히 뭐 출가 동기가 있어서라든지 목적이 있어서 출가했다기보다는 그래 사니까 그 자체가 그냥 생활이고 삶이고 그랬던 거죠. 발심을 하게 된 계기는 홍련암에서 천일기도를 하면서예요. 출가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시간 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벌써 10년 전쯤인 것 같아요.

Q. 종교를 막론하고 수행자의 삶은 유혹과 번뇌를 끊어 내는 싸움일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수행자들은 과거와 같이 사부대중과 몸을 직접 부딪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뿐 아니라, SNS 등 간접적인 접촉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 유혹과 번뇌에는 어떻게 대처 하시는지요.

A.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속세의 번뇌를 벗어나 지혜, 즉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입니다. 이러한 구도의 첫걸음은 계행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깨달음입니다. 훌륭한 과를 얻으려면 훌륭한 인은 필수적입니다. 좋은 식물을 얻으려면, 또는 훌륭한 건물을 짓기 원한다면



각밀스님, 촬영장소 : 흥천사

성북문화 제9호.indb 49 2022-02-18 오전 10:27:51

그 기초 작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깨달음, 열반을 고원한 것으로 생각해 일상과는 거리가 먼, 다다르기 힘든 피안의 세계로 여깁니다. 하지만 계행을 우리의 일상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아이가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교육은 기본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타인을 도와서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돕는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 도와야 진정한 도움인지,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등등, 현대 사회에 적용해도 하나 거스르지 않는 것이 계행입니다. 불교의 계행이야말로 유혹과 번뇌에 대처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타인을 도와서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돕는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 도와야 진정한 도움인지,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등등, 현대 사회에 적용해도 하나 거스르지 않는 것이 계행입니다."

Q. 스님께서는 조계종 문화국장을 역임하시면서 전통사찰의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셨고, 결국 2018년 안동 봉정사, 영주 부석사, 양산 통도사, 보은 법주사, 공주 마곡사, 순천 선암사, 해남 대흥사 등 총 7곳이 등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현재 주지로 계시는 흥천사에도 20여개가 넘는 불교문화재가 있습니다.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국 불교문화재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A. 한국불교는 4세기 한반도가 삼국시대일 때 중국을 통해 유입되었으며 지금까지 약 1천 700년 동안 찬란한 불교문화의 명맥을 이어온 종교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진 한국 불교는 한마디로 "조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각밀스님, 촬영장소 : 흥천사

성북문화 제9호.indb 50 2022-02-18 오전 10:27:52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타인을 도와서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돕는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 도와야 진정한 도움인지,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등등, 현대 사회에 적용해도
하나 거스르지 않는 것이 계행입니다.

화와 융합"이라는 말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로 등재된 산사들뿐만 아니라 이곳 흥천사 경내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산신각과 신중도 중에서 민간사상과 조화를 이루어 불교 속으로 융합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천사에서는 한국 불교건축문화재에서 특별한 성격과 건축구조를 가진 대방이라는 건물이 경내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방은 중앙 큰 방에 불단을 조성하였으며 바로 옆에 작은 방과 누마루를 두어 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한 건물 안에 배치한 조화와 융합을 실제로 현실화한 특별한 불교 문화재입니다.

최근에 신축한 대법당은 약사전, 관음전, 지장전, 북카페, 종무소, 공양간 등 현대 불교 신행 생활에 최적화된 조화와 융합의 공간으로 조성되어 흥천사를 찾는 많은 이들이 즐거운 법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스님께서 꼭 소개 하고 싶은 불교 문화재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하나, 그리고 흥천사에서 하나를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A. 대중적으로 알려진 불교문화재는 석굴암, 석가탑, 다보탑 등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문사 은행나무처럼 사찰 내 오랫동안 생명을 지켜온 나무들에게도 천연기념물이라고 하여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조계사 대웅전 옆에 서 있는 특이한 나무를 볼 수 있는데 이름하여 백송이라고 합니다. 모양은 소나무와 같지만 표피가 흰색으로 변하여 상당히 기품 있는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흥천사에서는 최근에 보물로 지정된 흥천사괘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부처님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하단에 사자를 탄 문수동자와 코끼리를 탄 보현동자를 묘사하여 생동감 있는 구성으로 담겨 있습니다.

특히 왕실 발원으로 조성된 흥천사 괘불은 수화승 화담신선 등 17인의 화승이 1832년(순조 32)에 제작하였는데, 순조와 순조비 · 효명세자(1809~1830)의 빈인 빈궁(후에 조대비) · 효명세자의 아들인 세손(후에 현종) 등의 축원을 위해 정조의 딸인 숙선공주와 부마 · 순조의 장인 김조순 · 순조의 딸인 명온공주 · 복온공주 · 덕온공주와 부마들 중 종친이 대거 시주에 참여하여 흥천사가 명실상부

성북문화 제9호.indb 51 2022-02-18 오전 10:27:52



흥천사의 비로자나삼신괘불도(위)와 괘불함(아래) 사진출처 : 성북마을아카이브

한 최초 왕실발원 사찰임을 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당시 괘불을 야외에 걸고 행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괘불재를 고증(복원)하여, 국가의 번영과 안정적 발전을 기원하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위안과 의지처가 되는 축원 의식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Q. 스님께서는 춘천 계원사 주지로 계실 때도 계원사를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봉사하는 도량으로 일굴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흥천사에 와서도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종교와 사회가 만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만, 스님께서는 특히 이 지점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스님이 사찰의 사회적 역할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A. 현재 흥천사는 많은 불사가 진행 중이며, 불사의 목적은 신흥사 조실 무산큰스님과 회주이신 금곡스님이 평소 늘 강조하셨던 삼각선원의 현판 글귀인 "손잡고 오르는 집-행복해지려면 혼자서 말고 손잡고 올라라"라는 실천을 위해 흥천사 불사 복원 중창 불사를 진행하면서도 "주세요"가 아닌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흥천사 불사가 자연(숲길, 바람길)을 살리고 지역주민에게 행복

성북문화 제9호.indb 52 2022-02-18 오전 10:27:53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는 안식처이자 '힘들고 어려울 때 손잡아 주는 친구'같은 이웃으로 자리하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홍천사 활동의 이유입니다

을 전해줄 수 있는 안식처로서 "아름다운 절"을 만들기 위한 불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불사가 곧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봉사하는 도량으로 가꾸고, 사찰의 사회적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Q. 흥천사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활동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 홍천사는 왕실사찰로서 역사와 문화 예술 복원에 힘쓰며 어르신 모시기와 나눔봉사 등으로 지역주민과 하나 된 홍천사가 될 것입니다. '역사와, 자연과, 사람(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포교 도량으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는 안식처이자 '힘들고 어려울 때 손잡아 주는 친구'같은 이웃으로 자리하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활동의 이유입니다.

Q. 과학기술의 발달과 그로 인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종교의 시대는 끝났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삶에 대한 불확실성과 죽음이라는 미지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인가를 믿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현대 사회의 불교의 역할과 필요성은 무엇일까요?

A. 사람들 대부분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 초연결·초지능·초실감의 4차 산업혁명 시대, 탈종교 시대이긴 하지만 오히려 '영성'에 대한 요구는 더 높아지고 아무리 세속적 가치가 높아지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정체성과 행복을 찾고자 영적인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남부에서 수행공동체 플럼빌리지(Plum Village)를 이끌고 있는 틱낫한 스님은, 들숨 날숨의 호흡을 관찰하거나 걷는 명상만으로도 깨달을 수 있다고 전합니다. '과거의 걱정'이나 '미래의 불안'에 끄달리지 않고,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 순간순간에 집중해 기쁨과 평화를 만끽하도록 돕습니다. 숨과 걷기, 명상만으로도 사고가 긍정적으로 전환됩니다. 틱낫한 스님의 간결, 명쾌한 지도에 유럽에서만 출가자가 800여명, 여기에 행자 생활을 하겠다고 나서는 이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홍천사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도량이 되길 기대하고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사람의 인간성을 성숙하게 하는 영양제와 같고, 한 사회의 성숙을 도와주는 자양분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을 잘 파악하고,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또한 그것이 현대사회의 불교의 역할과 필요성이라 생각합니다.

Q. 스님께서 평소 가장 좋아하시는 불경의 구절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A. 임제 선사는 중국 당나라 때의 선승으로 임제종의 개조입니다. 어느 날 선사는 대중에게 위와

성북문화 제9호.indb 53 2022-02-18 오전 10:27:53

“종교는 사람의 인간성을 성숙하게 하는 영양제와 같고,
한 사회의 성숙을 도와주는 자양분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말했습니다.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

‘수처(隨處)’란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환경이고 삶터를 말합니다. ‘작주(作主)’란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주체적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입처개진(立處皆眞)’은 내가 서있는 그곳이 모두 진리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 속에서도 늘 진실하고 주체적이며 창의적인 주인공으로 살아가면, 그 자리가 최고의 행복한 세계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늘 변화의 흐름 위에서 살아갑니다. 변화하는 인생의 흐름 속에서 분명한 것은 ‘나는 나에게서 달아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을 받고, 즐거움을 받는 주인은 바로 ‘나’입니다. 아울러 고통과 즐거움을 만들어 내는 주인도 다름 아닌 ‘나’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성북구와 서울시 대한민국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루 빨리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은 날 - 하루하루 좋은 날,
하루하루 새로운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북문화 제9호.indb 54 2022-02-18 오전 10:27: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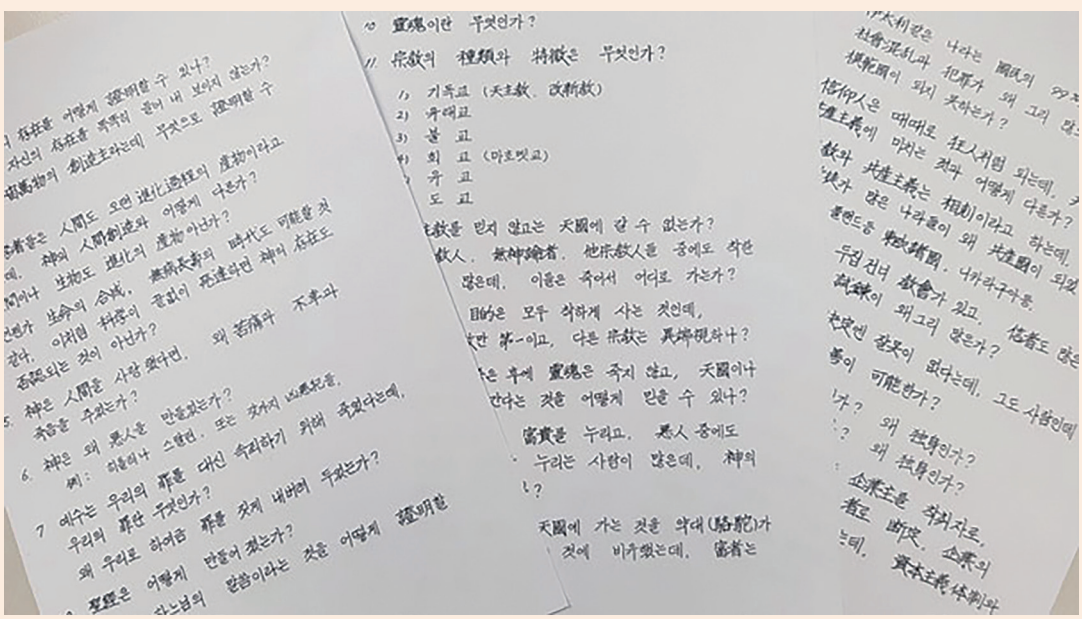
2021 성북주민 아카데미

성북의 종교문화와 민속신앙

글 : 민문기(성북문화원 성북학연구팀장)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은 폐암 진단을 받은 후 약 2년여 간 투병 생활을 한 끝에 1987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그는 타계하기 한 달 전, 24가지의 질문을 빼곡이 적어 절두산 성당의 박희봉 신부에게 전했다. 24가지 질문 모두 종교적 물음이었다. 재계의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이 필경사를 통해 쓴 신과 영혼에 관한 24가지 질문
(출처: 정경조선, 2019년 3월 22일,「故 이병철 회장의 임종 전 마지막 질문 24가지」)

이처럼 종교계는 각자 자신의 믿음에 바탕을 둔 각기 다른 답을 내놓았다.
누구나 한 번쯤 의문을 갖게 되는 신과 종교에 관한 근원적인 물음에
명확한 정답은 '알 수 없음'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긴다.
이렇게 다른 답변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각 종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2021년 성북 주민 아카데미는 여기에서 출발했다.

거물이자 현대사의 거목인 그도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들어섰음을 느끼자 인간과 신, 그리고 종교에 대하여 근원적인 궁금증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은 이러한 질문지를 남긴 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떴다. 그리고 그가 타계한 지 24년이 흐른 뒤 질문지가 다시 발굴되었고, 이에 대하여 각 종교계에서는 저마다의 신앙과 교리에 따라 답을 내놓았다.



2021 성북 주민 아카데미
성북의 종교문화와 민속신앙 포스터

천주교 차동엽 신부는 "우리는 모두 유한한 존재다. 그래서 무한을 동경한다. 영원을 갈망한다. 그런 염원이 하나의 형식이 됐을 때 종교가 된다. … 결국 인간은 종교라는 터널을 통해 영원을 갈망하는 거다."라고 답하였고 불교계의 허정 스님은 "신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두려움 속에서 만들어 낸 개념이다. … 원래 종교(宗敎)라는 용어는 동양문화권에서는 신(神)과는 무관하게 '훌륭한 가르침'이란 의미로 쓰여져 왔다. 현재 국어사전에는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종교를 이렇게 정의한다면 불교는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종교계는 각자 자신의 믿음에 바탕을 둔 각기 다른 답을 내놓았다. 누구나 한 번쯤 의문을 갖게 되는 신과 종교에 관한 근원적인 물음에 명확한 정답은 '알 수 없음'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긴다. 이렇게 다른 답변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이

성북문화 제9호.indb 56 2022-02-18 오전 10:27:55

를 알기 위해서는 각 종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2021년 성북 주민 아카데미는 여기에서 출발했다.

성북 지역은 많은 종교단체가 자리잡고 있다.[1] 특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종교라 할 수 있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중 개신교를 제외한 다른 두 종교단체가 다수 위치해 있다. 불교단체는 총 125개소로 서울 내에서 종로구와 함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천주교단체는 총 29개소로 중구에 이어 두 번째이다. 개신교의 경우 총 280개소로 서울 내에서 평균에 약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다른 지역구의 경우 개신교 단체만이 많이 자리잡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종교간 어느 정도의 균형이 갖추어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 종교 간의 화합과 통합을 도모한 '사랑나눔 연합 바자회'가 매년 개최되기도 한 곳이 바로 성북이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화두로 삼는 것, 종교에 대하여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리고 나아가 각각의 종교를 깊이 있게 이해하려 하는 것 등은 그동안 터부시되어 왔다. 혹여 발생할지도 모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종교 편향에 관한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일지도 모른다. 또한 이미 우리는 최근 성북 지역 내에서 맹목적인 믿음이 초래한 사태를 목격하기도 하였으니 더욱 그런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여러 이유로 회피를 거듭하면서 점점 더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빚어진 '대면 행사 개최 불가'와 '전면 온라인 전환' 조치는 오히려 그동안 터부시되어 왔던 '종교'라는 화두를 이야기의 중심으로 끌어온다는 '발칙한 짓'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끔 이끌었다고나 할까? 하지만 성북 주민 아카데미가 종교를 홍보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되었으므로, 보다 교육적이고 학술적인, '성북학'에 걸맞는 방향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렇게 각 종교에 관련하여 다음 다섯 가지의 강연 주제를 정하였다.

1. 성북 지역 교회의 설립과 영향
2. 보문동 탑골승방
3. 사찰 속 불화(佛畫) 이해하기
4. 성북 지역 수도회의 설립과 변천
5. 성북의 민속신앙과 산신제

첫 번째 강연 주제인 '성북 지역 교회의 설립과 영향'은『한국기독교 흑역사』,『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등의 한국 기독교 역사에 관한 책을 써낸 작가이자 지역사 연구가인 강성호 선생이 맡아주었다. 그는 성북 지역의 기독교 자체에 다루는 것보다 특정 인물들에 초점을 맞추어 그 일대기를 살펴보는

1 총 446개소(서울 열린데이터광장,「서울시 사업체조사결과 정보(기준연도:2019년)」).
2 사랑나눔 연합 바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지 38쪽 참고.

성북문화 제9호.indb 57 2022-02-18 오전 10:27:55

강연을 진행하였다.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무교회주의자이자 조선성서연구회를 조직하고『성서조선』을 발간하였던 김교신 선생이었다.

강성호 선생은 강연을 통해 김교신 선생이 태어나서부터 살아온 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성북구 정릉동에 이사 온 이후의 이야기나 그곳에서의 일상생활 이야기 등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1강 '성북 지역 교회의 설립과 영향'

두 번째 강연인 '보문동 탑골승방'은 보문동에 위치한 사찰 보문사,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여성 승려인 비구니에 관한 이야기로 꾸렸다. 보문사는 1115년, 고려시대 승려 담진이 창건하였다고 전해지는 곳으로, 조선시대에는 탑골승방으로 불리며 옥수동 두뭇개승방, 석관동 돌곶이승방, 숭인동 새절승방과 함께 여성 승려인 비구니들의 사찰, '니사'로 불렸다. 현재는 세계 유일의 비구니 종단인 대한불교 보문종의 본산으로 자리잡고 있다. '탑골승방' 보문사와 비구니에 대한 이야기는 보문사의 지원 스님이 맡아주었다.

지원 스님은 불교라는 종교가 삼국시대에 처음으로 한반도에 전래되었는데 이때부터 비구니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시작으로 비구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옛 지도와 옛 신문기사 등을 바탕으로 탑골승방과 보문사의 역사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이와 더불어 수행생활에 있어서 비구니 스님과 남성 승려 간에 다른점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시청자 질문에 대하여 공부하고 수행하고 생활하는 것은 남녀가 평등하다, 사부대중을 이루어 수행하는 이라면 모두 다 평등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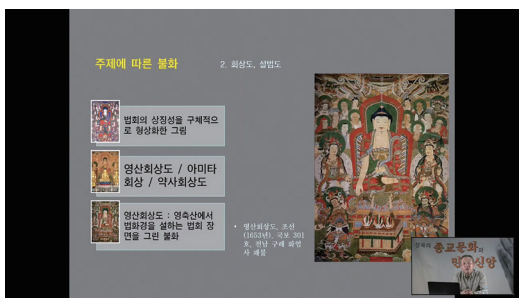
2강 '보문동 탑골승방'

성북문화 제9호.indb 58 2022-02-18 오전 10:27:57

세 번째 강연 주제는 '사찰 속 불화(佛畫) 이해하기'이다. 성북 지역에는 유서 깊은 사찰이 많이 모여있으며, 이러한 사찰은 저마다 다양한 불교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어느 사찰을 방문하든 여러 종류의 '불화'를 마주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불화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고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끔 준비한 강연이었다. 강연은 불교문화재연구소 임석규 학예실장이 맡아주었다.

강연은 먼저 석가모니가 태어난 네팔의 룸비니에 있는 다양한 불교미술을 시작으로 이것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전래되었고 어떤 형태로 발전하였는지에 대해 알려주었다. 이후 부처님의 모습뿐 아니라 불교와 관련된 모든 그림을 통틀어 부르는 '불화'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불화는 용도별로, 주제별로, 또 형태 및 재료별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데 각각 어떤 형태와 구성을 띠고 있으며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어 앞으로 사찰을 방문하였을 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3강 '사찰 속 불화(佛畫) 이해하기'

네 번째는 '성북 지역 수도회의 설립과 변천'이라는 주제로 사회적기업 청년문간 대표이자 글라렛선교수도회 소속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가 강연을 해주었다.[3]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성북구에는 서울에서는 중구 다음으로 많은 천주교 단체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되면서 많은 천주교 수도회가 성북 지역에 자리하게 되었는데 강연을 통해 어떤 수도회가 있는지, 어떻게 자리하게 되었는지 알아보았다.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성가소비녀회, 성 빈센트 드뽈 자비의 수녀회, 프란치스코 작은형제회, 툿찡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예수고난회, 글라렛선교수도회 등의 수도회를 성북 지역에 자리한 순서대로 소개해 주었다. 그리고 성북 지역에 이렇게 많은 수도회가 자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이야기해주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북의 민속신앙과 산신제'를 주제로 민속학 박사인 성북문화원 김지훈 연구원이 강연을 진행해주었다. 강연은 먼저 가신신앙, 무속신앙, 마을신앙 등 민속신앙의 종류와 형태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이후 성북구의 지형적 특성과 더불어 성북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산신제에 대하여 장소, 제를 올리는 시기, 방식, 신격, 특징 등을 확인하였다.

3 이문수 가브리엘 신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지 40쪽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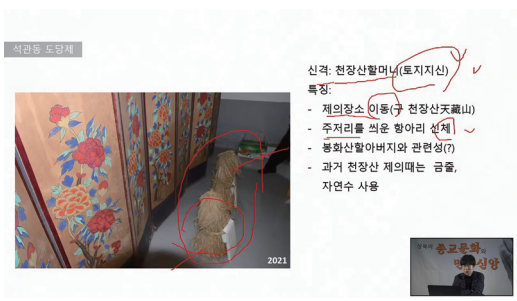
성북문화 제9호.indb 59 2022-02-18 오전 10:27:58





4강 '성북 지역 수도회의 설립과 변천'





5강 '성북의 민속신앙과 산신제'

이렇게 성북구 산신제를 살펴 본 이후, 성북 지역 산신제만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제의 과정이 유연하고 개방적이며, 급격한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옛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경우, 공동체신앙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로 변화과정에 있다는 점 등이 확인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다섯 가지 주제의 강연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각각의 강연은 강연자의 열띤 발표로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이어졌다. 이를 감안할 때 위의 글은 간략을 넘어 수박 겉핥기에 불과한 소개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고 조금이나마 궁금증을 느꼈거나,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 성북문화원 유튜브 채널에 방문하여 2021 성북 주민 아카데미 영상을 시청하길 바란다.

이번 2021 성북 주민 아카데미는 '종교'라는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주제였지만 성북 지역만이 가진 특징과 더불어 각각의 종교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비록 서두에서 인용한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은 되지 못하였겠지만 각각의 종교가 어떤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답변에 임하였을지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기대해본다.

성북문화 제9호.indb 60 2022-02-18 오전 10:28:00

제2회 성북학 학술회의

1930~40년대 성북 지역의 문화지형도

글 : 염현주(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지역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오늘날 그 연구와 논의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성북문화원 역시 성북학연구팀을 주축으로 성북구의 역사·문화·지리·생활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고찰함으로써 그동안 국가주의 관점과 도성 중심의 서울사 연구에서 가려졌던 성북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북문화원은 성북의 역사에서 1930~40년대의 중요성을 포착하였고 지난 11월 17일, 이 시기를 주제로 제2회 성북학 학술회의 '1930~40년대 성북 지역의 문화지형도'를 개최하였다. 당시 성북구 일대는 일제의 도시 계획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주거 시설과 문화공간이 마련되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모여들어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이렇게 모인 이들은 서로 교류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학문과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본 학술회의는 이 시기를 전후로 한 성북 지역의 변동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각계의 명망 있는 연구자들을 초빙하여 총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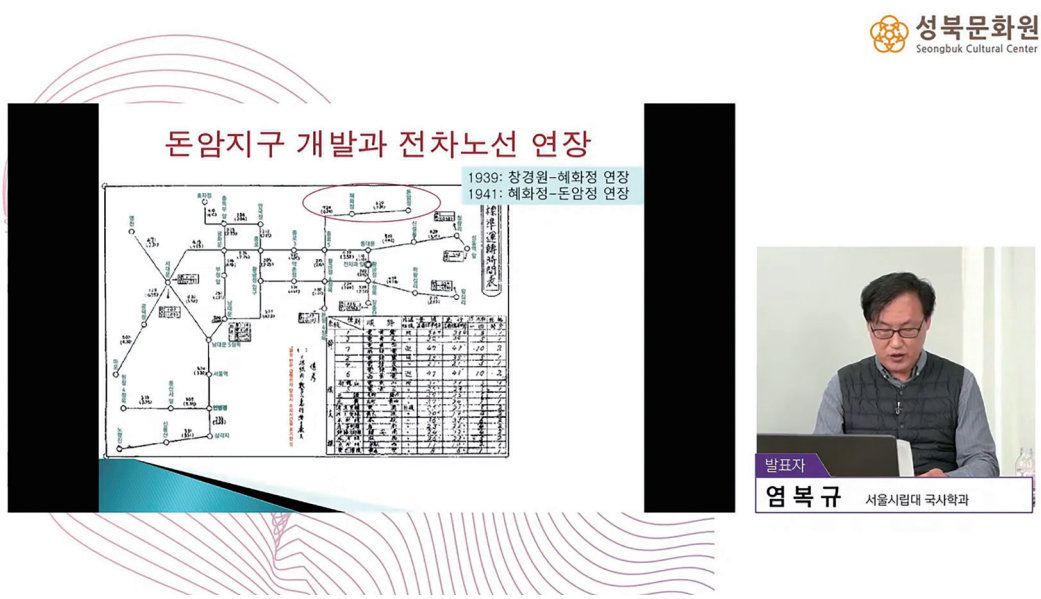


제2회 성북학 학술회의
'1930~40년대 성북 지역의 문화지형도' 포스터

먼저 '1930~40년대 경성부 확장과 동문 밖 지역의 변화'를 주제로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염복규 교수가 학술회의의 막을 열었다. 성북구 등에 행한 일제의 시가지 계획과 그에 따른 '동대문 밖' 지역의 개발 양상 및 교외 주택지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서 근현대 서울의 탄생을 알린 성북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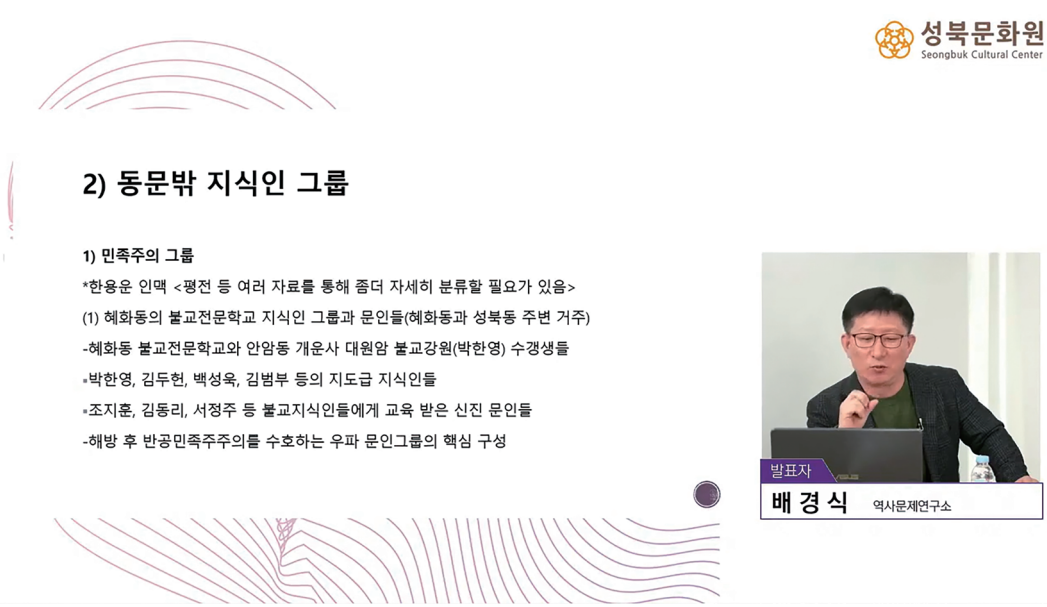
이어서 역사문제연구소 배경식 부소장이 성

성북문화 제9호.indb 61 2022-02-18 오전 10:28:00



북구를 비롯한 '동문 밖' 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지식인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류한 양상에 대해 발표하였다. 1930~40년대에 활동한 지식인 그룹은 해방 후 한국 현대사회의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으나, 일부는 남북 분단과 이념 갈등으로 인해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 이것은 향후 성북학 연구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 성북문화원이 풀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다음 주제는 성균관대 박물관 김대식 학예실장이 발표한 '1930~40년대 위창 오세창의 문화재 감



성북문화 제9호.indb 62 2022-02-18 오전 10:28:01



정'이었다. 독립운동가이자 서예가, 언론인으로 널리 알려진 오세창은 성북동 자택에서 문화재를 수집·감정하였고, 한국미술사 서술에 있어서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오세창의 문화사적 업적을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마지막 발표자인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장문석 교수는 1930~40년대 성북동에서 활동했던 문인



성북문화 제9호.indb 63 2022-02-18 오전 10:28:03

들의 출판 활동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였다. 그중에서도 소설가 이태준의 '문장사'와 비평가 최재서의 '인문사'를 중심으로, 식민지 조선의 문예부흥을 만들어갔던 주체의 하나로 문학자들이 경영했던 출판사를 살펴보았다. 이태준의 월북을 비롯한 일련의 정치적 상황으로 성북동 문인들이 남긴 유산을 충분히 의미화하지 못한 현실은 앞으로 성북학, 특히 문화사 연구에서 중요한 과제로 주어진 게 아닌가 싶다.

발표와 더불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시·시·한연구소 정기황 소장, 성북문화원 백외준 연구과장, 국립현대미술관 배원정 학예연구사, 일본 도쿄외국어대학 언어문화학부 야나가와 요스케 강사가 각 주제별 토론에 참여하여 발표의 깊이를 더하였다.





성북문화 제9호.indb 64 2022-02-18 오전 10:28:04







코로나19 확산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았던지라 이번 학술회의는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는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채팅창을 통해 열띤 질의응답이 오간 덕에 그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

이번 제2회 성북학 학술회의는 1930~40년대를 전후로 한 성북 지역의 변동을 다각적으로 정리·분석하는 한편 성북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인물들과 그들의 교류 양상을 되짚어보는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지역학 연구는 단순히 학문적 성격을 넘어서서 지역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려는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가진다. 학술회의를 비롯한 성북문화원의 성북학 연구 사업도 앞으로 성북구를 더 나은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성북문화 제9호.indb 65 2022-02-18 오전 10:28:06

제3회 성북학 학술회의

기록의 넓이
- 성북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각양각색 기록의 세계

글 : 염현주(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제3회 성북학 학술회의 '기록의 넓이' 포스터

성북구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곳이다. 성북문화원은 이러한 지역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성북구청과 함께 '성북구 마을기록 아카이브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문서와 사진 외에도 주택, 소설, 노래 등 다양한 자료들이 '기록'의 범주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과연 이러한 자료들이 역사쓰기의 재료로서 신뢰할 만한 기록인지,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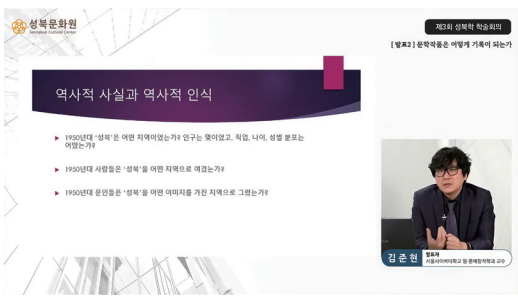
지난 12월 11일, 유튜브 생중계로 개최한 제3회 성북학 학술회의 '기록의 넓이 - 성북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각양각색 기록의 세계'는 성북학 연구의 기초가 되는 기록의 범위와 종류, 그 해석 방법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생각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각각 건축사, 문학사, 대중가요사를 연구해온 전문가들이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발표를 진행하였다.





성북문화 제9호.indb 66 2022-02-18 오전 10:28:07

첫 번째 주제는 '건축물은 어떻게 기록이 되는가'로, 시·시·한 연구소의 정기황 소장이 성북구 및 인근 지역의 한옥을 중심으로 최근 100년 사이 생활공간의 변화를 소개하였다. 본 발표를 통해 한옥은 고정된 형태나 양식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입지조건, 생활방식의 변화, 기술의 발달, 제도의 도입 등 여러 문화적 조건들이 바뀔 때마다 능동적으로 적응을 거듭해 온 문화적 산물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사료(史料)로서 도시한옥의 중요성은 변화에 적응한 집 자체의 형태와 의미에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음건축도시연구소의 최호진 소장이 참여하여 우리가 살고있는 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더욱 넓히는 시간이 되었다.





다음으로는 김준현 서울사이버대학교 웹·문예창작학과 교수의 발표를 통해 문학이 어떻게 기록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론과 맥락을 살펴보았다. 발표자는 문학과 시대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한 사회나 문화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믿음이나 지식'을 일컫는 '코드(code)' 개념을 설명하였고, 지역 문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 문인 커뮤니티 등 향후 연구방향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 주제의 토론에 나선 연세대 국학연구원의 송은영 연구원은 문학작품을 사회사의 기록으로 고려할 때는 창작자(작가)가 작품을 쓴 시기도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 지역학의 사료로서 문학에 접근하는 방법, 나아가 작품의 맥락과 의미를 찾아내는 수용자(독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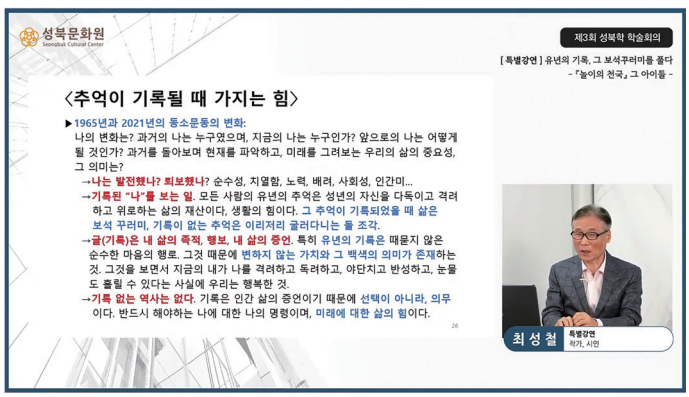




마지막 주제의 발표를 맡은 음악학자 이준희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노래를 기록하고 전달해온 매체의 발전에 대해 설명하고,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단장의 미아리고개〉 외에도 성북 관련 대중

성북문화 제9호.indb 67 2022-02-18 오전 10:28:09

가요의 기록을 다양한 방식으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는 지역의 대중가요 역사를 정리할 때 노래 제목이나 가사에 지명이 등장하는 것을 찾는 작업이 주된 방식이었다. 발표자는 이를 넘어 음반사, 무형문화재 전수소, 공연장 등 음악을 둘러싼 공간, 작품의 생산자 등 시야를 좀 더 확장해서 보면 노래로부터 성북에 대해 훨씬 흥미로운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서 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의 오진아 팀장이 토론에 참여하여 노래 아카이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발표와 토론이 끝나고, 특별강연도 진행되었다. 에세이 『놀이의 천국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1965년』 저자인 최성철 작가를 초빙하여 어떻게 유년의 추억이 지역의 기록이 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동소문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돈암초등학교를 졸업한 작가의 이야기는 1960년대 동소문동 일대의 풍경을 생생하게 그려주었다.

제2회에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라이브로 열린 본 학술회의의 채팅창에 시청자가 남긴 한마디가 기억에 남는다.

"기록은 또 다른 호기심에서 시작하는 거네요."

2021년 한해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학술회의를 통해 성북학 연구의 시야를 확장하고 귀중한 자료를 수집할 기회를 얻은 성북문화원은 앞으로 성북의 작은 이야기에도 귀 기울일 것이다. 성북과 성북학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기록의 범위는 더 다양하고 넓어질 테니까.





성북문화 제9호.indb 68 2022-02-18 오전 10:2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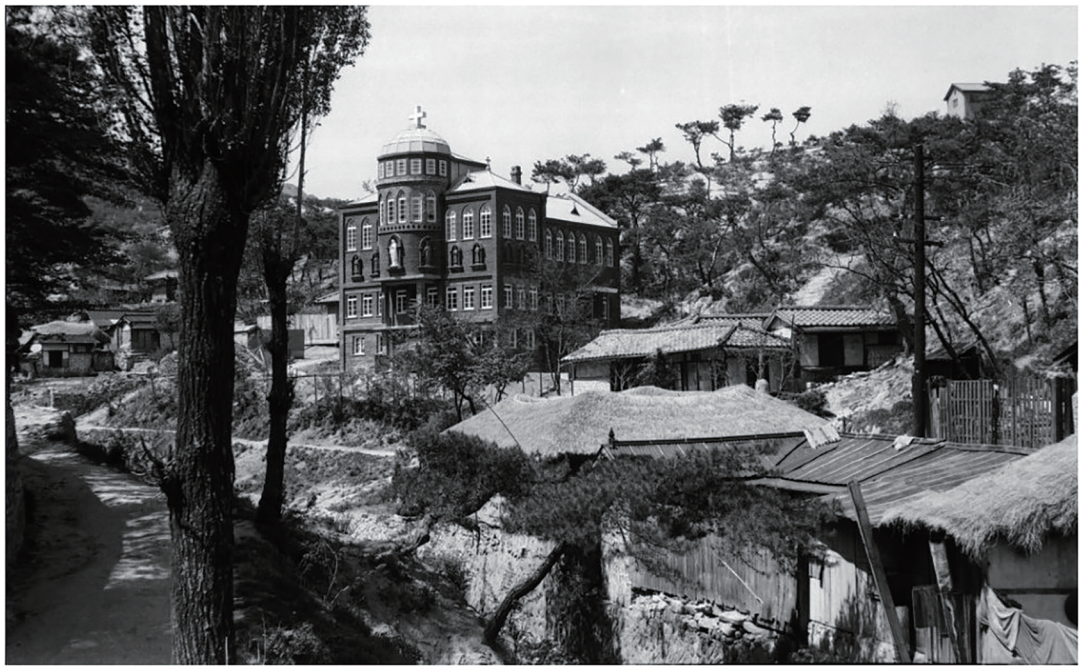
성북공간 1

1955년, 성북동에 세워진 붉은 벽돌 건물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 본원

글 : 장지희(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조용히 산책하기 좋은 성북동을 걷다 보면 붉은 벽돌의 건축물이 눈에 띈다. 바로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 본원 건물이다. 세월의 흔적이 조금 느껴지지만, 그 생김새가 매우 세련되고 개성이 뚜렷하다. 이 건물은 언제 이곳 성북동에 세워진 걸까? 지금부터 이곳의 역사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무아 방유룡 신부 흉상



1955년 신축 당시의 모습(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는 한국 가톨릭 최초의 내국인 수도자를 위한 수도회로 무아(無我) 방유룡(안드레아, 1900~1986) 신부에 의해 창립되었다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는 한국 가톨릭 최초의 내국인 수도자를 위한 수도회로 무아(無我) 방유룡(안드레아, 1900~1986) 신부에 의해 창립되었다. 천주교 집안에서 성장한 그는 가톨릭 대학교 신학대학의 전신인 대신학교에서 6년간의 교육을 마친 후 1930년 10월 26일, 사제 서품을 받았다. 이후 강원도 춘천에서 사목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황해도와 개성, 서울의 가회동, 제기동 등에서 신부를 역임했다. 그는 순수하게 한국적인 수도회를 설립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는데, 그 결과 개성에서 활동했을 때인 1946년에 한국순교복자수녀회를 먼저 창립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7년 후인 1953년 10월 30일, 자생 남자 수도회인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를 창립하였다.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는 창립 초기 제기동 본당 내 부속건물에 임시 수도원을 설치하였으며, 창립 3년째인 1955년에 현재 수도회 구 본원 건물이 위치한 성북동으로 옮겨 왔다. 방유룡 신부가 직접 설계한 이 건물은 한국 가톨릭 최초의 남자 수도회의 본원 건물이자, 한국인 신부에 의해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뛰어난 역사적, 종교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5년에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성북문화 제9호.indb 70 2022-02-18 오전 10:28:13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 본원 외부(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 본원 내부(출처: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보통의 성당 건물은 제단 상부의 돔이 반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방유룡 신부는 제단 상부를 타원형 반구로 조성하여 다른 성당과 차별성을 두었다. 이러한 독특한 구조와 더불어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바로 건물 외벽에 조각상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행적이 뚜렷하여 모든 신자의 공경을 받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인준한 순교자를 가리키는 순교복자를 조각한 것이다. 건물이 세워질 당시 김대건, 정하상, 조신철 등을 포함한 12명의 순교복자 조각이 함께 제작되어 3층 외벽에 자리하였다.

성상들은 2006년, 건물 리모델링 당시 모두 복사본으로 교체되었는데 수도회 건물 오른편에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면서 유대철, 샤스탕 신부의 조각은 새로 설치하지 않아 현재는 10명의 성상만을 확인할 수 있다. 원본은 수도회에서 보관하고 있어 직접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는 한국의 조각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최초의 한국 순교복자 조각 작품이자 최초로 건물 외벽에 설치되었다는

성북문화 제9호.indb 71 2022-02-18 오전 10:28:14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 본원 야경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현재 수도회 본원은 바로 맞은편인 성북로 143으로 옮겨졌으며, 옛 본원 건물은 성도들의 묵상과 기도를 위한 피정 공간인 '복자사랑 피정의 집'으로 이용되고 있다. 성북동에 방문한다면 고즈넉한 동네 풍경과 잘 어울리는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간직한 이곳에 들러 잠시 시간을 보내도 좋을 것이다.

성북문화 제9호.indb 72 2022-02-18 오전 10:2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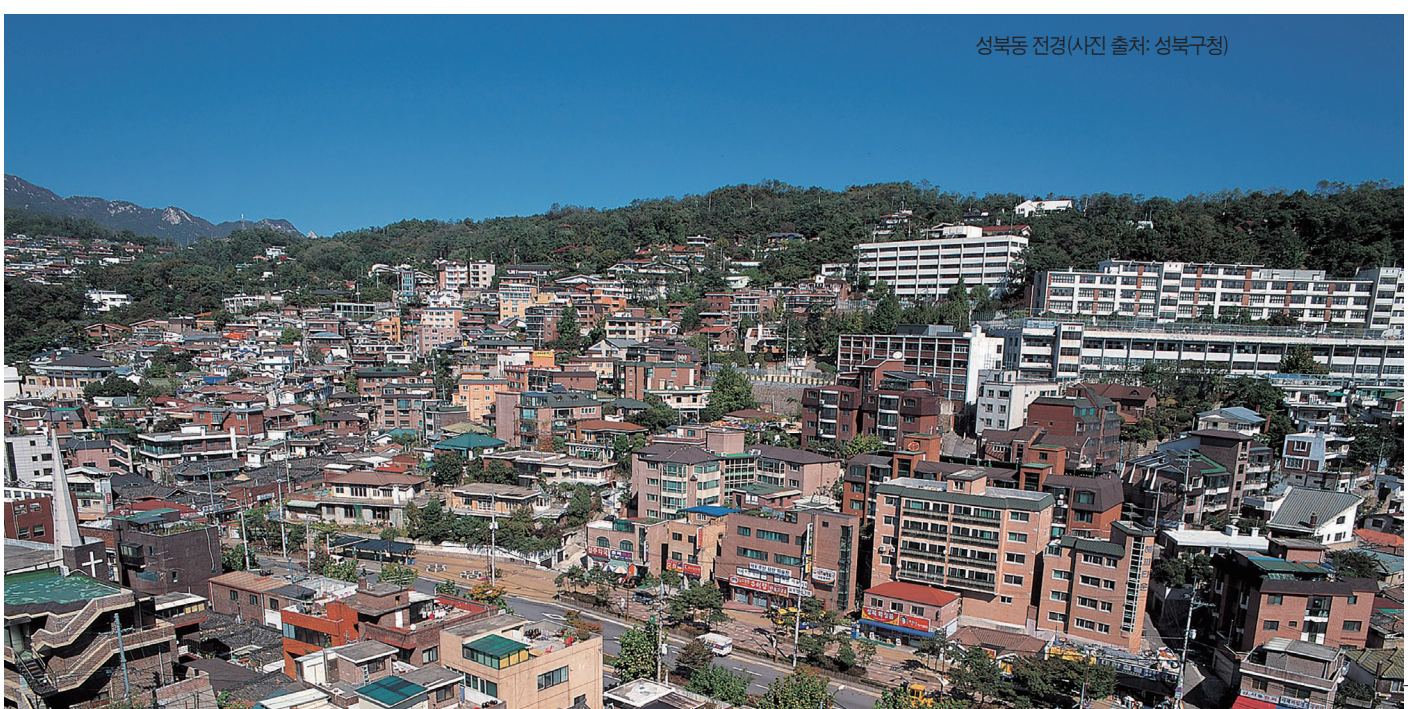
성북공간 2

믿음의 장소, 기원의 이름

글 : 오진아(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팀장)

이름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 붙여지는 단어 그 이상으로 그 속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지명도 단순히 지표 위에 한 지점을 다른 지점과 구분하기 위해 붙여지지는 않는다. 지명에는 오랫동안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 사이에 형성된 언어, 관습, 문화의 흐름이 담겨있다. 그렇기에 전통적인 민간신앙뿐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된 종교나 사상과 관련된 장소나 신념, 행위 등도 지명에서 읽어볼 수 있다. 성북구의 지명에서도 종교나 신앙과 관련된 지명을 여러 개 찾아볼 수 있다.

종교가 지명에 영향을 미친 예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종교적 장소가 그 지역의 상징물이 된 경우이다. 특히 성북구에는 사찰과 관련된 지명이 많다. 성북동의 옛 이름 중 묵사동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묵사(墨寺)라는 절이 있었던 것에서 유래된 것이다. 북쪽에 절이 있는 동네라 하여 북절골, 혹은 절 '사(寺)'자를 붙여 북사동이라고도 불렸다. 조선 중종 때 편찬된『신증동국여지승람』에 '옛날에 묵사가 있었던 곳'이라 하였으니 절은 오래전 사라진 듯하다. 하지만 영조대『승정원일기』나 조선 후기 문신 박제가(1750~1805)가 쓴 문집에 묵사동, 북사동이라는 지명이 나오는 걸 보면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이 지명이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성북동 전경(사진 출처: 성북구청)

“보문이라는 단어에는 모든 성덕(性德)을 모두 갖춘 보살이 그 덕을 적재적소에 쓰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다. 그런 소망에 답하듯 보문사는 보문동의 중요한 사찰로서 여전히 사람들이 의지하는 믿음의 공간으로 남아있다.

북사동처럼 지명이 유래된 장소도 사라지고 이젠 그 지명마저 잘 쓰이지 않는 예도 있지만, 오늘날에도 널리 쓰이는 지명도 있다. 바로 미아리고개이다. 미아리라는 지명은 옛날에 강북구 삼각산동(옛 미아7동)에 미아사(彌阿寺)라는 절이 있었던 데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일설에는 미타사(彌陀寺)가 변하여 미아사가 되었다는 설도 있고, 또 지금의 정릉동 지역을 사을한리(沙乙閑里)·사아리(沙阿里)라고 했는데 사아리가 미아리로 전음(轉音)되었다는 설도 있다. 미아리라는 지명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미아사가 있었다던 삼각산동의 옛 지명 중 불당곡(佛堂谷)이라는 지명도 있는 것을 보면 이곳에 사찰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명과 그 근거가 되는 사찰 모두 오늘날까지 확인할 수 있는 곳도 있다. 보문동의 ‘보문’이라는 지명은 동망봉터널 옆에 있는 사찰인 보문사(普門寺)에서 이름이 유래된 것이다. 불교에서 보(普)는 몸체에 온갖 덕을 갖춘 것을 말하고, 문(門)은 쓰임이 나타나는 곳을 말한다. 즉, 보문이라는 단어에는 모든 성덕(性德)을 모두 갖춘 보살이 그 덕을 적재적소에 쓰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다. 그런 소망에 답하듯 보문사는 보문동의 중요한 사찰로서 여전히 사람들이 의지하는 믿음의 공



보문사 입구


보문사에서 보는 보문동 풍경

성북문화 제9호.indb 74 2022-02-18 오전 10:28:18

간으로 남아있다.

제사를 지내는 곳도 예부터 중요한 종교적 공간이었다. 제사를 지내는 이유 중 하나는 천재지변으로부터 초월적 존재에게 보호받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농업 국가인 조선에서 농업의 신에게 제를 드리는 것은 한 해의 안녕을 비는 것과 같았다. 제터고개는 동대문구 제기동과 성북구 안암동 사이에 있는 안암로 큰길의 나지막한 고개이다. 이 고개 부근에 인간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다고 전해지는 신농과 후직에게 제사를 지내는 조선시대 선농단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안암동 옆 동네인 제기동의 이름도 '제터'를 한자로 옮긴 것에서 유래되었다 하니 당시 사람들이 선농단과 선농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보문사 문화체험관 착공 법회(사진 출처: 성북문화원)


현재의 선농단(사진 출처: 문화재청)

사당도 중요한 종교적 공간이다.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고인을 추모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죽은 조상이 후손을 지켜주고 복을 주길 바라는 기복 사상이 저변에 깔려있다. 그러니 사당도 복을 비는 기원의 공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안암동3가 일대는 조선 세종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과 그 아들 영순군이 대를 이어 살아왔던 곳이라 한다. 이곳에는 그 일가를 모시는 사당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사당이라는 뜻을 가진 '궁(宮)'자가 마을 이름에 붙어 궁리라는 지명이 나왔다. 안암동의 다른 이름인 궁말 · 사당말도 이 사당과 관련해 파생된 지명이다.

한편,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이 지명에 반영된 경우도 있다. 성북동의 또 다른 옛 지명인 노구멧골이 그러한 예이다. 이 지명은 옛날 이 마을에 살던 여인이 집을 나간 남편을 위해 매일 노구메(메밥)를 지어 놓고 산천의 신령에게 제사를 지냈더니, 그 정성에 남편이 돌아와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에서 나왔다. 산천의 신령에게 제사 지낼 때 올리는 제물인 노구솥에 지은 메밥에서 지명이 유래된 것이다. 신령은 초자연적인 신이(神異)한 존재로 오랫동안 복을 기원하는 신앙의 대상이었다. 이 같은 기복 신앙은 우리나라 민간신앙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삼선동이라는 이름은 이 마을 남쪽 산봉우리에서 한 옥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세 신선과 더불어 놀았다는 이야기에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 마을 이름뿐 아니라 옥녀와 신선이 놀았던 산봉우리에는 옥녀봉이라는 이름이 붙고, 옥녀가 세 신선과 함께 놀 때 치마를 벗어서 널었다는 바위에는 치

성북문화 제9호.indb 75 2022-02-18 오전 10:28:20



2017 삼선동 선녀축제(1)



2017 삼선동 선녀축제(2)



2017 삼선동 선녀축제(3)

삼선동에서는 마을의 유래가 되는 옥녀 설화를 재현하는 선녀축제를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이 축제의 백미는 한양도성 장수 마을 구간에서 시작되는 퍼레이드로, 행렬은 한양도성~돈암시장~삼선교~분수마루로 이어진다. (사진 출처: 성북구청)

마바위라는 이름이 붙었다. 대게 옥녀는 여성의 생산성을 상징화한 것으로 다산, 풍요를 의미하며, 신선은 장생불사의 존재로 장수의 상징이었다. 그 옛날 이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설화를 빌어 마을의 풍요와 마을 구성원의 장수를 기원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땅의 길흉이 사람의 길흉화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풍수 사상도 민간에 널리 퍼진 믿음 중 하나이다. 북한산의 산봉우리 중 하나인 구준봉 뒤쪽에 있는 잘록한 고개인 보토고개도 이 풍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지어진 지명이다. 보토고개의 보토(補土)는 '흙을 보탠다'라는 뜻이다. 서울로 들어오는 입구인 이 고개가 잘록하여서 풍수지리설에 따라 그 약한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 매년 흙을 메우고 흙째 떼어 낸 잔디 등을 입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이 밖에도 특별히 종교적 장소가 있거나 민간신앙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절한 믿음과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와 지역의 지명이 된 경우가 있다. 동망봉은 성북구 보문동과 종로

성북문화 제9호.indb 76 2022-02-18 오전 10:28:23



안암동에서 보문역 방향으로 바라본 보문동, 삼선동 전경(사진 출처: 성북구청)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말이 가지는 힘을 믿는다. 그렇기에 이름을 붙일 때면 그 속에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지명도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자신이 발 딛고 사는 땅에 좋은 뜻을 담은 이름을 붙여 복을 기원하려 했던 마음이 담겨있다.

구 숭인동에 걸쳐 있는 산봉우리이다. 단종의 비인 정순왕후 송씨가 정업원(현 청룡사로 추정)에 거처하며, 매일 아침저녁 이 봉우리에 올라와 영월을 바라보며 단종의 명복을 빌었다고 한다. 영월이 있던 동쪽(東)을 바라보던(望) 봉우리(峯)라는 뜻에서 동망봉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말이 가지는 힘을 믿는다. 그렇기에 이름을 붙일 때면 그 속에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지명도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자신이 발 딛고 사는 땅에 좋은 뜻을 담은 이름을 붙여 복을 기원하려 했던 마음이 담겨있다. 이는 종교를 넘어 오래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순수한 믿음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소개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다른 지명들에는 어떤 뜻이 담겨있는지 한 번씩 되짚어 보면 어떨까 싶다.

성북문화 제9호.indb 77 2022-02-18 오전 10:28:24

성북문화원이 주목한 인물 1

개운사의 학승, 석전 박한영

석전 박한영,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다. 사실 불교에 대해, 아니 불교사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다. 하지만 그는 한국 근대 불교를 대표하는 지성 가운데 한 명이며, 근대 불교사의 위치에서도 만해 한용운과 쌍벽을 이룬다. 그는 특히 성북구 안암동 개운사에 머물며 수많은 제자를 키워낸 학승이기도 했다. 이번『성북문화』9호에서는 이 박한영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려 한다.

글 : 박수진(성북문화원 부장)



구암사의 1930년대 모습, 사진출처 : 열린순창

성북문화 제9호.indb 78 2022-02-18 오전 10:28:25

개운사로 오기까지

1870년 전라남도 완주에서 태어났다.[1] 출가의 시점에는 논란이 있으나 20세를 전후하여 출가한 것으로 보이고, 27세에 순창 구암사에서 설유 스님에게 법맥을 이어 받았다. 이때 당호인 영호(映湖)와 시호인 석전(石顚)을 갖게 되었다. 석전은 추사 김정희가 백파 스님에게 "훗날 법호 가운데 도리를 깨친 자가 있으면 이로써 호를 삼으라."는 부탁에서 설유에게 전해졌다가 스님에게 전수된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이때의 수학으로 40이 되기 전 호남 불교의 선맥(禪脈)을 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의 성취를 이루었다.

1908년 서울로 올라온 박한영은 불교유신운동에 참여한다. 특히 국권을 잃은 이후 불교계에서 시작한 '임제종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1910년 10월 불교 종파 가운데 하나인 원종(圓宗)의 대표가 일본의 불교 종파인 조동종과의 통합을 꾀한 것이 알려지자 이를 비판하고 새로운 조직체인 임제종(臨濟宗)을 구성하여 한국불교의 전통이 임제종에 있음을 천명한 것이 임제종 운동이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박한영과 한용운 등이고 특히 한용운은 임시 종정을 역임하기도 한다. 한용운의『조선불교유신론』(1913)도 이 흐름에서 나온 것이다.

박한영은 이 시기 교육과 출판을 통해 불교유신운동에 나선다. 1912년에는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에 취임하여 후학을 양성하였으며, 이듬해에는『해동불보(海東佛報)』를 간행하여 불교유신에 대해 역설했다. 1919년 이후에는 불교운동과 독립운동을 병행했다. 1919년 9월에는 이종욱 등과 함께



개운사 전경, 사진출처 : 개운사 홈페이지

1 이 글은 김종진,「박한영과 국학자의 네트워크와 그 의의」『溫知論叢』57과 효탄, 2010,「근현대 불교인물 탐구 ① 박한영」『불교평론』의 글을 재정리 하였으며, 다른 글들을 이용하여 보완하였다.

성북문화 제9호.indb 79 2022-02-18 오전 10:28:26

한성임시정부 발족의 경성 대표로 활약하였으며, 1921년 11월 한국인민치태평양회의에 홍포룡과 함께 불교계 대표로 서명하였다. 이후에도 불교고등강숙의 숙사(塾師)와 불교중앙학림의 교장을 역임하며 강의를 계속하는 등 교육에도 힘썼다.

그는 전통적 교육과정을 받기도 했으며, 훗날 근대적 지식을 습득하였고 출판과 문필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는 점에서 1933년부터 성북동에 거주한 한용운과 유사한 면이 있으며, 실제로도 이 둘은 임제종 운동 등을 함께한 오랜 동지이기도 하다.[2]

개운사에서

박한영이 개운사에 온 것은 1926년 그가 57세 되던 해이다. 불교계는 당시 전통강원의 부활을 위해 역량을 모아 개운사에 불교전문강원(佛教專門講院)을 설립하였는데, 박한영은 여기에 강주(講主), 즉 일종의 원장으로 부임한 것이었다. 이 시기 박한영은 개운사에서 수많은 제자를 배출했다. 그 대부분은 승려였지만 문인 제자들도 꽤 많았는데,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박한영의 문인적인 성격과 문인 제자들에 관한 것이다.

박한영은 개운사에 오기 전부터 문인들과의 교류가 많았다. 그 스스로가 문인이었다. 그는『정선치문집설(精選緇門集說)』,『계학약전(戒學約詮)』 등 9권의 불교와 관련된 단행본을 집필 했을 뿐만 아니라 100여 편의 수필을 쓰기도 했다. 또한 1940년에 최남선이 주선하여 발간한 시선집『석전시초』에는 598편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었으니, 그야 말로 대단한 저술가였다. 자연히 문인들과도 가까웠는데 1910년부터 1930년까지 그가 교류했던 문인들은 확인되는 사람들만 해도 최남선, 정인보, 이병기, 이광수, 변영만, 이능화, 권상로, 양건식 등이다. 특히 그는 문인들과 여행을 다니며 여행기를 쓰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교류를 이어갔다.

개운사에 온 이후에도 그의 제자 가운데에는 문인이 많았다. 조종현, 서정주, 신석정, 김어수, 김달진, 조지훈, 김동리, 모윤숙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서울중앙고등보통학교와 고창고등보통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방황하던 서정주는 박한영의 제자로 들어가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다. 때문에 서정주는 박한영을 "나의 뼈와 살을 데워준 스승"으로 불렀다.[3] 서정주의 시에 불교적 정서가 가득한 것에는 박한영의 영향을 빼 놓을 수 없다. 둘의 관계는『석전 박한영 한시선』서문의 쓴 서정주의 서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 *석전 스님이 내게 끼친 도애(道愛)의 깊이도 내가 내 일생 동안 남에게서 받아 온 이런 종류의 사랑 가운데서는 가장 깊은 것이어서, 나는 이분을 잊고 지내다가도 내가 매우 견디기 어려운 한밤중에 홀로 깨어 고민하는 때의 언저리쯤에서는 반드시 다시 이분의 그 깊은 도애를 돌이켜 생각*

2 김상일,「근대 불교지성과 불교잡지」『한구어문학연구』52, 7쪽.

3 「근대불교 대강백 석전 박한영을 조명한다」, 조채희 기자, 2009년 9월 9일『연합뉴스』

성북문화 제9호.indb 80 2022-02-18 오전 10:28:26

하곤 어머니의 품속에 파묻히는 아이처럼 파묻히어 새로 살 힘을 얻는다.[4]

조지훈 역시 그의 영향을 받았다. 정서로 가득한 시 「승무」와 「낙화」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방우산장기(放牛山莊記)」는 불교의 심우(尋牛)에서 가져온 것이 분명하다. 그런 그에게 영향을 준 것은 어린 시절 찾아갔던 한용운과 조금 더 커서 만났던 박한영일 것이다. 고은은 신석정 문학의 불교적 색채 역시 박한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5]

이런 모든 교학(敎學)은 박한영이 개운사의 있을 때 일이다. 그는 1945년 초 정읍의 내장산으로 내려갔으며 1948년 4월 11일 입적했다. 1981년부터 중앙승가대학이 개운사를 교육도량으로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근대 최고의 학승 중 한 명인 박한영과의 인연의 끈이 이어졌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박한영, 개운사에서

4 서정주, 1976, 「석전 스님의 도애의 힘」『샘터』

5 「나의 山下 나의 삶」, 고은, 1992년 10월 18일, 『경향신문』 9면

성북문화 제9호.indb 81 2022-02-18 오전 10:28:26

성북문화원이 주목한 인물 2

무교회주의 지도자 김교신과 마라토너 손기정의 특별한 우정

글 : 박이선(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김교신이 창간한 〈성서조선〉

1901년 3월 30일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난 김교신(金敎臣, 1901~1945)은 일본 유학 시절 일본의 무교회주의 지도자 우치무라 간조(內村 鑑三, 1861-1930)의 영향을 받아 1927년 귀국 후 〈성서조선〉을 창간하였고, 15년간 발행인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김교신 선생은 1942년 3월 30일자로 발간된 성서조선 제 158호에 수록된 우리민족의 영혼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권두문 〈조와(弔蛙)〉가 발단이 되어 관계자들이 검거당하고 옥고를 치르게 된 일명 〈성서조선사건〉으로 인해 서대문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김교신 선생은 이렇듯 무교회주의 사상을 담은 성서조선을 15년간 발행한 신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창씨개명을 거부한 애국지사였으며, 양정고보(양정고등보통학교)의 지리, 박물학 교사로 재직하며 농구팀 코치로 학생들을 지도한 교육자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양정고보에서 마라토너의 꿈을 키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와 신뢰 깊고 돈독한 사제관계를 가지기도 했다. 몇 가지 자료에서 그들의 우정을 짐작해볼 수 있다. 먼저 성서조선 제 92호 중 〈손기정 군의 세계 마라톤 제패〉에서 발췌한 부분을 살펴보자.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 올림픽 우승 소식에 대한 김교신 선생의 감회가 담겨있는 부분이다.

성북문화 제9호.indb 82 2022-02-18 오전 10:28:26

첫재로 孫君은 우리學校의生徒요, 余輩도 일직이 東京-箱根間驛傳競走의選手여서 마라손競走의苦와快를體得한者요, 孫君이 昨年十一月三日 東京明治新宮코-스에서 二時間二十六分四十一秒로서 世界最高記錄을作成할때는 '先生님 얼굴이 보이도록 自動車를一定한距離로 앞서모시오'하는要求에 '설마先生얼굴보는일이 뛰는다리에 힘이될가'하면서도 이때에 生徒는敎師의心臟속에熔融合一되여버렸다. 六鄕橋折返點에서부터終點까지 車窓에 얼굴을提示하고應援하는敎師의雙頰에는 制止할줄 모르는熱淚가 視野를흐리게하니 이는師弟合一의化學的變化에서發生하는 눈물이었다. 그結果가世界記錄이었다. 이런處地에서伯林電波를 잡을때에 남다른感激이 없지못하다.

(해설)

첫째로 손군은 우리 학교의 생도요, 본인도 일찍이 동경-하코네(箱根)간 역전 경주의 선수여서 마라톤 경주의 고통과 기쁨을 체득한 자다. 손 군이 작년 11월 3일 동경 메이지 신궁 코스에서 2시간 26분 41초로 세계 최고 기록을 작성할 때에는 '선생님 얼굴이 보이도록 자동차를 일정한 거리로 앞서 모세요.'하는 요구에 '설마 선생 얼굴 보는 일이 뛰는 다리에 힘이 될까'하면서도 이때에 생도는 교사의 심장 속에 용융합일(熔融合一)되어버렸다. 록코바시(육향교, 六鄕橋) 반환점에서부터 종점까지 차창에 얼굴을 내밀고 응원하는 교사의 양 뺨에는 제지할 줄 모르는 열루(뜨거운 눈물)가 시야를 흐리게 하니 이는 사제합일(師弟合一)의 화학적 변화에서 발생하는 눈물이었다. 그 결과가 세계기록이었다. 이런 처지에서 베를린 전파를 잡을 때에 남다른 감격이 없지 못하다.

김교신 선생은 1935년 도쿄에서 열린 올림픽 출전 선수 선발전에 농구팀 코치로 참석했는데, 이때 손기정 선수 역시 마라톤 선수 선발전, 일명 메이지신궁경기대회에 참가했다. 손기정 선수는 김교신 선생에게 '선생님 얼굴이 보이도록 자동차를 일정한 거리로 앞서 모세요.'라며 부탁했고, 차창 밖으로 내밀어진 김교신 선생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며 그는 2시간 26분 42초라는 세계 최고 기록을 세우며 결승점을 통과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스승의 눈물만 보고 뛰어 우승할 수 있었다"

-손기정-

손기정 선수는 베를린에서 금메달과 함께 월계수 묘목 한 그루를 가지고 왔다. 물론 그 묘목은 실제로 미국 참나무인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올림픽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월계수로 부르고자 한다. 손기정 선수의 승전보와 함께 한국으로 넘어온 월계수 묘목은 현재 손기정 기념공

성북문화 제9호.indb 83 2022-02-18 오전 10:28:26




김교신(좌)와 손기정(우)

원(전 양정고보 터)에 심겨져 있다. 당시 양정고보 육상 코치로 재직하였던 김연창 선생의 술회에 따르면 실제로 월계수 묘목은 약 반년 간 김교신 선생의 정릉 자택에 있었다고 한다. 이는 바로 월계수 묘목이 겨우내 죽지 않고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염원과는 다르게 월계수 묘목은 시들 위기에 처하였고, 그들은 살아있는 뿌리를 건져내어 양정고보 한 모퉁이에 심었다고 한다. 비록 월계수 묘목을 보관하는 데 있어서 실수가 있었지만 겨우내 잘 버텨내기를 소망했던 김교신 선생과 김연창 선생의 마음이 느껴지는 일화가 아닐까 싶다.

이렇듯 김교신 선생은 손기정 선수가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자 제자를 생각하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참된 교사였다. 손기정 선수 역시 그러한 정신적 지지에 힘입어 더욱 훈련에 집중하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았나 싶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오직 달리기만을 생각하며 후대 스포츠인들의 귀감이 된 손기정 선수와 그러한 제자를 따뜻한 마음으로 지도하고 응원한 김교신 선생의 우정을 기리며 참된 사제관계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성북문화 제9호.indb 84 2022-02-18 오전 10:28:27

2021 성북문화원 행사

님을 기억하기 위한 슬기로운 문화생활

- 2021 성북문화원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

글: 신혜민(성북문화원 문화교육사업팀장)

갑자기 닥친 재앙, 그리고 1년 후 문화예술을 접하기 위해 저마다의 슬기로움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다. 성북문화원도 코로나로 인해 작년에 쉬어갔던 문화가 있는 날을 2021년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이 주관하는 '지방문화원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은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예술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성북문화원은 "님을 기억하기 위한 슬기로운 문화생활"을 주제로 성북의 역사문화예술인을 기리기 위한 공연을 준비했다. 총 세 차례 선보인 문화가 있는 날의 여정을 함께 돌아보자.

첫 번째 님 : 작곡가 채동선을 만나다(2021.07.28.)

시인 정지용의 시에 곡을 붙인 가곡 '고향'과 '향수'의 작곡가 채동선. 그는 일제강점기에 성북구 183의 17번지에 직접 설계한 2층 주택을 짓고 부인 이소란 여사와 살았다. 그러나 2019년 채동선의



'작곡가 채동선을 만나다'의 스토리텔러, 성북문화원 백외준 연구과장



채동선·이소란 가옥(성북동 183-17)의 철거 전 모습

성북문화 제9호.indb 85 2022-02-18 오전 10:28:29



3.1운동 이후 동료들만 남기고 석방된 채동선의 마음을 상상하여 만든 〈신문명〉(창작뮤지컬 '183의 17' 수록곡).
극단 더늠의 최강현 배우가 불러주었다.



채동선의 굳은 결심을 담은 〈꽃이 피어 있네〉(창작뮤지컬 '183의 17' 수록곡). 극단 더늠의 배우 이초롱, 최강현, 고병성 배우(왼쪽부터)가 불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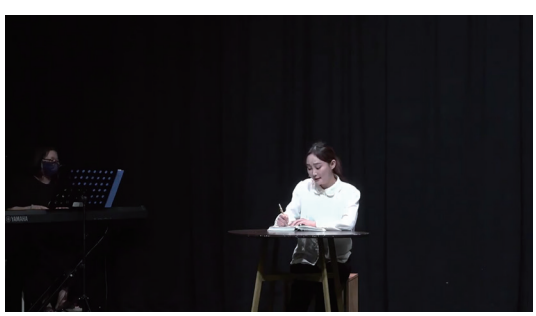
옛집은 개발로 사라졌고 아무런 표석도 남아 있지 않다.

문화가 있는 날의 첫 공연을 통해 음악과 민족을 사랑한 작곡가 채동선을 알리고 싶었다. 이것은 비록 그의 옛집은 사라졌더라도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채동선을 기억해나가기 위한 시도이기도 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채동선을 주인공으로 한 극단 더늠의 창작뮤지컬《183의 17》수록곡에 이야기를 더하여 그에 대해 알아보았다.

두 번째 님 : 기억을 기록하다(2021.08.25.)

12인의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전해들은 생생한 이야기를 엮은 책『이야기하다 보면 생각이 나』. 책 제목은 독립운동가 김의한과 정정화의 아들이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김자동 회장이 인터뷰 중 들려준 말에서 따왔다. 기록되지 않으면 역사가 아니라고 한다. 그들의 이야기가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지 않으려면 더 많은 일들이 남아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공연은 이 도서의 북콘서트로 진행되었다. 성북 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극단 더늠의 창작뮤지컬《아나키스트의 아내》갈라콘서트와 함께 들려주었다.



독립운동가 이은숙의 회고록 '서간도 시종기' 중 일부를 극단 더늠의 이초롱 배우가 낭독해주었다.



독립운동가 유우석, 조화벽의 며느리 김정애 여사의 인터뷰 영상

성북문화 제9호.indb 86 2022-02-18 오전 10:28:31



북콘서트의 진행은 독립운동가 후손을 발굴하고 인터뷰했던 성북문화원 박수진 부장과 백외준 연구과장이 맡았다.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조국을 위한 삶뿐이었다. 극단 더늠의 배우가 함께 들려준 〈하나의 삶〉(창작뮤지컬 '아나키스트의 아내' 수록곡).

세 번째 님 :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잇다(2021.10.27.)

항일음악가 채동선,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의 이야기로 두 공연을 치른 후 마지막 공연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찾아오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잇다'를 주제로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창작예술가들의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고자 했다. 거문고, 가야금병창, 대금, 창작전통음악, 밴드음악, 성악까지 여러 장르가 모여 문화가 있는 날의 마지막 공연을 빛내주었다. 음악공연인 만큼 현장행사로 진행되면 더욱 좋았겠지만 공연예술인들의 열정과 감정은 화면 너머 그대로 전달되었다. 문화가 있는 날의 모든 공연은 성북문화원 유튜브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잇다'를 진행한 극단 더늠의 이초롱 배우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전수자 이정아의 〈방아타령〉



역사와 문화를 노래하는 밴드 빈티지프랭키가 들려준 〈청포도〉. 시인 이육사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이다.



기억하고 지켜야하는 것들을 떠올리며, 바리톤 송현우가 들려준 〈시간에 기대어〉

성북문화 제9호.indb 87 2022-02-18 오전 10:28:37

2021 주민기록단

글 : 김지훈(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 2021년 주민기록단 활동 소개

우리 문화원은 2018년부터 「마을기록 아카이브 사업」의 일환으로 성북구 주민기록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과 함께 마을기록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집한 기록물은 성북마을아카이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민기록단'은 성북구 주민들의 기억과 삶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성북의 역사기자단입니다. 주민들의 인터뷰 내용을 구술 자료로 기록하며, 성북구의 인물·자연·건축물들을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갑작스런 코로나 확산으로 상반기 교육이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비디오 플랫폼을 활용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교육을 마쳤습니다. 특히 구술생애사 책자 발간은 주민기록단 교육의 새로운 시작이자 성과였습니다. 올해는 작년 온라인 플랫폼 교육으로 터득한 운영방법을 살려 상반기 교육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상반기 교육은 구술인터뷰 방법과 주민기록단 활동을 위한 글쓰기를 배웠습니다. 하반기 교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장실습도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민기록단 활동보고서를 결과물로 써보고, 수료 후에는 주민기록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졌습니다. 올해 주민기록단 교육은 성균관대학교 사학과에서 한국현대사를 가르치고 계시는 오제연 교수님이 맡아주셨습니다. 한국구술사학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최근에는 KBS 〈역사저널 그날〉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들과 소통하고 계십니다.

상반기 교육을 마무리하고, 6월부터는 실질적으로 성북구에서 주민기록단 활동을 이어갈 분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주민기록단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개별 신청을 통해 2021년 주민기록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1인 개인 활동을 기획했고, '성북구 내의 재개발 지역'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주민기록단은 재개발 지역에서 중요한 건물을 촬영하고, 지역의 상인·주민과 인터뷰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개발 지역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특정 건물이나 가게의 역사를 소개하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각 동네를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주민기록단은 발로 뛰어가며 사라져 가는 경관과 사람을 찾아내고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 9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진행한 하반기 교육입니다. 교육은 구술생애사 도서발간을 목표로 하여 구술채록과 글쓰기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의 내용은 구술인터뷰 방법, 녹취록 작성, 구술생애사 글쓰기로 구성하였으며, 조별활동을 진행하여 구술

성북문화 제9호.indb 88 2022-02-18 오전 10:28:37

자 인터뷰 및 시각자료 모으기 등 현장실습도 병행하였습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전염병 예방을 위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여 구술인터뷰와 답사만 현장 실습으로 운영하였고, 그 외 모든 과정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안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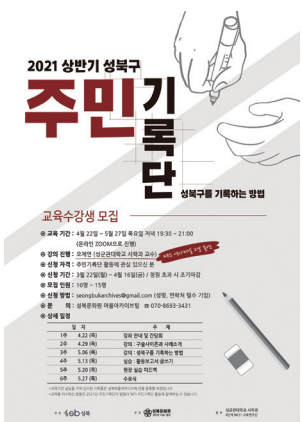
강의는 오제연 교수님의 구술인터뷰 방법론을 시작으로 녹취록 작성법, 인터뷰·글쓰기 경험 나누기, 구술 글쓰기 방법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강의 3주차에는 구술자와 만나서 인터뷰를 하였고, 6주차에는 한천마을과 북정마을을 답사하고 구술자와 관련된 장소를 촬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술생애사 글쓰기를 직접해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구술이야기 책인 만큼, 구술자의 활동이 두드러졌습니다. 11월에는 구술자의 생활공간에서 전문 사진작가에 의해 프로필 사진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교육 결과물『성북사람들의 구술생애사』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구술자와 오랜 시간 구술내용의 확인과 검토를 거쳤습니다. 성북문화원은 앞으로도 현장을 우선으로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주민기록단과 함께 공부하며 채워나갈 것입니다. 성북마을아카이브에 등록된 수많은 자료와 더불어『성북사람들의 구술생애사』시리즈를 통해서 지역의 역동성과 풍부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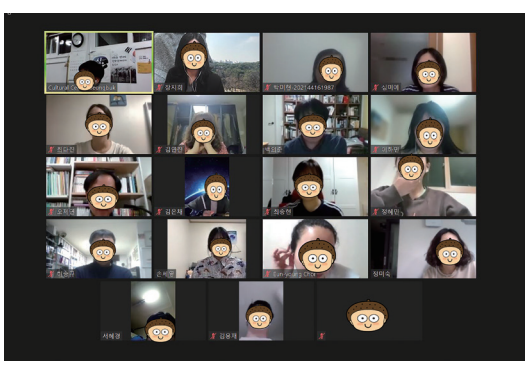
♣ 주민기록단이 되려면?

매년 성북문화원에서 진행하는「주민기록단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시면 정식 '주민기록단'이 되어 성북문화원과 함께 마을기록 수집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기간 실습을 거쳐 수집한 기록물은 성북마을아카이브 홈페이지에 선별·게재됩니다. 평소 성북구와 기록에 관심이 많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에서 살았던 우리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성북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주민기록단 상반기교육 주요 활동



상반기 교육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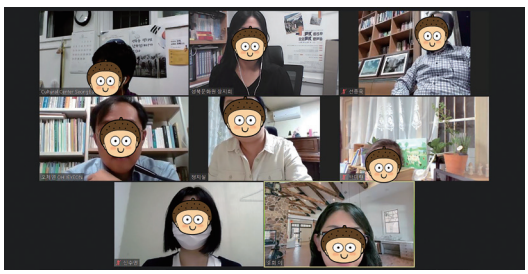
주민기록단 온라인 강의

성북문화 제9호.indb 89 2022-02-18 오전 10:28:38

♣ 주민기록단 하반기교육 주요 활동



하반기 교육 포스터



주민기록단 온라인 강의





구술자 프로필 촬영



하반기 교육 구술자 권춘자 님



하반기 교육 구술자 이승규 님

성북문화 제9호.indb 90 2022-02-18 오전 10:28:40

2021 성북문화원 소식

제1회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 제1회 성북 마을기록 전시

글: 염현주(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2021년에도 이어진 팬데믹 여파로 많은 기관의 문화행사가 축소되었지만, 성북문화원은 올해 '제1회'를 맞이하는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지난 2018년에 시작한 '성북구 마을기록 아카이브 사업'으로 성북마을아카이브 홈페이지가 개설되고 성북의 역사·문화에 대한 자료들이 차곡차곡 정리되고 있었으나, 행정 영역에서는 파악하기 힘든 구민들의 다양한 일상과 지역의 변천사가 '빈칸'으로 남아있었다. 먼저 2020년 12월, 성북구는 서울시 최초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성북문화원은 성북구청과 함께 올해 4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제1회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개최하여 성북의 마을기록으로 가치를 지닌 자료를 수집하였다.



〈제1회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포스터



《제1회 성북 마을기록 전시》 포스터

성북문화 제9호.indb 91 2022-02-18 오전 10:28:41



돌 때 신은 꽃신(1948)



석관동·성북동 미용실의 머리인두 및 가열기(1980년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사진, 영상, 문헌, 생활용품 등 총 360점의 소중한 기록물이 접수되었고, 민간기록물 자문위원회의 예심과 본심을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성북초등학교 생활통지표(1971)

보다 많은 시민들과 함께 민간기록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제1회 성북 마을기록 전시: 우리의 기억, 성북의 기록으로》를 개최하였다. 2021년 10월 29일,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개막한 전시는 길음동에 위치한 서울·성북 미디어문화마루에서 11월 7일까지 이어졌고, 수상작을 중심으로 성북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민간기록물 100여 점을 선보였다. 정릉 청수장에서 열린 1980년대 칠순잔치 영상과 성북구청 홍보영화 등 영상기록물도 편집하여 TV 모니터를 통해 재생하였다. 기록물을 기증한 수상자들은 개인적으로 소중하게 모아왔던, 젊은 날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물건 등이 성북구의 문화자원으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 매우 기뻐하였다.



청덕초등학교 체육시간(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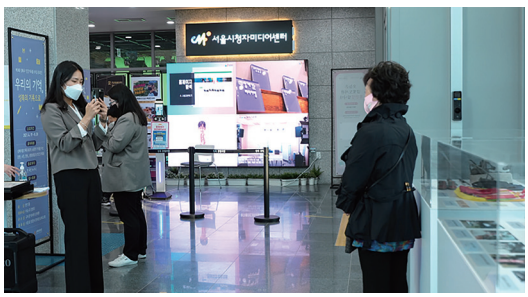


돈암동 5번지 친구들과 함께(1957)

성북문화 제9호.indb 92 2022-02-18 오전 10:28:41



《제1회 성북 마을기록 전시》에서 민간기록물 전시 전경



기증한 기록물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 중인 공모전 수상자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제1회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수상자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출품자들 외에도 능동적으로 성북의 이야기를 만들어나가는 기록의 주체로 성북구 주민기록단을 빼놓을 수 없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성북구 곳곳의 모습을 기록해온 주민기록단의 활동을 살펴보는 섹션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디지털화한 마을기록 8,500건이 담긴 성북마을아카이브의 구성을 소개하고,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이 직접 태블릿PC로 구동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시가 열린 서울·성북 미디어문화마루의 장소성에 주목하여 그동안 성북마을아카이브가 수집하고 기록한 길음동의 모습을 공개하였다. 길음동(吉音洞)이라는 동명의 시작이 골짜기가 길게 놓여 있는 동네라는 뜻의 '기리묵골' 또는 '기레미골'였듯이, 마을 앞으로 정릉천이 흘렀던 1970년대 사진부터 서울시 최초의 '주거 중심형' 뉴타운으로서 의미를 지닌 길음뉴타운 조성 현장까지 길음동 지역의 변화상을 관련 문학작품 등과 함께 입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더불어, 성북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으로, 변화의 기로에 선 길음시장의 60년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자료도 전시하였다.



성북마을아카이브+주민기록단 소개 섹션을 관람 중인 시민



성북마을아카이브 홈페이지에서 문학자료를 검색하는 시민

성북문화 제9호.indb 93 2022-02-18 오전 10:28:42



길음동 관련 자료와 민간기록물 영상 편집본을 선보인 전시패널





《제1회 성북 마을기록 전시》 전경
(서울·성북 미디어문화마루 1F 로비)

성북문화원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과 마을기록 전시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삶 속에서 생산된 기록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성북의 중요한 역사·문화자원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려 한다. 성북구민의 이야기와 기억이 모여 성북마을아카이브가 진정한 소통과 연대의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성북문화 제9호.indb 94 2022-02-18 오전 10:28:42

2021 성북문화원 행사

성북동밥마실

글 : 유예진(성북문화원 문화기획팀)





성북선잠박물관의 별빛금박초롱불만들기 체험에
참여중인 어린이



국가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예능보유자 이생강의
팔도강산아리랑 공연

2021년 11월5일(금)~6일(토) 성북동 일대에서 성북구청(구청장 이승로)이 주최하고 성북문화원(원장 조태권)이 주관한 성북동밤마실이 진행됐다. 이는 2017년부터 진행되어온 성북구의 대표 문화행사 '성북동문화재야행'의 새로운 이름이다. 2020년에는 유례없는 감염병으로 인해 아쉽게도 시민을 만나지 못했지만, 2021년은 단계적 일상생활 회복(위드코로나)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더욱 알차고 정비된 모습으로 개최될 수 있었다.

행사기간 동안 6개의 문화재와 5곳의 문화시설이 야간 개방을 실시하였다. 문화재로는 심우장, 선잠단지, 한국순교복자성직 수도회 구본원, 최순우 옛집, 이종석별장 그리고 한양도성. 문화시설로는 우리옛돌박물관, 성북선잠박물관, 성북구립미술관, 예향재 그리고 한상수 자수박물관이 참여했다. 2019년에 비해 선잠단지와 한상수 자수박물관이 추가되어 더욱 풍성한 밤나들이를 즐길 수 있었다.

성북동밤마실 행사로 인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관람객의 방문 QR코드 인증, 체온 측정, 손소독을 진행한 후에 입장 팔찌를 나누어주는 등 철저한 방역을 위해 노력하였다. 더 나아가 비대면에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선보이기도 했다. AR문화재 해설이 바로 그것인데, 특정 어플을 설치하고 축제 현장에 비치된 문화재의 사진 혹은 실제 문화재의 풍경을 핸드폰 카메라에 인식 시키면 해설가가 등장하여 문화재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건축 형태의 유형문화재뿐만 아니라, 국가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예능보유자 이생강과 국가무형문화재 제19호

성북문화 제9호.indb 96 2022-02-18 오전 10:28:45





성북동 밤마실 이모저모

선소리산타령 전수교육조교 이건자의 공연도 관람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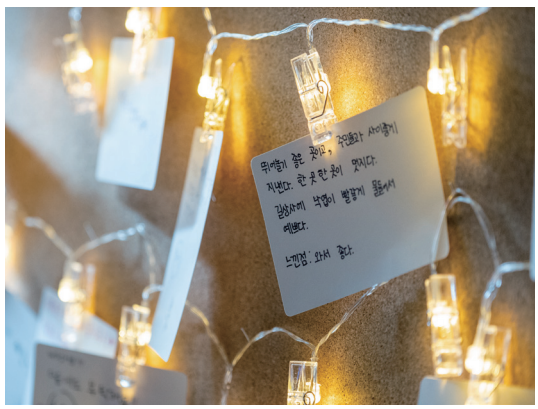
대면 프로그램으로는 전통체험과 성북구 소재 무형문화재 명인 · 대학생 및 예술인들의 공연이 실시되었다. 전통체험과 명인공연은 사전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었고 대학생 및 예술인의 공연은 메인거리(실외)에서 예약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었다. 이 때 성북구 대학생 및 예술인은 총 9개의 공연을 진행하여 가야금부터 K-POP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였다. 또한 좌석을 하프짐볼과 훌라후프로 준비하여 어린이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자연스러운 거리두기를 실천 할 수 있었다. 전통체험으로는 아트램프만들기, 누비버선향낭만들기 그리고 별빛금박초롱불 만들기가 진행되었다. 명인공연은 총 3개로 국가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예능보유자 이생강의 팔도강산아리랑, 국가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산타령 전수교육조교 이건자의 선소리산타령, 국가무형문화재 제79호 발탈 예능보유자 조영숙의 발탈 및 춘향전 일부를 감상할 수 있었다.

이 외에 부스로 참여한 기관들의 개별프로그램도 매우 큰 인기를 끌었다. 한성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트랙과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학생들이 진행한 성북동밤마실 기억저장소는 축제 현장의 촬영 및 기록부터 방문객과 스태프 인터뷰까지 진행하며 성북동의 가을을 아카이빙하였다. 성북동주민자치회는 줍깅[(스웨덴어의 줍다(plocka up)와 영어단어 달리기(jogging)의 합성어인 '플로깅(plogging)' 봉사활동으로 걷거나 뛰면서 길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뜻하는 신조어)] 이벤트를 진행하여 많은 시민에게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북문화원의 마을아카이브팀은 지역을

성북문화 제9호.indb 97 2022-02-18 오전 10:28:47



성북구 문인의 시 구절



성북동밤마실 관람객 방명록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아카이브를 수행하기 위해 관람객들의 방명록을 수집하였다.

도비의 둥지 부스에서는 올해 성북동밤마실의 마스코트인 도비의 유래를 설명하고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에 한하여 도비 혹은 도화 키링을 증정하였다.

또한 디자인적 측면으로 2021성북동밤마실은 시각적 아이덴티티가 확고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광섭의 제4시집〈성북동 비둘기〉에서 영감을 얻은 비둘기 아이콘과 성벽 밖 문예인들의 풍류와 자연의 멋을 상징하는 복숭아꽃을 각각 상징으로 정하고 현장 곳곳에 배치해두었다. 더 나아가 '성벽 밖 사람들'이라는 부제에 알맞게 현장 곳곳에 성벽을 연상시키는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특히 메인거리에 하얀 상자 안에 전구를 넣은 뒤에 성벽처럼 쌓아두고, 하얀 천에 성북구 문인들의 유명한 시와 소설의 문구를 출력하여 화단을 둘러두었다. 이러한 디자인적 노력 덕분에 시민들은 감성적인 가을밤을 한껏 즐길 수 있었다.

총 3,500여명이 다녀간 성북동밤마실은 내년에도 더 다채롭고 소통하는 모습으로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성북문화 제9호.indb 98 2022-02-18 오전 10:28:48

2021년 성북문화원 소식

2021년도 외부 경연대회 수상 회원

2021년에는 미술·서예 부문 문화강좌가 재개되어 수강생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수강생들은 각종 외부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였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일상 속에서도 예술에 대한 저물지 않는 열정을 보여준 여러분께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강좌명	성명	수상 내역
민화·전통채색	강승진	제22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은상
	김선화	제21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한국화) 특선
	길윤경	제22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특선
	이영주	제5회 전국민화공모대전 특선
		제35회 대한민국회화대전 입선
	장호선	제22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동상
	최희정	제21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한국화) 입선
		제35회 대한민국회화대전(한국화) 입선
사군자	정명숙	제19회 대한민국서예문인화대전 삼체상
	이발	제3회 대한민국통일명인미술대전 특선
		2021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장려상
수묵산수화	김관태	제23회 강남서예문인화대전 특선
한문서예	박영옥	제18회 님의침묵 서예대전 최우수상
		제38회 경인미술대전 우수상
		2021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은상
		제34회 정부인 안동장씨(장계향) 추모 여성휘호대회 우수상
		제1회 장진호 전투와 오늘의 대한민국 미술사진작품 공모전 최우수
		제17회 탄허대종사 선서 함양 전국휘호대회 대상
		제11회 대한민국 행촌서예대전 대상
		제2회 대한민국 김호연재 여성 휘호대회 장원
		제32회 추사선생 추모 전국휘호대회 차상
	이발	제40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한경희	2021 서울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 장려상

성북문화 제9호.indb 99 2022-02-18 오전 10:28:48

대회 및 수상 사진



민화-전통채색 | 강승진



민화-전통채색 | 김선화



민화-전통채색 | 길윤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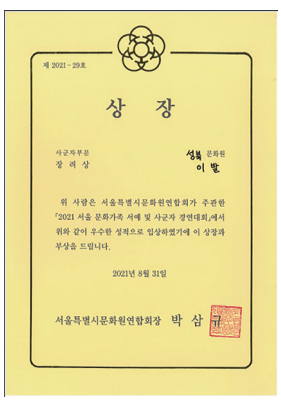
민화-전통채색 | 이영주



민화-전통채색 | 장호선



민화-전통채색 | 최희정



제 2021 - 29호

상 장

사군자부문
장 려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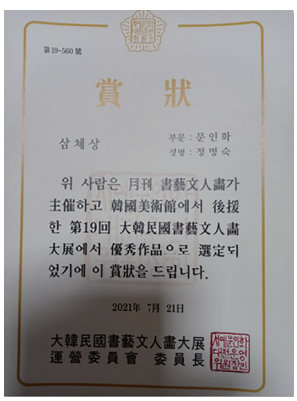
성명 문화원
이 발

위 사람은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한 「2021 서울 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21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장 박 삼 규

사군자 | 이발



第 19-560 號

賞 狀

삼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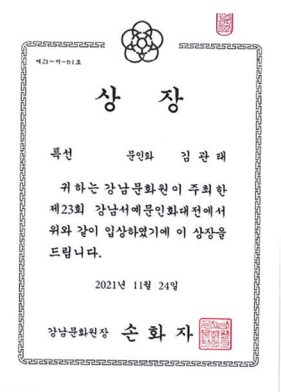
부문 : 문인화
성명 : 정명숙

위 사람은 月刊 書藝文人畵가 主催하고 韓國美術館에서 後援한 第19回 大韓民國書藝文人畵 大展에서 優秀作品으로 選定되었기에 이 賞狀을 드립니다.

2021年 7月 21日

大韓民國書藝文人畵大展
運營委員會 委員長

사군자 | 정명숙



제23-가-61호

상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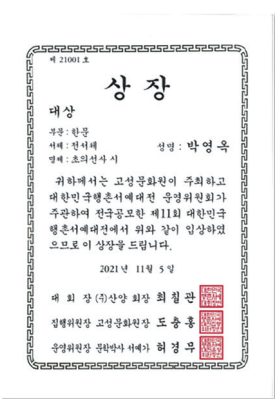
특선 문인화 김 관 태

귀하는 강남문화원이 주최한 제23회 강남서예문인화대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11월 24일

강남문화원장 손 화 자

수묵산수화 | 김관태



제 21001 호

상 장

대상

부문 : 한문
서체 : 전서체
법체 : 초의선사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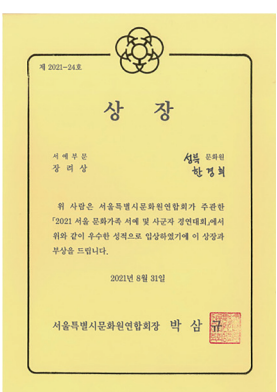
성명 : 박 영 옥

귀하께서는 고성문화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행촌서예대전 운영위원회가 주관하여 전국공모한 제11회 대한민국행촌서예대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 년 11월 5 일

대 회 장 (주)산양 회장 최 칠 관
집행위원장 고성문화원장 도 충 홍
운영위원장 문학박사 서예가 허 경 우

한문서예 | 박영옥



제 2021-24호

상 장

서 예 부 문
장 려 상

성명 문화원
한 경 희

위 사람은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한 「2021 서울 문화가족 서예 및 사군자 경연대회」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21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문화원연합회장 박 삼 규

한문서예 | 한경희

성북문화 제9호.indb 100 2022-02-18 오전 10:28:51

2021년 성북문화원 소식

2021년도 성북천 깃발전 수상작

2021년 낙엽이 하나둘 물들어 가기 시작한 9월, 깃발들이 가을바람을 타고 성북천 위를 펄럭거렸습니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한 성북구의 '대표 전시행사' 성북천 깃발전은 시민들의 작품을 깃발로 제작해 성북천변에 전시하는 행사입니다. 올해 깃발전은 한가위처럼 풍성한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성북천 팔랑거리는 상상전 : 상상 속 동물들이 뛰어오는 성북천」 총 310점, 「먹내음 가득한 성북천 : 김수영 시인 100주년 기념 : 곧은 시대를 부르는 언어」 총 96점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작품수준이 한층 더 올라가서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총 20점의 수상작을 뽑고, 선정작을 포함하여 총 158점이 깃발로 제작되어 성북천을 수놓았습니다. 풍부한 상상력을 뽐낸 아이들과 은은한 먹내음을 선사한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12회 성북천 팔랑거리는 상상전

주제 : 상상 속 동물이 뛰어노는 성북천



대상
이서현
〈풍악이 울리는 성북천〉



최우수상
조영우
〈신나는 파티중인 성북천〉

성북문화 제9호.indb 101 2022-02-18 오전 10:28:51



최우수상
나건우
〈성북천 낮과 밤을 지키는 파이온〉



우수상
남윤재
〈평화로운 성북천〉



우수상
이상결
〈작아진 우리의 신나는 곤충 놀이터〉



우수상
임하율
〈아니! 저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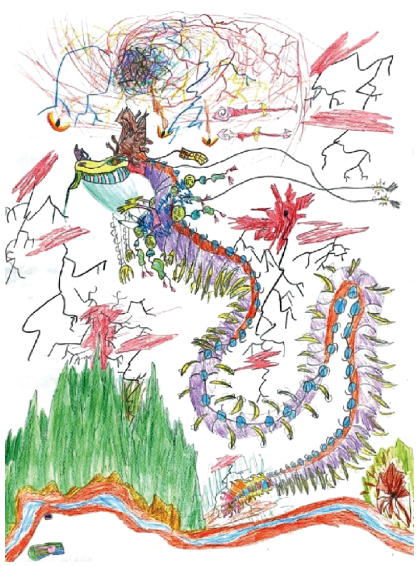
성북문화 제9호.indb 102 2022-02-18 오전 10:28:52



가작
김민정
〈주작글라이딩〉



가작
남우석
〈다같이 성북천에서 놀아요〉



가작
윤준영
〈사황 지네장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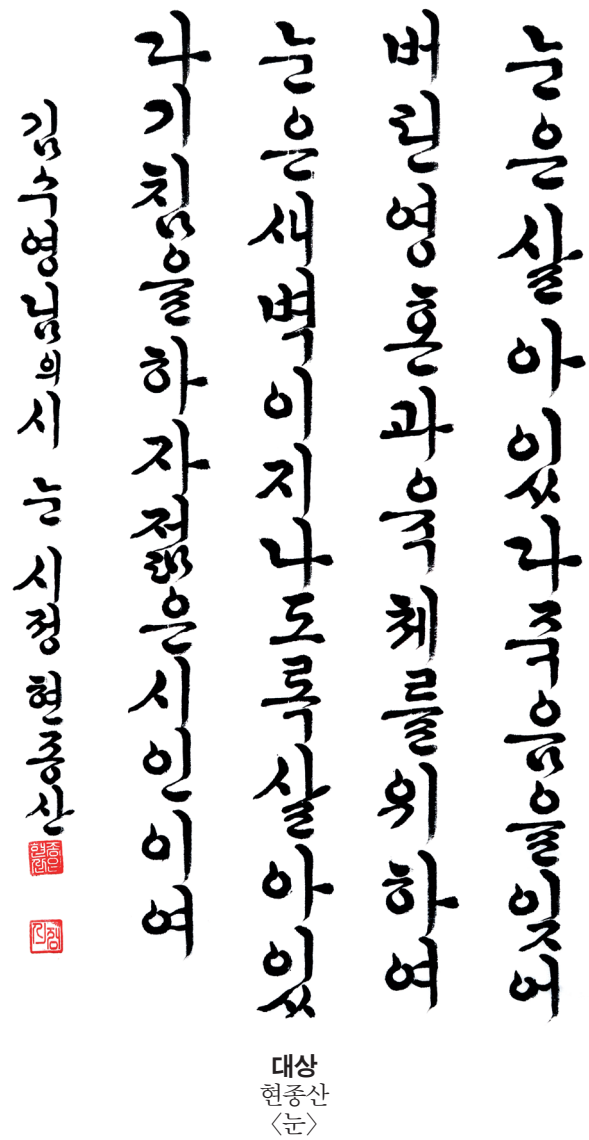
가작
최주원
〈성북천 위를 날다〉

성북문화 제9호.indb 103 2022-02-18 오전 10:28:53

제9회 먹내음 가득한 성북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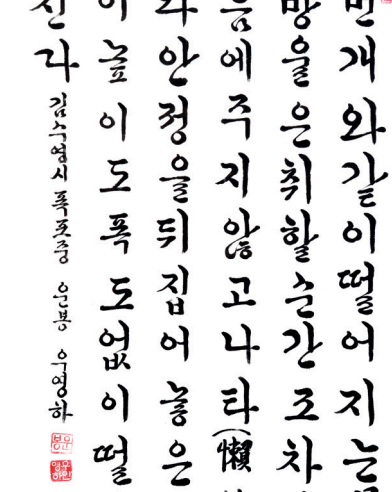
주제: 김수영 시인 100주년 기념 : 곧은 시대를 부르는 언어

[한글서예 부문]



대상
현종산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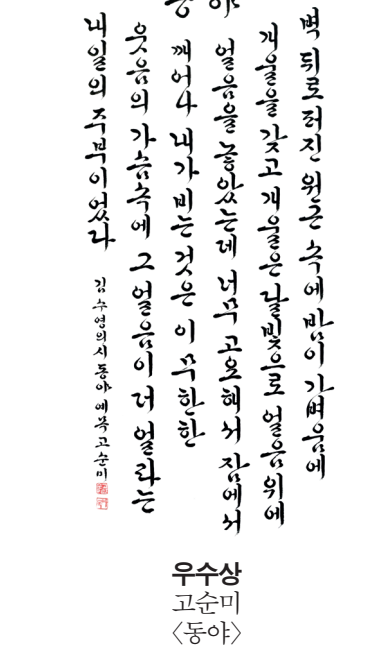
성북문화 제9호.indb 104 2022-02-18 오전 10:28:53


재앙과 격특와 청춘과
천만인의 생활과 그리
한 조 든 것이 보이는 밤
봄밤 중에서 김인석

최우수상
김인석
〈봄밤〉

벌개와 같이 떨어지는 날을
방을 은 취할 술 같 조차 마
음에 즉지 않고 나 타(懶惰)
와 안 정을 뒤 집 어 놓 은 듯
이 놀 이 도 폭 도 없 이 떨 어
진 다 김수영시 폭포중 우영하

최우수상
우영하
〈폭포〉


어둠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배웠다 너로
해서 김수영님의 사랑
라온 성정은

우수상
성정은
〈사랑〉

벽 뒤로 걸린 윗 눈 속에 반이 간 벼 움에
게 을 을 갖 고 게 을 은 날 빛 으 로 얼 음 위 에
아 얼 음 을 놀 았 는 데 너 무 고 요 해 서 잠 에 서
동 깨 어 나 내 가 비 는 것 은 이 주 한 한
웃 음 의 가 슴 속 에 그 얼 음 이 너 얼 라 는
내 일 의 주 부 이 었 다 김수영의시 동야 에 묵고 순미

우수상
고순미
〈동야〉

성북문화 제9호.indb 105 2022-02-18 오전 10:28:54

[캘리그래피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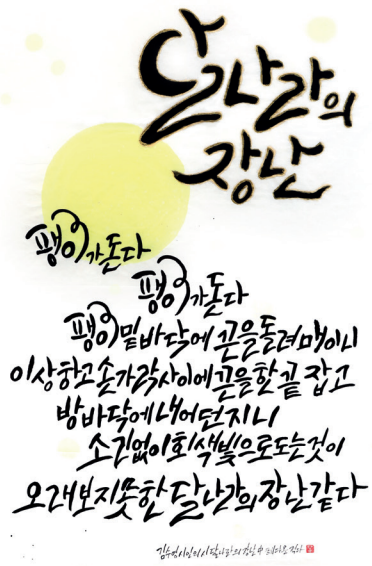


대상
박찬현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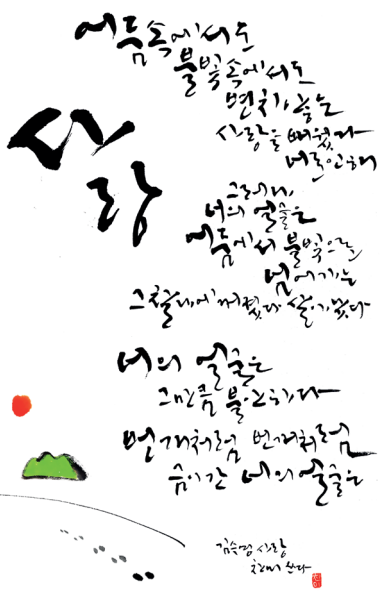
성북문화 제9호.indb 106 2022-02-18 오전 10:28: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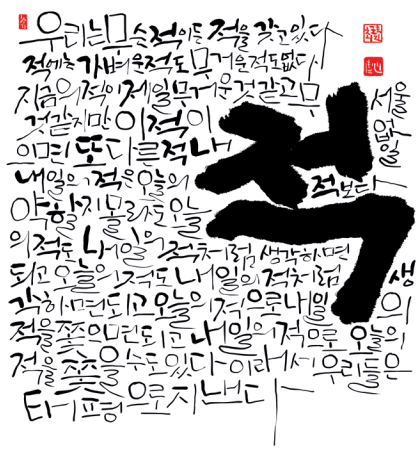
최우수상
권진윤
〈밤〉



최우수상
오혜림
〈달 나라의 장난〉



우수상
임정언
〈사랑〉



우수상
최현진
〈적〉

성북문화 제9호.indb 107 2022-02-18 오전 10:28:56

2021년 성북문화원 소식

사진으로 만나는 성북문화원의 2021년

성북문화원은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기존의 문화강좌를 운영하였으며, 작년에 이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취소되었던 성북동밤마실(옛 성북동문화재야행)은 기존과 같이 대면으로 열려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의 마음에 조금의 위로를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은 서로 웃는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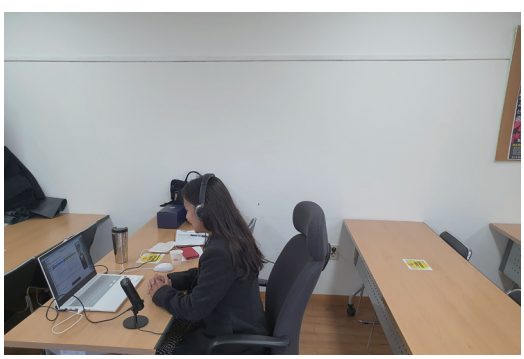
문화강좌



기초소묘에서 유화까지



민화-전통채색



원어민 영어회화



행복한 시 읽기

성북문화 제9호.indb 108 2022-02-18 오전 10:28:58



수묵산수화



한문서예

지역 문화 계승사업





프리미엄 인문학 '성북x키즈: 미술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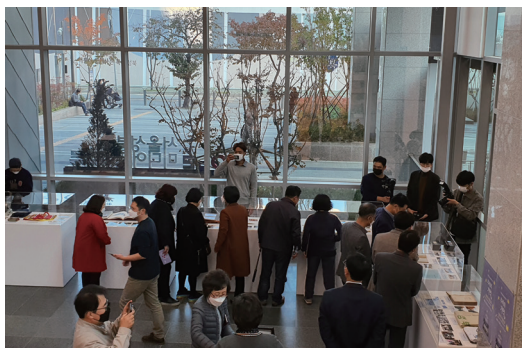




성북주민 아카데미

성북문화 제9호.indb 109 2022-02-18 오전 10:29:02











성북마을 아카이브





성북학학술회의(2회, 3회)

성북문화 제9호.indb 110 2022-02-18 오전 10:29:06



사군자 경연대회



한글서예 경연대회

지역문화 축제 및 문화행사









성북동 밤마실

성북문화 제9호.indb 111 2022-02-18 오전 10:29:10





성북천 깃발전





이육사 탄생 117주년 기념문화제









만해 한용운 선사 77주기 추모 다례재 및 뮤지컬 심우

성북문화 제9호.indb 112 2022-02-18 오전 10:29:15



3차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잇다'



2차 '기억을 기록하다'

문화가 있는 날 : '님을 기억하는 슬기로운 문화생활'

성북문화 제9호.indb 113 2022-02-18 오전 10:29:17

언론에 비친 성북문화원

HOME > 로컬+ > 서울

'성북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 본격 활동 스타트

이준철 기자 | 승인 2021.03.11 11:03 | 댓글 0



(사진=성북구의회)

서울 성북구의회 '성북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이 지난 10일 첫 활동을 시작했다.

11일 구의회에 따르면, '성북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은 유적지 및 문화자원이 풍부한 성북구의 특성을 살려 학계 전문가와 의원이 함께 관내 각 동 및 권역별 역사연구에 참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다. 안향자(대표)·정기혁(간사)·박학동·양순임·정혜영·김우섭·한건희·이호건 의원이 참여한다.

같은 날 오전 구의회 제4회의실에 모인 의원들은 성북문화원 강성봉 사무국장으로부터 성북구 주요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개괄적인 강의 및 앞으로의 일정을 듣는 것으로 연구활동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오후부터 이어진 현장방문에서는 성북동에 소재한 역사문화 관련 유산 및 주요 장소를 돌아보며 해설을 듣고 주제별 토론을 진행했다.

《신아일보》, 2021.03.11.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1	03.11	신아일보	'성북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 본격 활동 스타트
2	03.11	이뉴스투데이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성북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 활동 실시
3	03.13	시민일보	성북구의회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 본격 활동 시작

성북문화 제9호.indb 114 2022-02-18 오전 10:29:17

덕성여대-동북 4구 문화원, 업무협약 체결

머니투데이 | 권현수 기자

2021.03.31 18:03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가 31일 교내 오스카라운지에서 동북 4구(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문화원과 서울 동북 4구 지역문화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덕성여대 김진우 총장직무대리, 오영희 글로벌융합대학장, 이재호 대학일자리본부 부본부장, 이송란 인문과학연구소장, 최주희 지역문화연구센터장, 오치정 노원문화원장, 이영절 도봉문화원장, 오중섭 강북문화원 사무국장, 강성봉 성북문화원 사무국장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머니투데이》, 2021.03.31. 기사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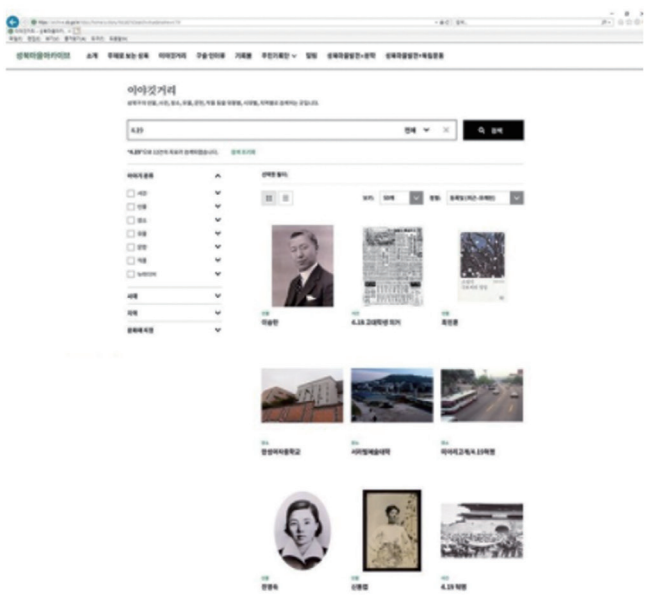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4	03.31	브릿지경제	지역문화연구 확대…덕성여대-서울 동북 4구 문화원 MOU
5	03.31	머니투데이	덕성여대-동북 4구 문화원, 업무협약 체결
6	03.31	대학저널	덕성여대, 서울 동북 4구와 학술교류 협약
7	03.31	한국대학신문	덕성여대, 서울소재 동북 4구 학술교류협약 체결
8	03.31	스마트경제	덕성여대, 서울소재 동북 4구 학술교류협약 체결
9	03.31	베리타스알파	덕성여대, 서울소재 동북 4구(區) 학술교류협약 체결
10	03.31	데일리한국	덕성여대 지역문화연구센터, 도봉구 등 서울 동북4구문화원과 학술교류 협약
11	04.01	교수신문	덕성여대, 서울소재 동북 4구(區) 학술교류협약 체결
12	04.01	이데일리	덕성여대, 서울 4개 자치구와 학술교류 협약
13	04.01	메트로신문	덕성여대, 서울 강북·노원·도봉·성북구와 학술교류협약 체결
14	04.01	중앙일보	덕성여대, 서울소재 동북 4구(區) 학술교류협약 체결
15	04.01	글로벌이코노믹	덕성여대-동북4구문화원, 학술교류협정 체결
16	04.01	매일일보	덕성여대, 서울 동북 4구와 학술교류협약 체결
17	04.01	뉴스1	덕성여대, 서울 동북4구와 학술교류협약…학술대회·대중화사업

성북문화 제9호.indb 115 2022-02-18 오전 10:29:18

HOME > 지역소식 > 인서울

성북구·성북문화원, 지역의 민주화 역사 게시글 공개

홍덕표 기자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4-16 14:34:30



▲ 서울 성북구와 성북문화원이 4.19 혁명 61주년을 기념해 지역의 민주화 역사를 알리는 게시글을 공개했다. 이미지는 4.19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콘텐츠와 기록물을 모아둔 성북마을아카이브 홈페이지. (사진제공=성북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와 성북문화원이 4.19 혁명 61주년을 기념해 지역의 민주화 역사를 알리는 게시글을 공개했다.

성북구와 성북문화원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면서 매주 금요일 성북구와 관련된 시의적절한 이야깃거리와 기록물을 소개하는 '금도끼(금요일마다 돌아오는 성북의 이야기)'라는 표제의 게시글을 작성해 게재하고 있다.

《시민일보》, 2021.04.16.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18	04.16	아시아경제	4.19 혁명 도화선 고려대생 데모 피습 등 성북구 안에 4.19 있다
19	04.16	시민일보	성북구·성북문화원, 지역의 민주화 역사 게시글 공개

성북문화 제9호.indb 116 2022-02-18 오전 10:29:18

HOME > 지역소식 > 인서울

성북구-성북문화원,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개최

홍덕표 기자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4-20 14:52:46



▲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포스터. (사진제공=성북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북구와 성북문화원이 지역의 변천과 생활상이 담긴 기록을 찾기 위해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연다.

《시민일보》, 2021.04.20.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20	04. 20	아시아경제	성북구 '제1회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
21	04. 20	헤럴드경제	성북구, '제1회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진행
22	04. 20	뉴스1	성북구 "우리동네 옛 모습 담긴 기록물 찾습니다"
23	04. 20	푸드경제신문 organiclife	성북구·성북문화원, '제1회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개최
24	04. 20	시민일보	성북구-성북문화원,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개최
25	04. 20	한국농업신문	'성북구' 제1회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진행
26	04. 20	정보통신신문	"성북구" '제1회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진행

성북문화 제9호.indb 117 2022-02-18 오전 10:29:18

HOME > 뉴스

성북구 "이육사 탄생 117주년 기념 문화제' '전설은 손님이 되어" 개최한다

김한기 기자 | 승인 2021.05.14 12:55 | 댓글 0



사진제공=서울

서울 성북구가 오늘 18일 민족시인 이육사 탄생 117주년을 기념해 비대면 문화제를 개최한다.

18일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이육사 선생의 탄생 117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정보통신신문》, 2021.05.14.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27	05. 14	문화일보	성북구, 이육사 탄생 117주년 기념… 18일 온라인 문화제
28	05. 14	한국농업신문	성북구 '이육사 탄생 117주년 기념 문화제' '전설은 손님이 되어' 개최
29	05. 15	시민일보	성북구, 민족시인 이육사 탄생 117주년 기념 비대면 문화제 개최
30	05. 16	신아일보	성북구, 이육사 탄생 117주년 기념 문화제 개최
31	05. 16	정보통신신문	성북구 '이육사 탄생 117주년 기념 문화제' "전설은 손님이 되어" 개최한다
32	05. 17	아시아경제	이육사 탄생 117주년 기념 온라인 문화제 개최

성북문화 제9호.indb 118 2022-02-18 오전 10:29:19

지역

[포토]성북구, 만해 한용운 77주기 추모 다례재 개최

최종수정 2021.06.29 16:27 기사입력 2021.06.29 16:27 댓글 쓰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만해 한용운 선생 입적 77주기를 맞아 성북동 심우장에서 추모행사를 개최했다.

29일 오전 10시부터 만해 한용운의 고택 심우장(성북구 성북로29길 24)에서 진행된 '만해 한용운 선사 77주기 추모다례재'는 성북문화원, 재단법인 선학원·정법사가 공동으로 주최·주관, 성북구청과 국가보훈처, 만해한용운선양사업지방정부행정협의회가 후원하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조선 팔도가 일제에 넘어갔어도 심우장 만은 오롯이 대한민국으로 남아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심우장은 만해의 삶과 정신이 서린 특별한 장소"라며"만해의 정신과 업적을 국민과 공유하고 지역문화사업의콘텐츠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2021.06.29.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33	06. 29	아시아경제	[포토]성북구, 만해 한용운 77주기 추모 다례재 개최

성북문화 제9호.indb 119 2022-02-18 오전 10:29:19

성북구의회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홍덕표 기자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9-30 15:20:01

역사문화정책·도시브랜드 개발 제시



▲ 성북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성북구의회)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북구의회(의장 김일영) '성북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이 최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성북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은 독립운동 사적을 비롯해 문학·미술·음악 등 역사문화자원을 다수 보유한 성북구의 지역적 특성에 주목, 구의 문화적 역량을 키울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결성됐다.

이에 따라 모임은 지난 3월부터 시작돼 현장방문과 토론 등 여러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날 행사는 성북문화원이 주축이 되고 여러 기관의 자문위원들이 함께 진행한 '성북구 역사문화자원 조사를 통한 지역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국내외 사례연구·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성북구의 관련 정책 개발 방향 등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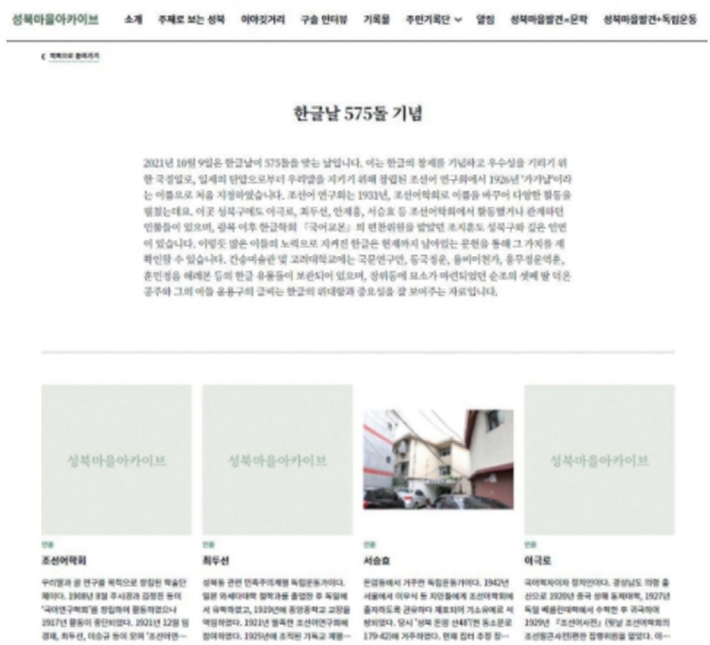
《시민일보》, 2021.09.30.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34	09.29	이뉴스투데이	성북구의회 '성북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 활동 일단락
35	09.29	신아일보	성북구의회, '성북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 활동 최종보고회 개최
36	09.29	쿠키뉴스	'성북의 가치를 살리자'…성북구의회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 막바지 돌입 [우리동네 쿡보기]
37	09.30	시민일보	성북구의회 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모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성북문화 제9호.indb 120 2022-02-18 오전 10:29:20

성북구·성북문화원, 한글날 575돌 기념 '성북마을아카이브' 자료 공개

허인 기자 | 승인 2021.10.06 12:44 | 댓글 0



(사진=성북구·성북문화원)

서울 성북구와 성북문화원은 지역 아카이브 누리집인 성북마을아카이브에 성북구의 한글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6일 구와 성북문화원에 따르면 성북마을아카이브에서는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고 연구하는데 힘썼던 단체인 조선어학회에서 활동하거나 관계하던 이극로, 최두선, 안재홍, 서승효 등과 광복 이후 한글학회 '국어교본'의 편찬위원을 맡았던 조지훈 등 성북구와 깊은 인연이 있는 인물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신아일보》, 2021.10.06.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38	10.06	제주교통·복지신문	성북구·성북문화원, 한글날 575돌 기념 '성북마을아카이브' 자료 공개
39	10.06	신아일보	성북구·성북문화원, 한글날 575돌 기념 '성북마을아카이브' 자료 공개
40	10.06	시민일보	성북구, 성북마을아카이브에 성북구의 한글 관련 자료 공개

성북문화 제9호.indb 121 2022-02-18 오전 10:29:21

성북구·성북문화원, 제1회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개최

홍덕표 기자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0-15 15:54:30



▲ 최우수상, 1980년 머리 인두. (사진제공=성북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와 성북문화원은 2021년 4월19일~8월20일 '우리의 기억, 성북의 기록으로'라는 주제로 제1회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개최했다.

《시민일보》, 2021.10.15. 기사 발췌

연번	날짜	언론사	기사명
41	10.15	시민일보	성북구·성북문화원, 제1회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개최
42	10.26	시민일보	성북구·성북문화원, 마을기록 전시 개최
43	11.02	시민일보	성북구, '제1회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시상식 개최

성북문화 제9호.indb 122 2022-02-18 오전 10:29:23

2021년도 성북문화원 임원 명단

원장		
	조태권	(주)광주요그룹 회장
부원장		
	엄재룡	거산그룹 회장
	김영일	(주)태명실업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이사		
	구자은	LS그룹 회장
	김신한	대성산업가스 사장
	김재천	前 성북구선거관리위원
	심종현	한국가구박물관 부관장
	장윤규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전인건	간송미술관 관장
	천미전	우리옛돌박물관 부관장
	허광복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홍진석	남양유업 상무
(당연직)	김호형	성북구청 복지문화국장

성북문화 제9호.indb 123 2022-02-18 오전 10:29:23

감사

정호섭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최종명	최종명세무사사무소 대표

운영위원

계영선	영라인의원 원장
강석원	前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류지연	국립현대미술관 현대미술1과장
이홍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임석규	불교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장
정하경	한성대학교 명예교수
한민석	동덕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고문

김희진	국민생활체육전국배구연합회 상임이사
마상곤	협운해운(주) 회장
박태호	원제한의원장
박병호	前)서울시문화관광해설사
이병무	(주)아세아시멘트 회장
이윤재	(주)피죤 회장
이의순	(주)세방그룹 회장
장치혁	고려학술문화재단 명예회장
정근호	라이프어패럴(주) 리더무역 CEO회장
정승소	(주)동승 회장
조양래	한국타이어(주) 회장
허남각	삼영통상(주) 회장

역대원장

1대	故 구두회	前 (주)에스코 회장
2대	천신일	(주)세중그룹 회장

성북문화 제9호.indb 124 2022-02-18 오전 10:29:23

2021년 성북문화원을 후원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개인

강희정, 계영선, 권아름, 김연화, 김용준, 김우섭, 김유영, 김은화, 김의성, 김장현, 김주미, 김준용, 김준현, 김지은, 김진흠, 김한상, 남기현, 남윤면, 문일웅, 민은영, 민지영, 박병호, 박상찬, 박준범, 박창희, 배경식, 변성진, 서준석, 신용복, 오근창, 위가야, 유현희, 이건자, 이상훈, 이석권, 이승호, 이응선, 이재석, 이정빈, 이주원, 이주헌, 이준성, 이중민, 이현주, 임석규, 전원호, 정병기, 정　영, 정지연, 조규태, 주연경, 최성규, 최성찬, 최우석, 최정순, 최호진, 표민수, 한민석, 홍선희, 황장훈, 황재호

기관·단체

교육기업 함께늘봄, ㈜삼신엠앤티, 주식회사 피사일삼, 철한정화기업, 홍천사

성북문화원을 후원한 가게들



영라인의원 (서울 성북구 성북로6길 4)



고기 굽는 마을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1길 10)



이강희 곰탕(서울 성북구 성북로5길 6)



구포국수 (서울 성북구 성북로19-1 2층)



데자르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30 2층)

성북문화 제9호.indb 125 2022-02-18 오전 10:29:26

후원은 나와 문화를 키우는 또 하나의 참여입니다

성북문화원은 우리 고유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여 문화교육과 문화복지를 위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성북문화원은 성북을 대표하는 비영리 법인의 문화기관으로 확실하고 신뢰성 있는 문화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 문화원에 후원한 기업 및 개인에게 투명한 정기적인 기금 사용을 보고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관리에 노력합니다.
- 성북구민의 전통문화를 적극 수용하여, 고유문화의 정체성을 깨닫고 체험하여, 우리지역의 동질의식과 소속감을 고양하여 지역문화를 아끼고 보존하는데 참여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랑스런 성북 문화예술 발전에 동참할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은 소중히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후원 종류

- **후원금**

  성북문화원의 모든 사업에 후원하면서, 우선적으로 도움이 시급한 문화복지사업에 지원합니다.

- **물품후원**

  후원하신 물품은 문화원 지역축제 행사 및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와 문화교육의 기회확대에 소중히 사용됩니다.

-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언제든지 문화원 행사와 문화복지 및 교육에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후원금 기부 방법

- **정기후원**

  다음 쪽의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절취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소득공제용 후원 영수증을 발급해드리며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반후원**

  일정금액을 입금해주시고 성북문화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002-274868)

성북문화 제9호.indb 126 2022-02-18 오전 10:29:26

성북문화원 후원 신청서

□ 후원자 정보

이 름		주민(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E-mail			

□ 정기 후원(CMS)

금 액	□ 1만원 □ 2만원 □ 3만원 □ 기타 (　　원)		
예금주명		출 금 일	□ 5일 □ 15일 □ 25일
출금은행		계좌번호	

※ 정기후원의 경우 후원금은 은행에 직접 가시지 않아도 금융결제원의 CMS를 통해 자동 출금됩니다.

□ 일반 후원

현금 후원	성북문화원 2층 사무국 방문
	□ 1만원 □ 2만원 □ 3만원 □ 기타 (　　원)
계좌이체 후원	우리은행 1005-002-274868　예금주 : 성북문화원
	□ 1만원 □ 2만원 □ 3만원 □ 기타 (　　원)

위 각 항목은 회원님에 대한 연락, 문화원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과 후원금 자동이체 CMS,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 수집하는 것입니다. 위 정보는 수집 · 이용을 동의한 때부터 후원회원 탈퇴시까지(단,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자의 경우 최종발급 시기까지) 이용 · 보유합니다. 회원님은 이러한 수집 · 이용을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회원님에 대한 연락, 정보제공, 기부금영수증 발송, 보고물 발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성북문화원에 위와 같이 후원하기로 약정합니다.

2022년　　월　　일

후원인 :　　(서명/인)

성북문화원장 귀하

성북문화 제9호.indb 127　　2022-02-18 오전 10:29:26

2022년 성북문화원

봄학기 문화강좌

◎ 접수기간 : 2022년 2월 7일(월) ~ 선착순 마감

◎ 수강기간 : 2022년 3월 2일(수) ~ 2022년 5월 24일(화), 12주

◎ 문의전화 : 02-765-1611

〈 현장 강의 〉

강 좌 명	요일 · 시간		수강료(12주)	정원
사군자	월	10:00~12:00	60,000원	18명
기초소묘에서 유화까지	화	10:00~12:00	70,000원	16명
사진교실(초급)	화	10:00~12:00	70,000원	18명
사진교실(중급)	화	14:00~16:00	70,000원	18명
유화로 그리는 인물화	화	13:00~15:00	70,000원	16명
행복한 동화 읽기	화	14:30~15:50	80,000원	16명
행복한 시 읽기	화	16:00~17:20	80,000원	16명
한글서예	수	10:00~12:00	60,000원	18명
민화 - 전통채색	수	13:10~15:10	70,000원	16명
역사와 문화유산	수	15:00~16:50	90,000원	16명
수묵산수화A	목	09:20~11:20	60,000원	18명
수묵산수화B	목	11:30~13:30	60,000원	18명
한문서예A	목	14:00~16:00	60,000원	18명
한문서예B	목	16:00~18:00	60,000원	18명
규방공예	금	10:00~12:00	60,000원	18명
문예창작실기	금	10:00~12:00	80,000원	16명
수채화&데생	금	13:20~15:40	80,000원	16명

〈 온라인 강의(ZOOM) 〉

강 좌 명	요일 · 시간		수강료(12주)	정원
원어민중국어회화(기초)	월	14:00~14:50	45,000원	12명
원어민중국어회화(중급)	월	15:30~16:50	60,000원	12명
원어민영어회화(초급)	화	10:30~11:20	45,000원	12명
원어민영어회화(중급LEVEL1)	화	11:50~12:40	45,000원	12명
원어민영어회화(중급LEVEL2)	화	13:10~14:00	45,000원	12명
원어민영어회화(고급)	화	14:30~15:50	60,000원	12명